襄陽文化

제32호

襄陽文化院

양양8경

1경 남대천

남대천의 발원은 오대산 두루봉이며 후천은 점봉산과 구룡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류 서문천에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청정수역이다. 봄에는 바다에서 은어, 황어 가을에는 연어가 소상하고 겨울이면 시베리아서 큰고니(백조)가 찾아오는 희기 본능의 강이며 양양군민의 식수원이다.

2경 대청봉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1번지이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성해응의「동국명산기」에 '그 봉우리가 높아서 높고 푸른 하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라 이름 하였다'고 하며 정상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3경 오색령

원래 이름은 소솔령 所率嶺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년) 때부터 오색령(1,004m)으로 고쳐 불려 졌으며, 현재 44번 국도로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경관도로 제54선으로 선정되어 가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운집한다.

4경 주전골

오색 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1,424m) 서쪽 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며, 무염스님이 12세에 출가한 오색석사와 주위에 독주암, 만물상, 만경대, 선녀탕, 용소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며 가을 단풍이 백미이다.

5경 하조대

양양군 명승 제68호로 지정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관인 하륜과 조준이 한 때 은거했던 곳이라 하여 두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암절벽위이 우뚝 솟아 있는 육각정자와 애국송은 동해 일출의 명소로, 조선 숙종 때 양양부사 이세근이 정자 앞 바위에 하조대 라고 쓴 암각문이 남아있다.

6경 죽도정

죽도정은「신증동국여지승람」양양도호부편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중근 돌이 그 속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며, 최근 해변에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마니아들로 북적인다.

7경 남애항

남애항은 양양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1종 국가어항이며, 강원도 3대 미항 중에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인근의 양야산陽也山에 봉수대가 있었으며, 어판장에는 마을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생선이 넘쳐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어촌 체험 항이다.

8경 의상대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이다. 매월당 김시습이 낙산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의 '해동명산도첩'을 미루어 볼 때 16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와 양양군 명승 제27호로 지정된 동해 일출의 명소이다.

襄陽文化

제32호

襄陽文化院

PHOTO CLUB

양양문화원 정기총회

제30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

제42회 양양문화제 고치물제

제42회 양양문화제 성황제

제25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The 실버스타 K with 강원

세대공감 2020 감자꽃하모니

가을밤의 문화공연

도자기체험

허억봉 대금강좌 종강식

문화학교수강생 작품전시회 테이프컷팅식

문화학교수료식

목차
Contents

발간사 |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 9

신년사 | 양양군수 김진하 ---------- 12

신년사 |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 ---------- 14

신년사 | 국회의원 이양수 ---------- 16

향토사료

- 조선시대의 역도에 관한 연구(상운도를 중심으로) ---------- 18
- 양강지풍과 양간지풍 어원의 출처를 살펴보다 ---------- 41

2020 문화학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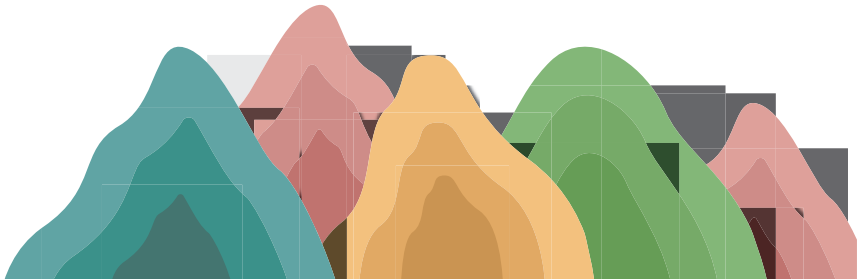
- 2020년도 문화학교 소개 및 학생 수상, 공연내역 | 편집실 --------- 46
- 2020 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반 | 편집실 ---------- 54

양양소식지 자료(숨어있는 향토사이야기)

- 새로 발견한 교표각자 외(1월~12월) | 편집실 ---------- 56

제5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 장원, 차상, 차하, 참방, 가작 | 편집실 ---------- 101



도자기체험 소감문

- 양양중학교 학생 ---------- 124

양양 구석구석

- 양양군 걷는 길 현황 ---------- 135

건강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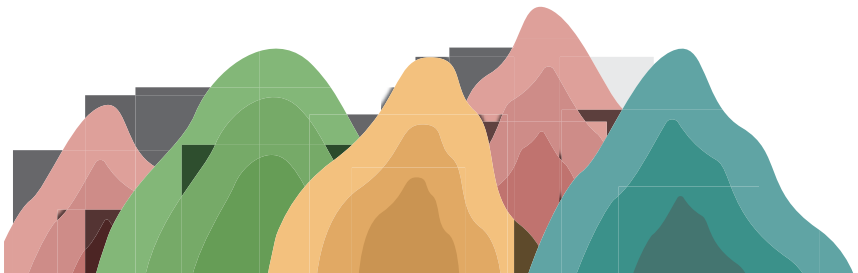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136
- 코로나-19 행동수칙 및 방역수칙 ---------- 150

문화원임직원 및 향토사연구원 소개

- 문화원임직원 ---------- 152
- 향토사연구원 ---------- 153
- 양양문화원 수상내역 ---------- 154

2020 양양문화원 언론홍보 현황

---------- 157



행복한 오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늘 함께하는 양양새마을금고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이웃처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금융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MG양양새마을금고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59
TEL : 033) 671-4413 . 4414
FAX : 033) 671-4415

양양양수발전소는 친환경 발전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홍보관(양양에너지팜) 개관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견학신청 및 문의전화 : 070-4034-2344~7(무료 관람)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

미래의 천년大界
성우건설이
책임지겠습니다.

회사소개

- 시설물 유지관리업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주요 공사업종

- 건물신축
- 리모델링공사
- 인테리어 공사

SUNGWOO Value Creation

㈜성우건설 SUNGWOO CONSTRUCT CO., LTD.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70
Tel.033-672-0401 Fax.033-672-0402
e-mail. yesgada007@naver.com

발 간 사

양양문화원장
윤 여 준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문화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하루하루를 보냈으며, 동해안을 강타한 연이은 태풍으로 도로유실을 비롯한 논과 밭에 수확을 앞둔 모든 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빠른 복구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풍피해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머리 숙여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하며, 1년 동안 문화원의 면모를 양양문화 제32호를 통하여 양양군민과 문화가족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수해복구에 바쁘신 군정과 의정활동에도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진하 양양군수님과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문화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제42회 양양문화제를 민속행사와 부대행사를 취소하고 제례행사만 진행하였으며, 제5회 전국한시현장백일장은 전국한시지상백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0회 전국동구리전통민요 경창대회 등 여러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문화학교 수강생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어 마음을 조이며 수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는 양양지역의 옛 철도의 역사성을 제조명하고 폭넓은 조사를 통하여 “동해북부선 종착지 양양역”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남북

으로 분단된 아픔을 되세기는 계기로 삼고 이제는 한민족이 하나로 뭉쳐 한반도가 통일로 가는 철도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성십경창화시"에 대한 고서를 번역하였고, 문화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고서와 문집을 "목록화사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차 잊혀지고 전통을 잃어가는 것을 콘텐츠를 통하여 후대에 전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양문화원이 "대한민국 문화원상"을 받는 영애를 얻었습니다. 이 모두가 문화가족의 참여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유공자에 걸 맞는 서훈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양지역은 만세운동 당시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유가족이나 정확한 자료와 기록을 찾지 못해 수훈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각종 자료들을 발굴 조사하여 꼭 독립유공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문화가족 여러분!

올해는 양양문화원의 역사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양양의 문화와 역사의 발자취를 만들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문화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소에 간직한 예술적 소질과 재능을 문화 활동을 통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문화를 통해 진정한 참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즐거움과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을 젊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들이 문화적 도량을 넓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배움과 문화예술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양문화원장 윤 여 준

신 년 사

양 양 군 수
김 진 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속에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뜨거운 관심과 힘찬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승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내외 여건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지역의 경제와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았고,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은 우리의 생활터전과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어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전례없는 위기를 겪었지만 우리 군민은 지난 여러 차례의 재난위기를 극복했듯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이번 위기 또한 극복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이 웃음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군은 지난 1년동안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도시 양양” 구현을 위해 그동안 심혈을 기울인 사업들을 성실히 진행해 왔고, 양양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속에서도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의 성과를 만들었고, 전선 지중화와 둔치 정비사업으로 도심과 주변을 새롭게 했습니다. 양양전통시장 공영주

차장도 완공되어 손님 맞을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어화원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공원과 휴식공간이 될 것이며 수상레포츠 체험장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는 철도 낙후지인 영동지역에 인적 · 물적 교류를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38선역이 신호장으로 반영되었지만 장기적으로 38선 역사로 변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우리군이 승소하며 미래성장의 동력이자 등산객들로부터 훼손되어가는 설악산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이 큰 성과일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민 모두가 '더 나은 양양'을 위해 열심히 뛴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는 누구보다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모쪼록, 새해에도 군정에 대한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땀 흘린 노력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가짐으로 다 같이 노력하여 우리 양양군을 동해안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한번 2021년 신축년(辛丑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모두가 소망을 이루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 년 사

양양군의회 의장
김 의 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지인「양양문화」제32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열성을 다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 가치를 전하시는 양양문화원 윤여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희망찬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군민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제8대 양양군의회가 구성되고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새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에도 양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새해에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지만, 신축년(辛丑年) 힘찬 소의 기상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뚝심있게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코로나를 완전히 물리치고 멈추었던 일상이 다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작년 연말,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전해진 기쁜 소식은 모두의 염원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행정심판 인용재결을 받아 다시 정상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위대한 우리 군민의 승리이며, 코로나로 인해 지친 심신에 활력을 주었고,

새해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같은 좋은 기운을 이어서, 새해에도 양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차게 뛰겠습니다.

새해 우리군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침체된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 양양경찰서 신설 추진, 종합여객터미널 이전을 통한 도시 확장, 육아통합지원센터 설치로 인한 저출산 해소 및 아동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서핑 산업화를 통한 앞서가는 관광휴양도시 구현, 그리고 다시 정상궤도에 오른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안 사업 추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군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으로 대변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사명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대와 설렘을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을 이루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 년 사

국 회 의 원
이 양 수

존경하는 양양문화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 인제 · 고성 · 양양 국회의원 이양수입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힘겨웠던 경자년이 저물고,
'하얀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에는 흰 소의 기운을 받아 양양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50년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우리 고장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지켜온 양양문화원을 위해 애써주신 윤여준 원장님과 관계자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양양문화원에서는 매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훌륭한 작품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작가님들께서 문화와 예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위로는
지쳐있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술을 즐기는 순간만큼은 힘겨운 상황을 잊을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황소의 걸음처럼 느리더라도 꾸준히 인내하며 노력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는 "천천히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양양의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군민분들의 꾸준한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행정심판청구 인용 결정을 통해 재추진되는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군민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빛을 낸 순간입니다.

아직은 사회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올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더 희망찬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저 역시도 지역을 위한 우직한 발걸음을 계속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꾸준한 걸음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朝鮮時代의 驛道에 關한 硏究
-祥雲道를 中心으로-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1 연구의 목적

농경에 기반했던 인류의 문명은 역용과 승용 둘 다 가능한 말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명암이 바뀌었다. 말은 고된 노동과 운송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 동시에 참혹한 전쟁에 이용하므로 인류문화를 파괴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제주도는 대량으로 말을 길러서 공급하였으며 1000년 동안 교통 통신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으나, 오늘날 말(馬)은 과학의 발달로 경마와 승마로만 이용되고 있다. 말을 육상교통 수단으로 이용한 역사는 사라져 가고 있다.

상운도는 양양에서 동해안을 따라 양양 간성 고성 통천 흡곡까지 16개 역참을 관할한 역로로 말이 달리기를 약 700년 동안 운영되었지만, 폐도 된지 120여년이 지나가고 있다.

양양군 관내 역도의 상운관아와 속역의 역참 및 역로는 기록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교통 · 통신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 문화유적지 임에도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 통신의 역도 속역 체계를 조선시대까지 소고하고, 양양군 관내의 상운도의 5속역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의 역도의 체계와 관할권

1) 조선시대 이전 역도-속역 체계

양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적 제394호 오산리선사유적지와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이 있는 유구한 역사가 있다.

선사시대 양양인은 생존하기 위한 채집, 수렵, 사냥을 할 때 야생동물이 이동하는 좁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교통로로 이용하고, 의사소통인 통신 수단도 걷거나 속보로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시대에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3 소지마립간 9년 3월 사방에 우역을 처음 설치하고 관도를 수리하였다[1]고 기록되어있다. [487년 3월(음)]걸어서 전달하는 것은 우(郵)이고, 말[馬]로써 전달하는 것은 역(驛)"이라고 한 데서 우역이 비롯되었다고 한다.[2] 남북국시대[3]의 통일신라 우역을 근간으로 고려시대 초기(919년)는 병부(兵部)의 주관하에 6과(六科) 147개 속역(屬驛) 체제에 의한 역로가 확립되었으며, 이것은 개경과 서경 및 의주를 중심으로 한 역도조직이었다. 그 뒤 1018년(현종 9)의 대폭적인 군현제 개편과 1067년(문종 21) 남경(南京)이 제도화된 때를 전후하여 역참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전국 22역도 525개 역중 개경중심(開京中心)으로 한 역이 147개 역이고, 서북, 동북, 강원도 연안에 분포되어 있었다.

중앙에 공역서(供驛署)와 지방에 관역사(館驛使) 또는 역승(驛丞)을 설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역참조직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역의 중요도에 따라 역정호(驛丁戶)를 배정하고 공문서 전달방식과 급마(給馬) 규정을 법제화하였다.

고려의 역승설치〔高麗置驛丞〕는 현종 때 처음 모든 길에 순관(巡官)을 배치하고 순우라 하였는데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하여 관역사라 고치고, 공양왕 때 이르러 역승을 배치한 것을 후에 역승을 파하고 나누어 별감이라 한 것을 다시 역승으로 되찾았다.[4]

---

1) 三國史記 〉 新羅本紀 第三 〉 炤知 麻立干 三月始置四方郵驛命所司修理官道.고 기록되어 있다. [487년 03월(음)]

2)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3) 한국의 역사를 시대 구분할 때 통일신라와 발해가 병존한 7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전반시대

4) 초치제도순관현종이순우범어혐명개위제도관역사공양왕시치역승후파역승분위별감심복치역승
初置諸道巡官顯宗以巡宇犯於嫌名改爲諸道館驛使恭讓王始置驛丞後罷驛丞分爲別監尋復置驛丞

2) 조선시대의 역도-속역 체계와 관할권의 변천

조선의 역도 속역체계는 고려의 역도체제를 근간으로 재편성하였다.

역은 한양으로부터 각 지방에 이르는 30리마다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로 대로변의 주현 각 읍에 설치되었다. 조선시대 역은 별칭으로 관(館) · 참(站) · 합배(合排) 등으로 문헌에 나타나 있으나, 전국 8도를 한양을 중심으로 역도(驛道)-속역체계(屬驛體系)로 조직하면서 병조에 승여사(乘輿司)를 설치하여 지방의 역승과 찰방을 지휘, 감독하였고 역승(驛丞) 및 찰방(察訪)이 속역을 관장하였다.

역도의 역승은 중종 30년(1535년)에 모두 찰방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 역도의 관할은 초기의 역승체계 → 역승 · 찰방 병존체계 → 찰방체계 → 겸찰방(兼察訪) 체계로 발전되었다

조선시대의 역참은 태조 1년(1392년) 7월, 태조의 즉위 교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명(傳命), 즉 왕명을 전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왕명 및 공문서의 전달은 중앙과 지방 사이에 정치 및 행정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그밖에도 역참은 진상품이나 공물의 운송, 봉명사신을 포함한 사객의 왕래에 따른 영송과 접대를 위한 역마 제공, 통행인의 규찰 및 국경을 지키는 관방(關防)의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역도(驛道)는 지금의 국도를 예상하면 된다. 역도는 도로의 상태와 중요도 및 산천의 거리에 따라 수개 내지 수십여 개의 역(驛)을 하나로 묶어 역승(驛丞) 또는 찰방(察訪)으로 하여금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世宗實錄地理志』에는 전국에 산재한 538개의 역이 44개의 역도로 편성되어 있었다.

세조대의 역도 개편은 세조 3년(1457년), 세조 6년(1460년), 세조 8년(1462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개편은 주로 기존의 역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는데, 『경국대전』(1485년)에 수록된 전국의 역참조직은 41역도 543속역으로 편성되었다. 조선 전기의 역참제도는 임진왜란(1592~1598)을 당하여 그 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조 30년(1597년) 기발(騎撥)은 매 20리마다 1참(站)을 두고, 보발(步撥)은 30리마다 1참을 두어서 서발(西撥) · 북발(北撥) · 남발(南撥)의 3대로를 근간으로 한 파발제도가 성립되었다. 모든 역도는 갑오개혁을 계기로 고종 32년(1896년)에 근대적인 교통 통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역참의 전통 아래 1896년 이후 현대적인 도로 · 교통 체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3 驛의 構成要素 및 機能

1) 驛의 構成要素

『증보문헌비고』에 전국 40개 역도 535개 역에 5,380필의 말이 있었다. 전국의 역은 9등급으로 나누어져 1등 로는 대마(大馬) 8필 · 중마(中馬) 13필 · 소마(小馬) 15필 등 도합 36필, 2등 로는 32필을, 3등 로는 28필을, 4등 로는 24필을, 5등 로는 20필을, 6등 로는 16필을 구비하여야 했다. 또한 7등 로는 대마 2필 · 중마 4필 · 소마 6필 등 도합 12필을, 8등 로는 대마 1필 · 중마 3필 · 소마 4필 등 도합 8필을, 9등 로는 대마 1필 · 중마 1필 · 소마 2필 등 도합 4필을 구비하였다. 역의 대부분은 7-9등 로에 속하였다.

도(道)에는 역승(驛丞)또는 찰방이 있고 각 역에는 역장(驛長)과 역리(驛吏) · 역졸(驛卒) · 역정(驛丁) 등이 배속되어 일을 맡아 하였다. 찰방과 함께 무록관(無祿官)이었다.

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경비가 필요로 하였다. 그리하여 각 역에는 토지가 지급되었으며, 각 역에는 역전(驛田)(公須田 · 紙田 · 長田 등)을 두어 그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였다. 리명 공수전리와 둔전리 양양군에 있다.

또 역마 충당을 위해 마전(馬田)이 지급되었다. 『경국대전』호전 제전조(諸田條)의 마전 지급내용을 보면, '대마(大馬)는 7결, 중마(中馬) 5결 50부, 소마(小馬)는 4결이었다. 긴로〔(緊路):교통량이 많은 역로〕이면 급주(急走)에게 50부를 더 주었고, 대마 1결을 더 주며, 중 · 소마는 각 50부를 더 준다.' 고 되어 있다.

역도(驛道)에는 관아가 있고, 속역 각각에는 역사 즉 역참이 있었다.

조선후기에 남아있는 역사(驛舍)는 여러 역지(驛誌)자료에 의하면 역도의 관아는 대체적으로 동헌, 내동헌, 작청, 사령청, 관노청, 통인청, 창고, 문루, 마당, 내삼문(內三門) 3칸, 외삼문, 연못 그리고 마구와 양마청, 마부청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기능을 맡았다. 이와 같은 역사의 건물구조상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말을 제사지내는 마당 또는 마단이 있는 점이고, 또 하나는 마구간이나 마방이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건물은 주로 역참을 이용하는 사신들의 숙박이나 역정(驛政) 업무를 보기 위하여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군현의 관아와는 기능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군현의 관아구조는 읍성(邑城)안에 공해(公廨) 또는 관해(官廨)로 동헌, 내동헌, 작청, 사령청, 형옥(刑獄), 군기고, 훈련청, 창고 등의 건물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었다. 특히 유교 문화적 전통에 따라 반드시 사직단과 향교 및 사우(祠宇)등이 배치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일반군현의 관아는 중앙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지방 말단의 행정을 본다는 점에서 육방(六房)체제에 의하여 지방 수령의 지휘아래 이방, 형방, 호방, 예방, 병방, 공방 등의 향리(鄕吏)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방행정을 맡은 곳이라는 점에서 역정(驛政)을 담당한 역의 관아와는 기능상, 구조상 차이가 있었다.

2) 驛의 機能

역마는 이용자의 지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급되었다.

대군(大君) · 의정(議政)에게는 상등마 1필, 하등마 3필, 태마(駄馬) 3필, 정2품 이상 관료에게는 상등마 1필, 하등마 3필, 태마 2필을, 3품 이상 당상관에게는 상등마 1필, 하등마 2필, 태마 1필을, 6품 이상 관료에게는 중등마 1필, 하등마 1필, 태마 1필을, 9품 이상의 관인에게는 중등마 1필, 태마 2필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부경사신(赴京使臣)과 부사(副使)에게는 상등마 1필, 태마 2필을 서장관(書狀官)[5]에게는 중등마 1필과 태마 1필을 종사관(從事官)에게는 중등마 1필과 2명당 태마 1필을 지급하였다. 이 밖에 어사에게는 상등마 1필 · 하등마 1필 · 태마 1필을 관찰사와 절도사의 명령으로 왕에게 보고하고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등마를 지급하였다.

공무로 출장 가는 관인이 역마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역에서 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증표인 마패(馬牌)를 제시하여야 하였다. 둥근 모양의 마패 한 면에는 사용자의 품계에 따라 이용 가능한 마필의 수만큼 말을 새겨 넣었고, 다른 한 면에는 자호(字號)와 주조된 연월(年月)과 '상서원인'(尙瑞院印)을 새겨 넣었다. 다만 왕족이 사용하는 마패는 산유자(山柚子)로 만든 둥근 패로서, 한쪽은 마필수를 새기고 다른 한쪽은 '마(馬)'만 새겨 넣었다.

마패는 상서원(尙瑞院)에서 발급하였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조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였다. 즉 중앙에서는 출장관원의 품계에 따라 병조가 문첩(文帖)을 발급하면 상서원이 마패를 내주었지만,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절도사가 마패를 항상 지니고 있다가 중앙에 보고할 일이 있거나 진상(進上)을 올려 보낼 때 수시로 발급하였다.

역마의 이용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일 3식(90리, 1식은 30리)을 여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만약 이를 어긴 자나 남승(濫乘) · 남급(濫給)한 자에게는 장 100 · 유 3천리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역마를 반환하지 않는 자는 장 300 · 도 3년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역을 통과하는 공용여행은 각 역관이 직명과 일시를 기록하였다가 매계절에 병조에 보고토록 하였다.

---

5) 조선시대, 중국에 보내는 사신을 수행하여 기록을 맡던 임시벼슬

4 상운도(祥雲道)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은 서울에서 원주-대관령-강릉-울진-평해까지 연결되는 관동로로 불리는 제3로를 중심으로 많은 지선(支線)들이 모여 하나의 역도체계를 형성하였다. 이 가운데 양양의 상운도 관할권역은 양양-간성-고성-통천-흡곡에 이어지는 역로였다.

세조 8년(1462년)에 강원도의 역도를 은계도(銀溪道) · 평릉도(平陵道 · 보안도(保安道) · 상운도로 재편하고 『세조실록』 8년 8월 5일]. 그 뒤 성종대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16개 속역으로 구성된 상운도가 확립되었다

1) 상운도의 변천

고려시대 22역도 중 강원도에 해당하는 역도는 5개로서 그것의 방향과 주요 통과역을 고려사 병지(兵志) 참역조(站驛條)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6)]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고려시대 강원도 역도체계

驛 道	屬 驛
桃源道 (21역)	용담(철원) 풍천(철원) 임단(평강) 송한(회양) 단림(회양) 은계(회양) 전원(동주) 도창(금화) 남역(금화) 단암(금화) 통언(회양) 이령(금성) 직목(금성) 웅양(금성) 기타 타도
春州道 (24역)	보안(춘주) 원양(춘주) 부창(춘주) 인람(춘주) 천원(화천) 산양(화천) 방춘(화천) 원정(화천) 수인(양구) 감천(홍천) 연봉(홍천) 횡천(횡계) 마유(인제) 남교(인제) 창봉(횡성) 함춘(횡성) 기타 타도
平丘道 (30역)	유원(원주) 단구(원주) 안양(원주) 신림(원주) 연평(영월) 온산(영월) 정양(영월) 약수(평창) 신흥(원주) 기타 타도
溟州道 (28역)	대창(강릉) 횡계(강릉) 진부(강릉) 대화(강릉) 방림(강릉) 운교(강릉) 안창(횡성) 조원(횡성) 목계(강릉) 안인(강릉) 구산(강릉) 고단(강릉) 낙풍(강릉) 동덕(강릉) 여랑(정선) 평릉(삼척) 사직(삼척) 교가(삼척) 용화(삼척) 옥원(삼척) 수산(울진) 덕신(울진) 흥부(울진) 조소(울진) 상운(양양) 익령(양양) 강선(양양) 인구(양양)
朔方道 (42역)	동덕(흡곡) 등로(통천) 초진(통천) 고잠(고성) 양인(고성) 태강(고성) 죽포(간성) 청간(간성) 관목(간성) 운근(간성) 기타 타도

6) 지리학연구, 제34권 2호, 2000 116P 김경추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강원도 역도체계는 보안도(保安道), 대창도(大昌道), 평릉도(平陵道)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속한 역은 모두 77개였다. 역도체계의 중심도시로는 춘천, 원주, 강릉, 회양, 삼척, 양양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군사적 거점이었을 뿐 아니라 도호부 이상의 군·현이었다. 그리고 역로의 입지는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한 하천계곡이나 하천 중상류의 침식분지에 자리 잡고 있다. 강원도 지방의 역도-속역 관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세종대의 강원도 역도-속역체계

驛 道	屬 驛
보안도 (21)	보안(춘천) 인남(춘천) 부창(춘천) 원창(춘천) 연봉(홍천) 천감(홍천) 연평(영월) 약수(평창) 평안(평창) 여량(정선) 참봉(횡성) 갈풍(횡성) 오원(횡성) 벽탄(정선)호선(정선) 안흥(횡성) 유원(원주) 신흥(원주) 양연(영월) 단구(원주) 신림(원주)
대창도 (28)	대창(강릉) 안인(강릉) 진부(강릉) 구산(강릉) 횡계(강릉) 대화(강릉) 방림(강릉) 운교(강릉) 목계(강릉) 고단(강릉) 대강(고성) 고잠(고성) 등로(통천) 낙풍(강릉) 임계(강릉) 동덕(강릉) 인구(양양) 상운(양양) 연창(양양) 강선(양양) 청간(간성) 죽포(간성) 운근(간성) 명파(간성) 양진(고성) 조진(통천) 거풍(통천) 진덕(흡곡)
평릉도 (9)	평릉(삼척) 사직(삼척) 교가(삼척) 용화(삼척) 옥원(삼척) 흥부(울진) 수산(울진) 덕신(울진) 달효(평해)
기타 (19)	은계(회양) 신안(회양) 화친(회양) 직목(금성) 서운(금성) 창도(금성) 신화(김화) 생창(평강) 임단(평강) 건천(이천) 방천(낭천) 원천(낭천) 산양(낭천) 수인(양수) 함춘(양구) 부림(인제) 마노(인제) 임천(인제) 남교(인제)

세조대의 역도 개편은 세조 3년(1457년), 세조 6년(1460년), 세조 8년(1462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개편은 주로 기존의 역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때는 강원도의 역로가 피폐하고 역승의 관품이 낮아 역무를 처리하는데 원활하지 못하다 하여 대창도와 보안도를 합하여 대창도라 칭하고 찰방을 파견하도록 하였다.

2·3차 개편은 역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재편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때는 은계도(찰방), 보안도(찰방), 평릉도(역승), 상운도(역승) 등 4개 역로로 개편되었고, 정비된 역로는 4역도 78역으로 확립되었다.[7]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7) 양양군지 상권 168, 170쪽

〈표 3〉『경국대전』 강원도 역도 · 속역체계 (1469년)

驛 道	屬 驛
은계도 (찰방19) 회양	풍전(철원) 생창(금화) 직목(금성) 창도(금성) 신안(회양) 용담(철원) 임단(평강) 옥동(평강) 건천(이천) 서운(금성) 산양(낭천) 원천(낭천) 방천(낭천) 함춘(양구) 수인(양구) 마노(인제) 부림(인제) 남교(인제) 임천(인제) (19)
보안도 (찰방29) 춘천	안보(춘천) 천감(홍천) 인람(춘천) 원창(춘천) 부창(춘천) 연봉(홍천) 창봉(횡성) 갈풍(횡성) 오원(횡성) 안흥(횡성) 단구(원주) 유원(원주) 안창(원주) 신림(원주) 신흥(원주) 양연(영월) 연평(영월) 약수(평창) 평안(평창) 벽탄(정선) 호선(정선) 여랑(정선) 임계(강릉) 고단(강릉) 횡계(강릉) 진부(강릉) 대화(강릉) 방림(강릉) 운교(강릉) (29)
평릉도 (역승15)삼척	동덕(강릉) 대창(강릉) 구산(강릉) 목계(강릉) 안인(강릉) 낙풍(강릉) 신흥(삼척) 사직(삼척) 교가(삼척) 용화(삼척) 옥원(삼척) 흥부(울진) 수산(울진) 덕신(울진) 달효(평해)(15)
상운도 (역승15)양양	연창(양양) 오색(양양) 강선(양양) 인구(양양) 죽포(간성) 청간(간성) 운근(간성) 명파(간성) 대강(고성) 고잠(고성) 양진(고성) 조진(통천) 등로(통천) 거풍(통천) 정덕(흡곡) (15)

『속대전』에는 강원도 모든 역도에 종 6품 찰방을 파견했다. 은계도는 임단, 부림, 임천을 폐하고 문산, 원통을 개설하였다. 또 평능도는 달효를 폐하고 신립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상운도는 오색을 폐하고 원암을 개설하였다. 그 내용은 〈표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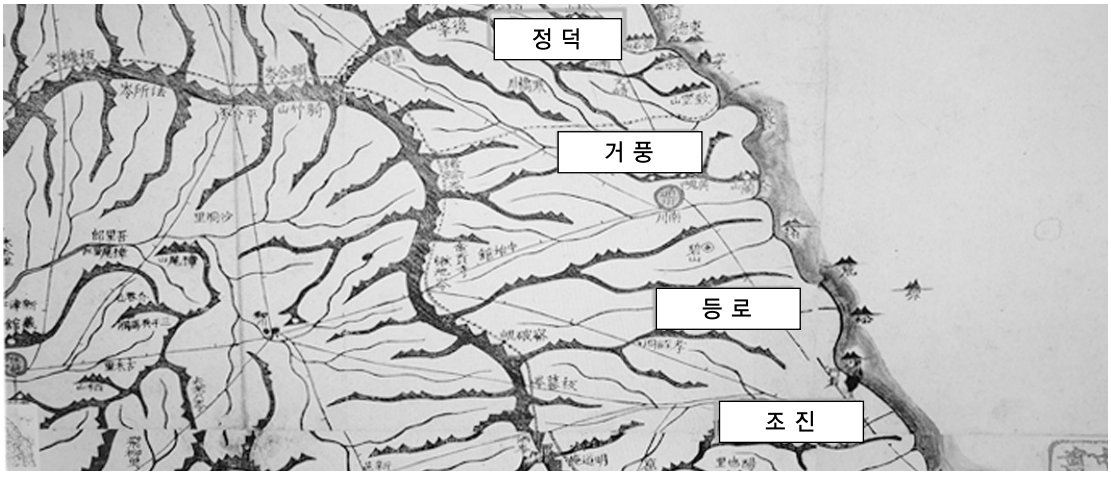
〈표 4〉『속대전』 강원도 역도 · 속역체계 (1744년)

驛 道	屬 驛
銀溪道(察訪) (18) 회양	豊田(철원) 生昌(금화) 直木(금성) 昌道(금성) 新安(회양) 龍潭(철원) 林丹(평강) 玉洞(평강) 乾川(이천) 瑞雲(금성) 山陽(낭천) 原川(낭천) 方川(낭천) 含春(양구) 水仁(양구) 馬奴(인제) 富林(인제) 嵐校(인제) 林川(인제). 補 林丹 富林 林川減 文山 圓通加.
保安道(察訪) (29) 춘천	安保(춘천) 泉甘(홍천) 仁嵐(춘천) 原昌(춘천) 富昌(춘천) 連峯(홍천) 蒼峯(횡성) 葛豊(횡성) 烏原(횡성) 安興(횡성) 丹丘(원주) 由原(원주) 安昌(원주) 神林(원주) 新興(원주) 楊淵(영월) 延平(영월) 藥水(평창) 平安(평창) 碧呑(정선) 好善(정선) 餘糧(정선) 臨溪(강릉) 高丹(강릉) 橫溪(강릉) 珍富(강릉) 大和(강릉) 方林(강릉) 云交(강릉).
平陵道(察訪) (15) 삼척	冬德(강릉) 大昌(강릉) 丘山(강릉) 木界(강릉) 安仁(강릉) 樂豊(강릉) 新興(삼척) 史直(삼척) 交柯(삼척) 龍化(삼퍽) 沃原(삼척) 興富(울진) 守山(울진) 德神(울진) 達孝(평해). 補 達孝減 新立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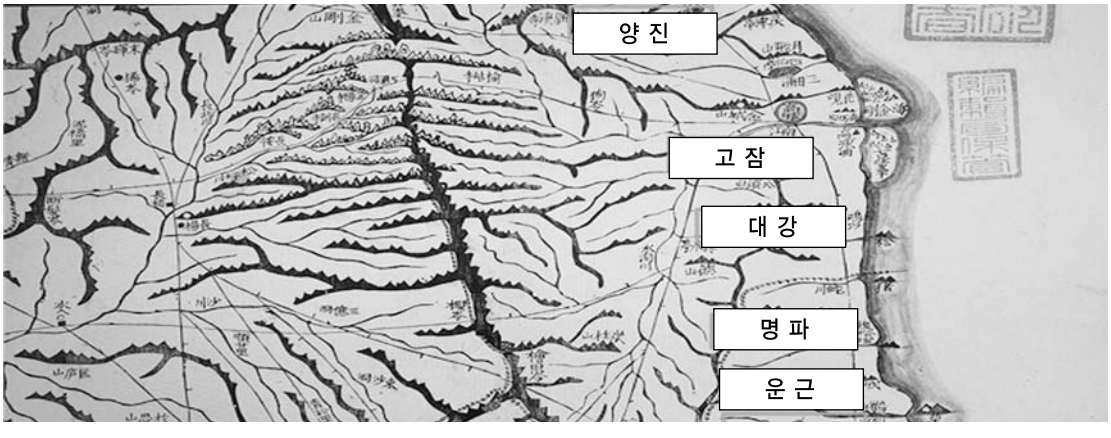
驛 道	屬 驛
祥雲道(察訪) (15) 양양	連倉(양양) 五色(양양) 降仙(양양) 麟丘(양양) 竹泡(간성) 淸澗(간성) 雲根(간성) 明破(간성) 大康(고성) 高岑(고성) 養珍(고성) 朝珍(통천) 登路(통천) 巨珍(통천) 貞德(흡곡). 囲 五色減 元巖加.
	從六品 察訪 4員.

2) 『경국대전』의 상운도 관할의 속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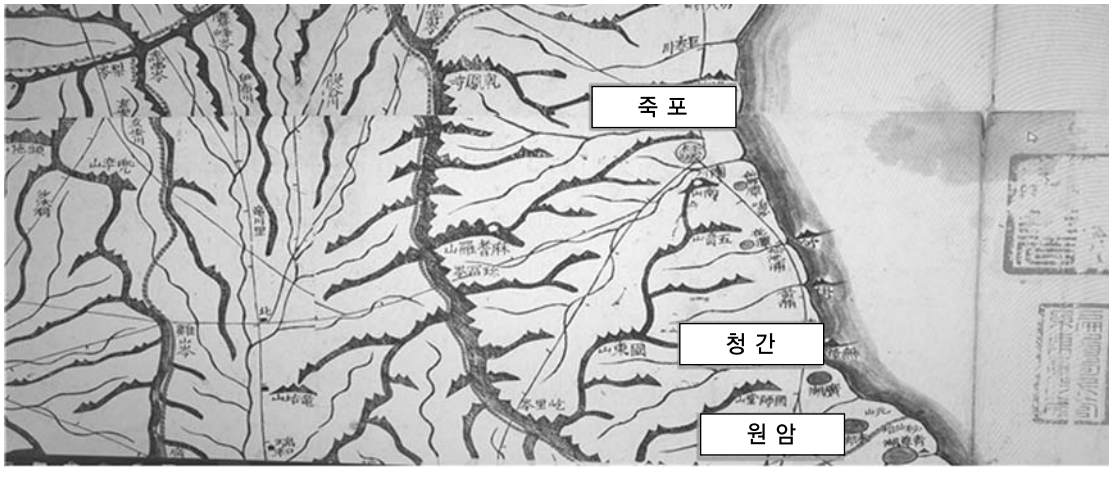
〈그림 1〉 祥雲道/歙谷, 通川 → 貞德, 巨豊, 藤(登)路, 朝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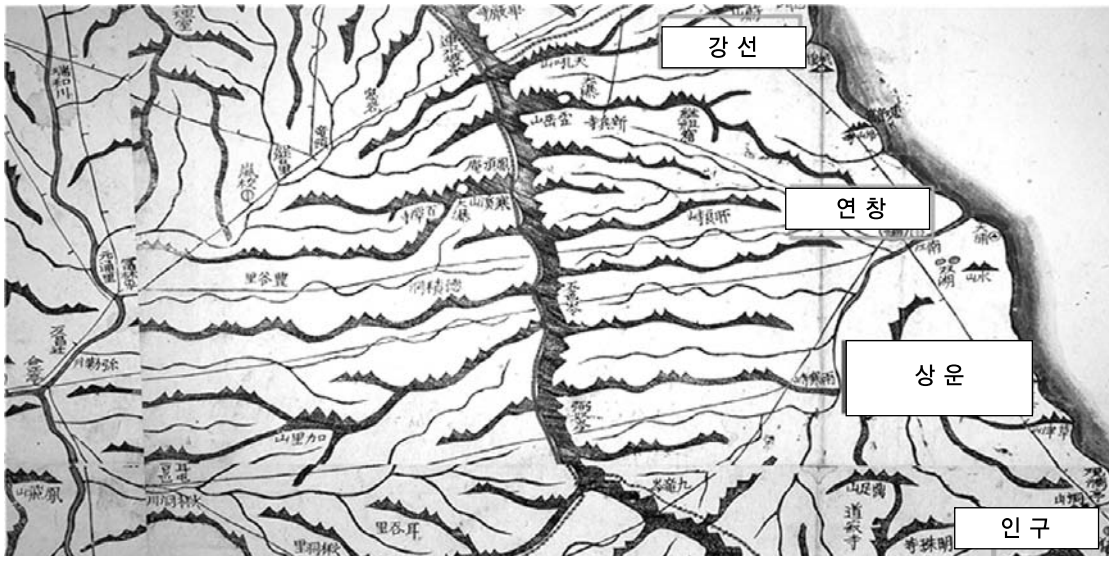
〈그림 2〉 祥雲道/高城 → 養珍, 高岑, 大康(江), 明波, 雲根



〈그림 3〉 祥雲道/杆城 → 竹泡, 淸澗, 元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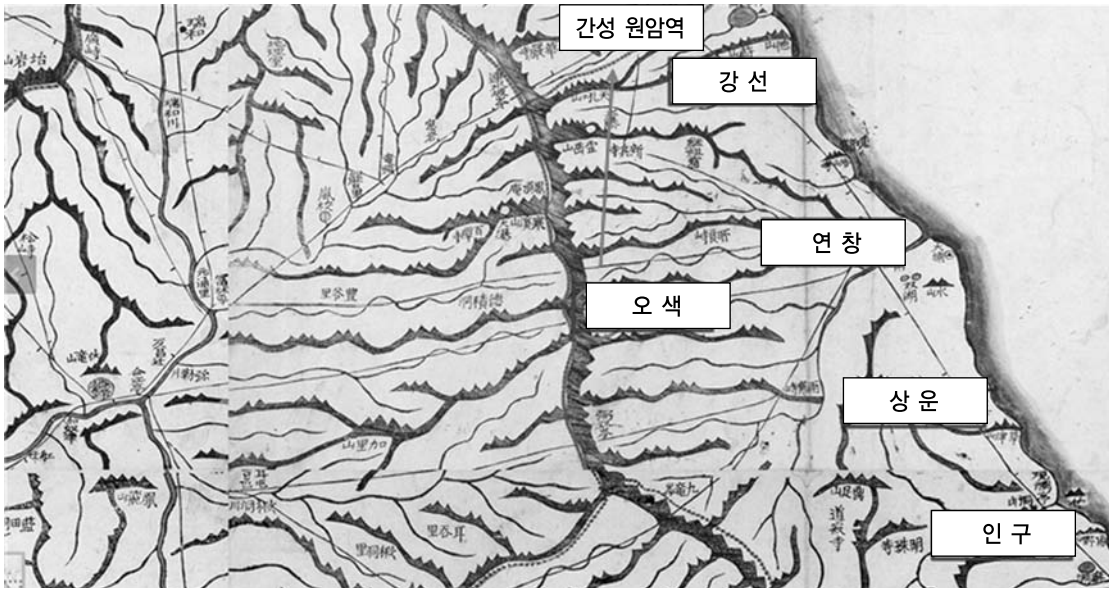
〈그림 4〉 祥雲道/襄陽 → 降仙, 連倉, 祥雲, 麟丘



5 襄陽府 管內의 驛

상운도가 관할하던 양양도호부 관내의 역은 상운역, 연창역, 오색역, 강선역, 인구역 이었다. 뒤에 미시파령(彌時波嶺) 길을 개착(開鑿)[8]함으로써 오색역은 간성현 원암역으로 이전하였다. 상운도 소관 역들은 모두 소로(小路)에 속해 있었는데, 이 역도는 1896년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하였고, 양양도호부 관내 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朝鮮時代 襄陽都護府 官內 驛(降仙驛, 連倉驛, 祥雲驛, 麟丘驛, 五色驛)



1) 상운역(祥雲驛)

■ 소재지 : 손양면 상운리

■ 연 혁 : 『신증동국여지승람』권44에 부 남쪽 25리에 있다. 역승이 주재하는 본 상운도에는 속역이 15곳인데, 연창 · 오색 · 강선 · 인구 · 죽포 · 청간 · 운근 · 명파 · 대강 · 고잠 · 양진 · 조진 · 등로 · 거풍 · 정덕(連倉 · 五色 · 降仙 · 麟丘 · 竹苞 · 淸澗 · 雲根 · 明波 · 大康 · 高岑 · 養珍 · 朝珍 · 登

8) 산을 뚫거나 땅을 파서 길을 냄

路 · 巨豊 · 貞德) 이다. 역승(驛丞) 1명이다. 『여지도서』에 관문에서 남쪽 20리 거리에 있다. 대마(大馬) 3필(匹), 복마(卜馬) 8필(匹) 역리(驛吏) 154명, 역노(驛奴) 30명, 역비(驛婢) 29명이다. 『관동지』에 역리 163명, 역노 69명, 역비 12명이다. 『양양읍지』에는 역리와 역노 214명, 역비 10명이다. 『대동지지』에 찰방은 연창역으로 옮겨가 있다. 『여재촬요』에 찰방이 있다. 『양주읍지』에 부 남쪽 20리에 있다. 찰방의 관우(館宇)가 있었던 곳이다. 당명(堂名)은 봉일(捧日)이다.

○ 孟思誠의 祥雲道察訪 逸話

조선 태종 8년(1408년) 대사성(大司成) 맹사성이 태종이 총애하던 駙馬 趙大臨을 국문한 일을 기화로 극형에 처하게 된 것을 河崙 등의 諫奏(간주)로 모면하여 外方從便 조치되었을 때 태종 9년(1409년) 윤4월 상운역 찰방으로 와 있다가 이듬해인 1410년 8월 京外從便 조치되어 전직하였다. 잠시 상운역 찰방 때의 일화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강원감사가 관동을 순시할 때 상운역에 들르니 孟公은 吏奴에 명하여 오찬을 준비하는데 山海珍味(산해진미)로 감사를 대접케 하고 맹공은 麥飯[보리밥]을 먹었었다. 출영할 때에도 역마를 타지 않고 黑犢[흑독:검은 송아지]을 타고 나갔다. 감사가 맹공의 특수한 것을 보고 물으니 맹공이 답하기를 "나는 죄인이라 감히 國馬를 탈 수 없고 또 맥반은 慣食(관식)이라" 하니 감사가 그 뜻을 알고 監營에 돌아가 上訴하여 赦를 얻어 맹공을 內職으로 召上하였는데 世宗朝에 左議政까지 역임하였다.」

〈그림 6〉 祥雲館과 祥雲驛이 표기된 양양읍지도(1872년 지방지도)

【주】: 상운관은 선조23년(1590) 상운역에서 襄陽府官衙와 연창역 인근지역으로 옮겨 설치하였는데 官의 규모는 衙舍 8間, 作廳 6間, 官廳 4간, 馬房 3間으로 구성되어 있다. 『關東邑誌』工庫條

2) 연창역(連倉驛)

■ **소재지** : 양양읍 연창리

■ **연　혁** : 지금의 連昌里는 조선시대 까지는 連倉里였으나, 일제 강점기에 倉이 昌으로 바뀌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連倉驛으로 부내 5리에 있다. 『여지도서』에 찰방의 우관(郵官)이 여기에 있다. 대마(大馬) 3필, 복마(卜馬) 8필, 역리(驛吏) 270명, 역노(驛奴) 130명, 역비(驛婢) 70명이다.

『관동지』에 찰방의 우관(郵官)이 여기에 있다. 대마와 복마 수는 같으며, 역리 321명, 역노 23명, 역비 10명이다.『대동지지』에 옛 이름은 익령(翼嶺)이다. 동쪽 3리에 있다.

『양주읍지』에 경종 3년(1723년) 계묘에 찰방 엄한중(嚴漢重)이 관우(館宇)를 중수하였는데, 당명(堂名)은 휼운(鷸雲)인데 채팽윤의 글씨이다. 지금의 임금[영조 40년(1764년)] 갑신년에 찰방 박종언(朴宗彦)이 다시 짓고 당명(堂名)을 와선당(臥仙堂) 이라 하고 외청사(外廳事)로 하였다. 대마 복마 수는 위와 같고 역리와 역노는 190명, 역비 17명이다.

○ 송자 송시열(宋子 宋時烈)의 宋子大全 卷142의『祥雲驛和風館記』에 의하면 송시열의 아들 기태(基泰)가 현종 12년(1671년)에 상운역도 찰방이 되어 재임 시 상운역은 풍기가 악하고 사람에 병이 심하여 부내에 좋은 곳 즉 연창역 인근에 옮겨졌던 상운 관우에 상운역화풍관(祥雲驛和風館)이라 현판을 게시했다.

3) 인구역(麟丘驛)

■ **소재지** : 현남면 인구리

■ **연　혁** :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洞山縣 남쪽 2리에 있다. 『여지도서』에 관문에서 남쪽 50리 거리에 있다. 대마(大馬) 2필, 복마(卜馬) 3필, 역리(驛吏) 70명, 역노(驛奴) 81명, 역비(驛婢) 61명이다. 『관동지』에 역리 79명, 역조 99구, 역비 30구이다. 『대동지지』에 옛날에는 인구(麟駒)라고 불렸다. 『양주읍지』부 남쪽 40리에 있다. 역리와 역조 151명, 역비 61명이다.

4) 강선역(降仙驛)

■ **소재지** : 강현면 강선리

■ **연　혁** :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부 북쪽 30리에 있다. 『여지도서』는 관문에서 북쪽 20리 거리에 있다. 대마(大馬) 2필, 복마(卜馬) 4필, 역리(驛吏) 192명, 역노(驛奴) 7명, 역비(驛婢) 8명이다. 『관동지』에 관문 북쪽 20리 거리에 있다. 역리 192명, 역노 18구, 역비 3구이다. 『대동지지』에 북쪽 30리에 있다. 위의 세 역(연창 · 인구 · 강선역)은 상운도(祥雲道)에 속해있다.

『양주읍지』에 역리와 역노 209명, 역비 8명이다.

5) 오색역(五色驛) 혁폐(革廢)

■ **소재지** : 서면 오색리

■ **연　혁** : 『대동지지』에 부 서쪽 45리에 있다. 오색로가 폐쇄되면서 간성으로 옮겨 원암역이 되었다. 세종대의 강원도 역도 속역체계에는 양양도호부에 인구 · 상운 · 연창 · 강선역만 기록 되었다. 세조 8년(1462년) 8월 5일(정묘) 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역 · 참을 파하고 역로를 정비하여 찰방과 역승을 두다. 기록에 상운역 · 연창역 · 오색역 · 강선역이상 16개역은 상운도 역승로 일컬을 것.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 “조선 성종 16년(1485년) 윤 4월 15일(을미) 오색역을 출발 하였다는 기록과, 조선 성종 24년 궁벽하고 험하다하여 소동라령(所冬羅嶺)을 폐쇄하면서 간성현의 미시파령(彌矢坡嶺)을 다시 열었다. 따라서 위의 기록으로 보아 오색역은 조선 성종 24년(1493년)까지 존치하였다.

양양도호부 관내의 역마수는 『여지도서』역원조(驛院條)에 의하면, 상운역에 대마 3필 · 복마 8필, 연창역에 대마 3필 · 복마 8필, 강선역에 대마 2필 · 복마 4필, 인구역에 대마 2필 · 복마 3필이었다.

상운도가 관할하던 양양도호부 관내의 역은 상운역, 연창역, 오색역, 강선역, 인구역 이었다. 상운도 소관 역들은 모두 소로(小路)에 속해 있었는데, 이 역도는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하였고, 양양도호부 관할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5〉 문헌상 양양도호부 관내 역 자료 총괄표

文　獻	內　　容
『世宗實錄地理志』 (1454년)	역(驛)이 넷이니, 연창(連倉) · 상운(祥雲) · 강선(降仙) · 인구(麟丘)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	祥雲驛 : 부남쪽25리에 있다. 本道를 잇는 屬驛이 15곳인데, 연창(連倉) · 오색(五色) · 강선(降仙) · 인구(麟丘) · 죽포(竹苞) · 청간(淸澗) · 운근(雲根) · 명파(明波) · 대강(大康) · 고잠(高岑) · 양진(養珍) · 조진(朝珍) · 등로(登路) · 거풍(巨豊) · 정덕(貞德) 이다. 역승(驛丞)이 1名이다. 麟丘驛 : 洞山縣 남쪽 2리에 있다. 連倉驛 : 府內 5리에 있다. 降仙驛 : 부 북쪽 30리에 있다.
『輿地圖書』 (1757~1765년)	祥雲驛 : 관문에서 남쪽 20리 거리에 있다. 대마(大馬) 3필(匹), 복마(卜馬) 8필(匹) 역리(驛吏) 154명, 역노(驛奴) 30명, 역비(驛婢) 29명 連倉驛 : 관문에서 동쪽 5리 거리에 있으며, 찰방(察訪)의 郵館이 여기에 있다. 대마(大馬) 3匹, 복마(卜馬) 8匹, 역리(驛吏) 270名, 역노(驛奴) 130名, 역비(驛婢) 70名이다. 降仙驛 : 관문에서 북쪽 20리 거리에 있다. 대마(大馬) 2필, 복마(卜馬) 4필, 역리(驛吏) 192 명, 역노(驛奴) 7명, 역비(驛婢) 8명이다. 麟丘驛 : 관문에서 남쪽 50리 거리에 있다. 대마(大馬) 2匹, 복마(卜馬) 3匹, 역리(驛吏) 70名, 역노(驛奴) 81名, 역비(驛婢) 61名이다.
『關東誌』 (1822~1826년) 『關東邑誌』 同一 (1871년)	祥雲驛 : 관문 남쪽 20리 거리에 있다. 大馬 3필, 卜馬 8匹, 역리(驛吏) 163名, 역노(驛奴) 69구, 역비(驛婢) 12구이다. 連倉驛 : 관문 동쪽 5리 거리에 있으며, 찰방(察訪)의 우관(郵館) 이 여기에 있다. 대마(大馬) 3匹, 복마(卜馬) 8匹, 역리(驛吏) 321名, 역노(驛奴) 23구, 역비(驛婢) 10구이다. 猼邱驛 : 관문 남쪽 50리 거리에 있다. 대마(大馬) 2필(必), 복마(卜馬) 3匹, 역리(驛吏) 79名, 역노(驛奴) 99구, 역비(驛婢) 30구이다 降仙驛 : 관문 북쪽 20리 거리에 있다. 대마(大馬) 2필(匹), 복마(卜馬) 4匹,역리(驛吏) 192名, 역노(驛奴) 18구, 역비(驛婢) 3구이다.
『大東地志』 (1862~1866년)	祥雲道 : 남쪽 25리에 있다. 찰방(察訪)은 연창역으로 옮겨가 있다. 連倉驛 : 옛 이름은 익령(翼嶺)이다. 동쪽 3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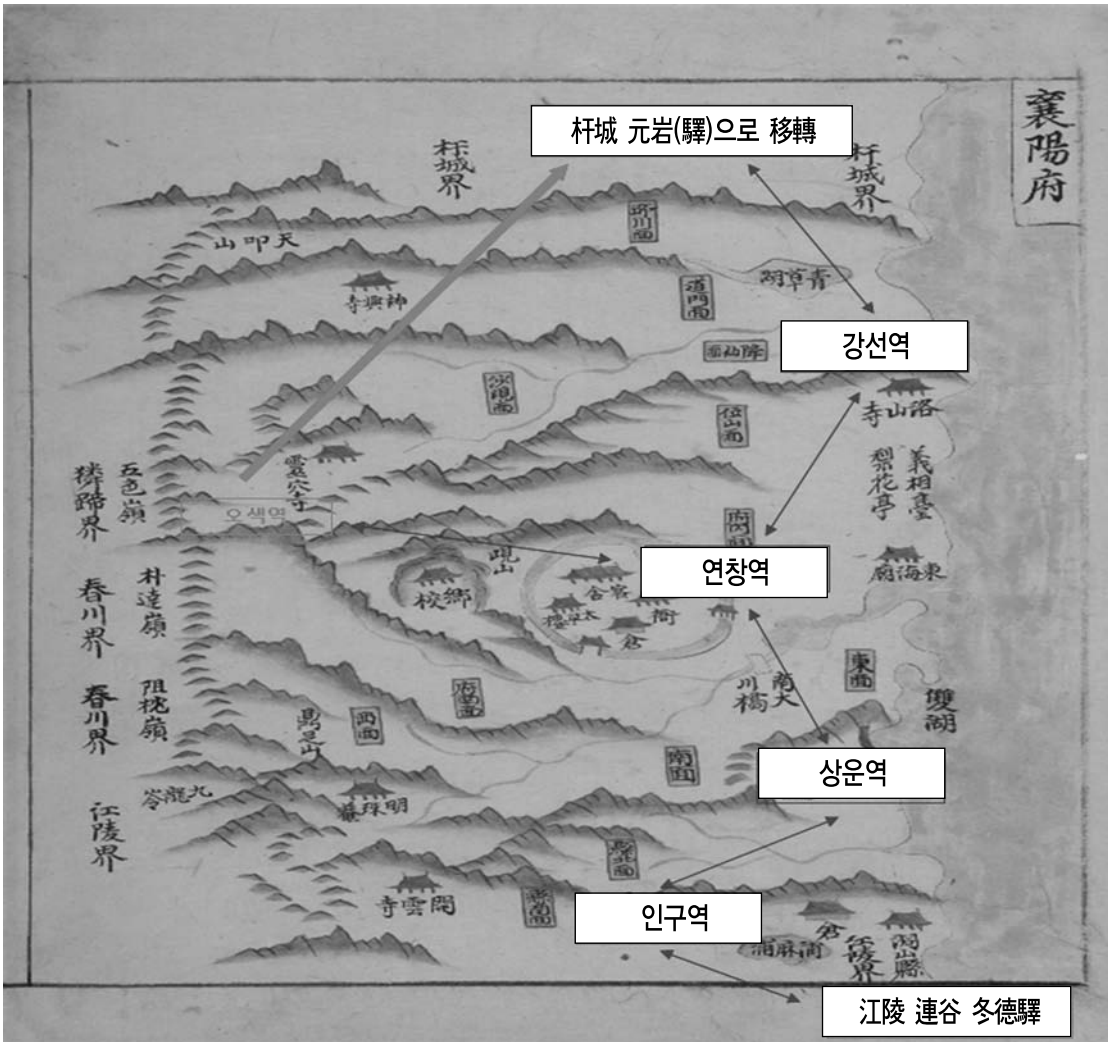
文　獻	內　　容
『大東地志』 (1862~1866년)	獜邱驛 : 옛날에는 인구(驎駒)라고 불렸다. 남쪽 50리에 있다. 降仙驛 : 북쪽 30리에 있다. 위의 3역(연창 · 인구 · 강선역)은 상운도(祥雲道)에 속해있다. 혁폐(革廢) 오색역(五色驛) : 서쪽 45 리에 있다. 오색로(五色路)가 폐쇄되면서 간성(杆城)으로 옮겨 원암역(元岩驛)이 되었다.
『輿載撮要』 (1893년)	祥雲驛 : 남쪽 20리에 있다. 察訪이 있다. 麟丘驛 : 남쪽 2리에 있다. 連倉驛 : 5리에 있다. 降仙驛 : 북쪽 30리에 있다.
『襄州邑誌』 (1899년) 『峴山誌』同一 (1910년대 초반)	祥雲驛 : 부 남쪽 20리에 있다. 察訪의 館宇가 있었던 곳이다. 堂名은 봉일(捧日)이다. 大馬 3필, 小馬 8匹, 驛吏와 驛奴 214名, 驛婢 10名 이다. 仁邱驛 : 부 남쪽 40리에 있다. 大馬 2匹, 小馬 3匹, 驛吏와 驛奴 151名, 驛婢 61名이다. 連倉驛 : 부 동쪽 5리에 있다. 경종 3년(1723년) 계묘에 察訪 엄한중(嚴漢重)이 관우(館宇)를 중수하였는데, 당명(堂名)은 휼운(鷸雲)인데 채팽윤의 글씨이다. 지금의 임금 갑신년에 察訪 박종언(朴宗彦)이다시 짓고는 堂名을 와선당(臥仙堂) 이라 하고 외청사(外廳事)로 하였다. 大馬 3匹, 小馬 8匹, 驛吏와 驛奴 190名, 驛婢 17名이다. 降仙驛 : 부 북쪽 20리에 있다. 大馬 2匹, 小馬 4匹, 驛吏와 驛奴 209名, 驛婢 8名이다.
『江原道誌』 (1940년)	祥雲驛 : 군 남쪽 3리 에 있다. 本道를 잇는 屬驛이 15개 역으로, 連倉 · 五色 · 降仙 · 麟丘 · 竹苞 · 淸澗 · 雲根 · 明波 · 大康 · 高岑 · 養珍 · 朝珍 · 登路 · 巨豊 · 貞德이다. 驛丞이 1인이다. 麟丘驛 : 洞山縣 남쪽에 있다. 連倉驛 : 郡內에 있다. 降仙驛 : 부 북쪽 2리에 있다.

〈표 6〉 양양도호부 관내 역 통계표

區 分		距離(里)	大馬(匹)	卜馬(匹)	驛吏(名)	驛奴(名)	驛婢(名)
祥雲驛	新增東國輿地勝覽	25	–	–	–	–	–
	輿地圖書	20	3	8	154	30	29
	關東誌	20	3	8	163	69	12
	大東地志	25	–	–	–	–	–
	輿載撮要	20	–	–	–	–	–
	襄州邑誌	20	3	8	214		10
麟丘驛	新增東國輿地勝覽	2	–	–	–	–	–
	輿地圖書	50	2	3	70	81	61
	關東誌	50	2	3	79	99	30
	大東地志	50	–	–	–	–	–
	輿載撮要	2	–	–	–	–	–
	襄州邑誌	40	2	3	151		61
連倉驛	新增東國輿地勝覽	5	–	–	–	–	–
	輿地圖書	5	3	8	270	130	70
	關東誌	5	3	8	321	23	10
	大東地志	3	–	–	–	–	–
	輿載撮要	5	–	–	–	–	–
	襄州邑誌	5	3	8	190		17
降仙驛	新增東國輿地勝覽	30	–	–	–	–	–
	輿地圖書	20	2	4	192	7	8
	關東誌	20	2	4	192	18	3
	大東地志	30	–	–	–	–	–
	輿載撮要	30	–	–	–	–	–
	襄州邑誌	20	2	4	209		8

6 古地圖 및 驛 址

1) 古地圖



廣輿圖 : 서울大 奎章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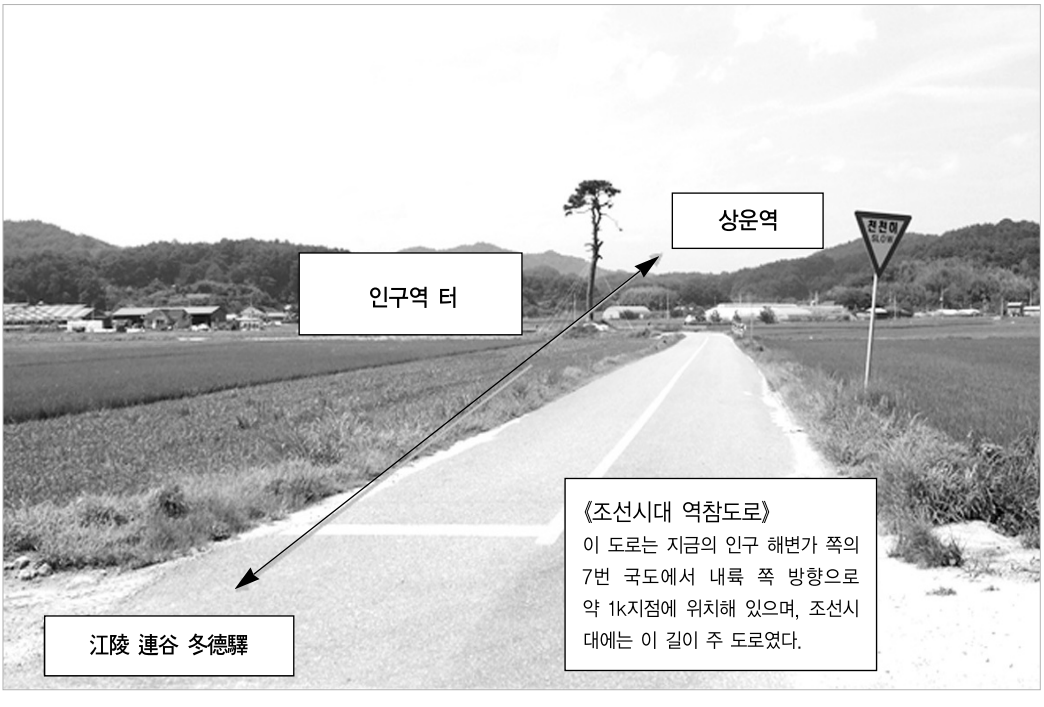
2) 驛 址

(1) 강선역 (降仙驛)

(2) 연창역 (連倉驛)

(3) 상운역 (祥雲驛)

(4) 인구역 (麟丘驛)



(5) 오색역 (五色驛)

(6) 상운관 (祥雲館) 터

선조 23년(1590년) 상운역에 있던 상운관을 양양도호부 관아와 인접해 있는 연창역 주변에 건립하여 祥雲道 15屬驛을 관할하였다.

7 맺는말

우리나라는 문헌기록에 신라시대 우역이 처음 설치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신라의 우역을 근간으로 개성을 중심으로 22역도 525속역 체계로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역도체제를 한양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개편하면서 정비하여 41역도 543속역 체계를 유지하였으나 임진왜란에 피폐되었고, 그 후 파발제로 운영되다가 1896년 역도-속역 체제는 폐지되었다.

본 연구자료의 중요부분인 상운역에서부터 연창역 사이의 남북 7km와 서쪽으로 4km 범위 내에는 양양국제공항, 수산항 요트마리나, 동해고속도로 하조대나들목, 7번국도, 옛 동해북부선 철로길, 해파랑길 44코스, 동해안 자전거길, 38선을 넘나들던 디모테오순례길 등의 육상 · 항공 · 해상의 교통로가 있고, 또한 인근주변에는 사이클벨로드롬 경기장, 골든비치골프리조트, 선사문화유적지와 박물관, 대명리조트 솔비치 등의 문화체육관광을 아우르는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상운역에서부터 연창역 까지의 역로의 잔도를 복원하여 시대별 교통의 발달을 체험할 수 있고, 조선시대 공무수행을 위하여 파발 마가 달리듯이 승마로 힐링 할 수 있는 최적지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 최근 남북이 동해북부선 철도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기차가 남북을 왕래하는 통일의 꿈을 가져본다.

【參考文獻】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地理志

承政院日記

日省錄
輿載撮要
輿地圖書
大東地志
經國大典
增補文獻備考
江原道誌
關東邑誌
關東誌
襄州邑誌
襄陽郡誌
襄陽歷史資料集
襄陽의 땅 이름
김경추 지리학연구 제34권 2호, 2000
嘉梧藁略册三
稼亭先生文集卷之十九
葵亭集卷之二
葵窓遺稿卷之二
金克己의 詩
白軒先生集卷之十
白軒先生集卷之十一
三淵集卷之九
雪峯遺稿卷之十三
十淸先生集卷之二
樂全堂集卷之三
樂全堂集卷之四
樂全堂集卷之七
樂靜先生文集卷之一
鄭樞의 詩
松齋集卷之一
市南先生文集卷之二
秋江先生文集卷之二
虛白堂詩集卷之七
虛白堂詩集卷之十
鶴洲先生全集卷之一
寒洲先生文集卷之二
海月先生文集卷之一
海左先生文集卷之六
海左先生文集卷之七
海左先生文集卷之八

《 附錄 》(詩 · 文集 및 古文獻 資料) → 별첨

“襄江之風”과 “襄杆之風” 語源의 出處를 살펴보다.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 辭典的 意味

양양을 중심으로 양양군과 강릉시 사이의 바람이라는 뜻으로 양강지풍(襄江之風), 양양군과 고성군(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양간지풍(襄杆之風)이라고 하는데, 영동지방에서는 봄철에 태백산맥을 넘어 강하게 불어오는 서풍을 통속적으로 양강지풍(襄江之風)이라고 불러왔다. 봄철로의 계절이 바뀌면서 한반도 상공의 남쪽에 따듯한 저기압이 형성되고 북쪽에 차가운 고기압이 형성되면 서풍이 동쪽으로 분다.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푄 현상을 일으키는 영동지방의 지형적 영향으로 매우 바른 속도의 서풍이 일어나 자고로 영동지방에 때로는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의미이다.

■ 語源과 歷史

〈襄杆之風의 기록〉

▶ 수성지(水城志)

이식(李植, 1584~1647)은 1631년 10월 간성현감으로 제수(除授)된 후인 1633년에 『수성지(水

城志-지금의 강원도 고성군지)』를 집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성고을 수령으로서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지역의 바람에 대한 기록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天吼山在郡南七十里山多石穴風自中出謂之天吼世傳襄杆之間多大風以此云

천후산(天吼山)은 고을 남쪽 70리에 있다. 산에는 석굴에서 부는 바람이 많으며 산 중틱에서 나온다. 이를 두고 하늘이 운다고 하며, 세간에 전하기를 양양과 간성 사이에는 큰 바람이 많은데 이 때문이라고 하였다.

▶ 개벽 제42호(1923. 12. 01)→朝鮮의 處女地인 關東地域

기후도 지세를 隨하야 嶺東, 嶺西가 各異하니 嶺東은 해양의 조절에 의하야 寒暑가 共히 심치 안이하고 대개 온화하나 嶺西는 不然하다. 토지가 대개 高함으로 署氣는 심치 안이하나 寒氣가 稍强하야 북부지방에는 秋霜이 早降함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또한 不少하다. 그러나 嶺東 嶺西를 물론하고 冬季의 풍설은 朝鮮의 명물이다. 특히 襄杆之風과 通高之雪이라하면 學語小兒라도 다 혀를 설설 내두른다, 大關嶺의 눈도 또한 다른 곳에 讓頭치 안이한다. 썩 잘 올 때에는 수십 길 식 되야 교통이 전연 두절된다.

〈襄江之風의 기록〉

▶ 개벽 제42호(1923. 12. 01)→四郡 名物 = 風, 雪, 水, 泥

通高之雪이오 襄江之風이란 문자는 嶺東 사람치고는 젓 먹은 아해도 다 안다. 참 通川高城의 눈은 말만 들어도 엄창난다. 증잘올 때에는 집이 다 뭇체서 이웃간에도 몃칠식 몬본다 한다. 襄陽 江陵의 바람도 어지간하다. 晩秋로 早春까지는 집웅이 한아 셩처 못하고 거리에는 먼지로 해서 잘 단일 수가 업단다. 〈이하생략〉

▶ 개벽 제42호(1923. 12. 01)→藥國의 舊都 江陵郡

名勝과 古蹟은 亦 각지에 散在하얏스나 他記事에 槩하얏기 玆에 略하고 最終에 氣候를 論하면 大槩溫和하야 夏季 最高度는 攝氏 34도 冬季 最低度는 영하 10도오 天氣는 亦 사시가 양호하나 晩秋

로부터 初春까지 風이 强烈하니 嶺東俗言에 소위 襄江之風이 이것이다.

▶ 디지털강릉문화대전→바람

강릉 지방의 지방풍으로 봄철과 겨울철에 주로 나타나는 서풍계의 바람인 襄江之風이 있다. 1981~2010년에 이 바람의 봄철 평균 풍속은 2.7㎧이고, 겨울철 평균 풍속은 3.3㎧이다.

▶ 江陵市史(上) (강릉문화원,1996.10.31)→바람

강릉지방의 지방풍으로 봄철과 겨울철에 주로 나타나는 서풍계의 바람인 양강지풍이 있다.
1961~1990년에 이 바람의 봄철 평균풍속은 2.9㎧이고, 겨울철 평균풍속은 3.7㎧이다. 강릉은 대관령 속초 등과 같이 영서지방에 비해 강풍일이 많이 나타난다.

▶ 鄕土誌(襄陽郡敎育廳, 1968. 4. 10)→영동지방의 기후

태백산맥에 의한 휀(fouhn) 현상으로 말미암아 년중 60%에 해당하는 남서풍은 그 풍세가 우리나라에 있어 3~4위로 강하여 이른바 襄江之風(또는 襄杆之風)이란 말까지 생겼다.

▶ 鄕土誌(襄陽文化院, 1976. 9. 25)→嶺東地方의 氣候

太白山脈에 依한 휀(fouhn) 現象으로 말미암아 年中 60%에 該當하는 南西風은 그 風勢가 우리나라에 있어 3~4位로 强하여 이른바 襄江之風(또는 襄杆之風)이란 말까지 생겼다.

▶ 襄州誌(襄陽郡, 1990. 11. 30)→기후

태백산맥에 의한 휀(fouhn) 현상으로 말미암아 년중 60%에 해당하는 남서풍은 그 풍세가 우리나라에 있어 3~4위로 강하여 이른바 襄江之風(또는 襄杆之風)이란 말까지 생겼다.

▶ 襄陽郡誌(襄陽郡誌編纂委員會, 2010. 11. 30)→바람

바람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륙보다 해안 지방에서 강하게 분다. 연평균 풍속은 영동지방인 속초

와 강릉이 3.1m/s와 2.6m/s로 영서의 인제 1.9m/s보다 원등히 강하여 예로부터 襄江之風이라 할 정도로 바람이 강한 지역이다.

▶ 한국학전자도서관(1980. 11. 03)삼척군 김문현 : 通高之雪 · 襄江之風

"…통천서부텀 그 아래루 눈이 많이 오구 양양 간성이 양강지풍이라구 해서 좀 양양 강릉이 이래 바람이 많이 분다구 그래서 통고지설이에 양강지풍이라구, 전설이 내려와서…"

▶ 한국학전자도서관(1981. 09. 21)양양읍 김종극 : 襄江之風의 由來

"… 옛날부터 영동에는 양강지풍이라서 바람이 많다고 유명하지요. 그래서 옛날 어느 때 양양 부사가 부임해 보니 어찌나 바람이 심했는지…"

■ 綜合的인 見解

1. 간성현감 이식(李植)이 집필한 수성지(水城志)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양과 간성 사이에는 큰 바람이 많다는 의미로 襄杆之間多大風이라 표기하였을 뿐 襄杆之風 이란 고유 신조어를 최초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通高之雪' '襄江之風' '一口之難說' 이란 통천과 고성은 눈이 많이 내리고 양양과 강릉은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란 의미로써 양양지방을 중심으로 '襄江之風' 이란 용어가 세전(世傳)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1994년 한국환경과학회 가을학술발표회에 제출된 논문을 보면, 양강지풍에 대해 "강한 서풍이 대관령을 넘어오면서 강제 상승과 하강을 하게 돼 공기의 흐름이 매우 불안정하게 됨에 따라 수리점프(Hydrolic Jump) 현상 또는 강한 리웨이브(Lee Waves) 현상이 나타나 악기류(Air Turbulence)를 유도하게 되어 표층 풍속이 강화되고, 또한 강릉과 양양지역의 산의 계곡을 따라 공기가 빠르게 흐르게 되어 양강지풍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수리점프 현상은 물뛰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폭포에서 물이 떨어져 거꾸로 튀어오르듯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상승기류 현상을 가리킨다. 리웨이브는 산악의 풍하(lee)에서 발생하는 대기의 파동을 말하며 에어 터뷸런스는 기류

의 흐름이 불규칙한 난기류를 뜻한다.

3. 대기의 흐름을 병목현상으로 설명하면 어느 영을 넘어오는 바람이 더 빠른가를 알 수 있다.

오색령(五色嶺)은 표고 1,004m. 대관령(大關嶺)은 표고 832m. 미시령(彌矢嶺)은 표고 826m. 진부령(珍富嶺)은 표고 529m이므로 대기층의 가장 좁은 병목의 순이 곧 풍속의 순서가 된다.

그러므로 양양과 강릉지방의 바람(양강지풍)이 양양과 간성지방의 바람(강간지풍)보다 빠르고 강하다고 증명이 된다.

2020 문화학교 소개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한시교실	이 종 우	18	사물놀이교실	홍 이 표	14
서예교실(한문)	함 연 호	23	색소폰교실	이 명 재	22
서예교실(한글)	김 광 희	18	난타교실	주 동 진	16
한국화교실	조 정 승	14	수채화교실	김 영 덕	20
민요교실	이 건 남	14	600합창단교실	홍 상 기	34
통기타교실	강 명 근	17	전통무용교실	이 건 남	13
민화교실	정 복 자	10	태평소교실	박 하 나	10
논어교실	최 영 택	18			

우수 수강생

교 실 명	성 명	교 실 명	성 명
한시교실	안 병 대	사물놀이교실	정 미 애
서예교실(한문)	박 상 율	색소폰교실	최 만 영
서예교실(한글)	이 주 옥	난타교실	민 병 예
한국화교실	박 광 애	수채화교실	오 은 영
민요교실	김 영 애	600합창단교실	장 우 인
통기타교실	이 은 봉	전통무용교실	박 혜 숙
민화교실	김 이 남	태평소교실	고 철 영
논어교실	노 이 준		

2020 문화학교 수강생 수상 및 공연내역

한시

수상

- 제5회 전국한시 지상백일장 | 참방 : 김경일
- 제28회 사단법인 한국한시협회 지상백일장 | 참방 : 김덕주
- 왕인박사 추모 지상백일장 | 가작 : 김형래

한문서예

수상

- 제48회 강원미술대전 | 입선 : 이광우, 신동우, 윤지환, 박상율, 김덕주
- 2020 만해축전 | 한문 행 · 초서 특선 : 신동우, 한문해서 입선 : 김덕주
- 제15회 운곡서예대전 | 한문특선 : 이광우, 최용일, 윤지환, 김덕주, 김기송, 박상율

한글서예

수상

- ❖ 대한민국 서예 전람회 | 입선 : 노복현, 조영순, 김순자
- ❖ 대한민국 운곡 서예대전 | 특선 : 홍의태
- ❖ 강원서학회전 출품 : 조영순
- ❖ 님 의 침묵 초대작가 특별초대전 : 노복현
- ❖ 강원도 서예 전람회 | 특선 : 장영랑

한국화

수상

- ❖ 2020년 제20회 신사임당 미술대전 | 입선 : 김영한, 신동우
- ❖ 제48회 강원미술대전 | 입선 : 최종봉

수채화

전시

❖ 양양수채화 동호회 전시회 개최

민화 2020년 신설강좌

전시

❖ 양양문화원 민화반 “회원전”

논어
2020년 신설강좌

색소폰

공연

- ❖ 양양문화원 제3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 "찾아가는 문화로청춘"- 감자꽃 하모니!

수상

- ❖ 한국문화원연합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 라이징스타상 : 단체상

난타

공연

- ❖ 양양문화원 제3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사물놀이

공연

- ❖ 양양 전통시장 공연
- ❖ 양양문화원 제3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 “찾아가는 문화로청춘”- 감자꽃 하모니!
- ❖ 연포 마을회관 공연

수상

- ❖ 2020년 제25회 강원사물놀이경연대회 | 장려상 : 단체

600합창단

공연

- ❖ 양양문화원 제3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 “찾아가는 문화로청춘”- 감자꽃 하모니!

통기타

공연

- 양양문화원 제3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찾아가는 문화로청춘”- 감자꽃 하모니!

민요

공연

- 양양문화원 제3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강원도 국악협회 주최 서면아라리, 간곡리 모심는소리
- 국악협회 찾아가는 문화공연(연포리)
- “찾아가는 문화로청춘”- 감자꽃 하모니!

수상

- 실버대회 |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 송종석
- 한국문화원연합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 라이징스타상 : 단체
- 강원도문화원 연합회 실버스타 K 본선진출
- 무형문화제 평안남도 제2호 전수 : 조복순, 김정순, 허옥환, 이혜숙, 정옥경

전통무용
2020년 신설강좌

공연

- ❖ 양양문화원 제3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 예총예술인공연 장고춤
- ❖ 찾아가는 문화공연(연포리)
- ❖ 시장 찾아가는 예술공연
- ❖ 요양원 봉사

태평소
2020년 신설강좌

공연

- ❖ 양양문화원 제3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2020 양양출신 조선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반

1. '허억봉' 은 조선 후기에 퉁소와 대금 연주자로 당시 장악원(지금의 국립국악원) 총책임자인 전악까지 오른 천재 음악가로, 악인들이 악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금합자보' 라는 악보 제작에 참여하였다. 금합자보의 서문에는 "허억봉은 대금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있다.

2. 강좌를 통해 익힌 연주법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및 여가생활을 지속하며, 문화원 및 타기관, 단체의 다양한 행사에 연주봉사를 다님으로 우리 전통악기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고, 마땅한 취미활동이 없는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취미생활과, 수강생들 간의 연주에 대한 소통, 연주 연습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합니다.

3. 대금연주는 호흡하는 방법부터, 악보를 읽는 방법까지 같이 익혀야 하기에 폐활량 및 집중력이 향상에 좋고, 오랜 시간의 곡 습득을 통해 작품 완성에 대한 성취감 및 봉사활동 등 공연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양양문화원에서는 허억봉 선생의 업적 선양을 위해 우리전통악기의 전수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평생학습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대금 연주 배우기' 반을 운영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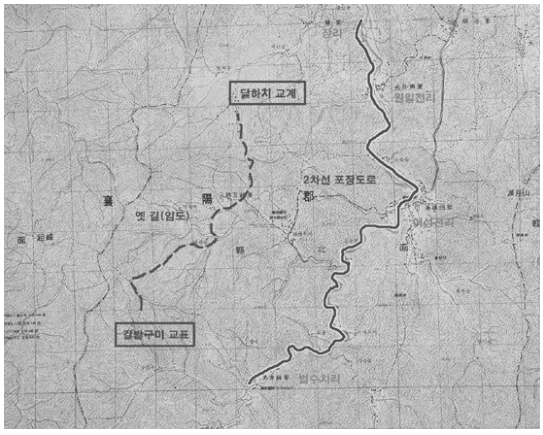
4. 비고
   - 수 강 생 : 18명
   - 공연내역 : 2020. 12. 04. 2020년도 양양문화원 허억봉선양사업 대금반 수료식 공연

1월

새로 발견한 교표각자 (校標刻字)

■ 교표의 발견 경위

양양문화원 부설향토사연구소 연구원들은 2016년 6월 30일 교계각자(校界刻字)가 발견되었던 현북면 장리(獐里) 달하치에서 남서쪽으로 약 20여 Km 떨어진 현북면 법수치리(法水峙里) 마을에서 금표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수치리 태생인 김기석씨가 김진목 전 법수치리장과 함께 지난 가을 임산부산물인 버섯을 채취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3시간 거리에 위치한 법수치리의 자연부락인 '갈밭구미'란 곳에서 암각 문자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고, 당시 보았다는 그 암각문 사진촬영을 부탁을 한 다음해인 2017년 10월 김진목으로 부터 '校標(교표)'라고 새겨져 있는 암각문 사진을 향토사연구소에서 인수 받았다.



교표 위치도

■ 현지답사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校標 발견자인 김진목씨와 김기석씨의 안내로 본 연구소에서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校標가 있는 바위까지는 장장 3시간 30여 분만에 마침내 법수치리 갈밭구미 현장에 도착하여 校標가 새겨진 바위를 확인하였는데, 교표각자(校標刻字)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장리(獐里) 마을의 교계(校界)가 있는 장소와 같이 물이 흐르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 않았다.

校標가 있는 장소에 도착한 연구원들은 교표각자를 한지로 탁본(拓本) 작업을 한 다음 지형을 살펴보니, 1975년 건설부 국립지리원(建設部 國立地理院)에서 제작한 지도에 사람들이 살았던 가구가 표기되어있는 것과 같이, 물이 흐르는 계곡에 인접한 지역에 아주 작은 분지(盆地) 형태로 주거 흔적이 남아있었다.

사람이 살았던 주거 흔적

이곳에는 예전에 4~5가구의 화전민(火田民)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 인접 마을인 면옥치리(綿玉峙里)에서 무장공비(武裝共匪)들이 출몰하였던 곳이므로 정부에서 취약지구(脆弱地區) 독립가옥(獨立家屋) 이주대책(移住對策) 사업으로 모두 철거하고 안전한 곳으로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인위적으로 만든 교표로 가는 통로

또한 이 지역 원로주민들에 의하면 지금의 장리(獐里)에서부터 어성전(漁城田)과 법수치(法水峙)에 이르는 2차선 포장도로가 나 있지만, 예전에 큰 도로가 없었던 시절 장리 마을에서 달하치 고개를 넘어 면옥치리 마을을 지난 후 법수치 본 마을을 우회해서 현 임도(林道)를 따라 갈밭구미로 다니는 옛 길이 있었고, 지금도 면옥치 마을 주민들은 주로 이 길을 따라 버섯 등 산지부산물을 채취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길은 지난 2013년 장리 달하치에서 발견된 교계각자(校界刻字)에서부터 법수치리 갈밭구미에 새겨져있는 교표각자(校標刻字)로 이어져있어 이 2개의 각자가 군사적인 목적을 내포(內包)하고 있는 길로 연관지어볼 수 있다.

■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소의 활동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는 고문헌과 각종자료들을 수집하여 校標라는 刻字의 의미를 찾기 위해 다각 도로 노력하였다.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양양지역의 심산계곡(深山溪谷)에서만 校標와 校界란 암각글자가 발견되는 것인지? 또 한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글자를 바위에 새겼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전거(典據)는 찾지 못했으나 지난 2014년 「校界에 관한 歷史的 考察」의 학술토론회의에서 정의(定意)를 내린 것과 같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새겨진 표시임은 부정(否定)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진다.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협회가 주관하는 제33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 '새로 발견한 교표각자(校標刻字)'를 주제(主題)로 한 내용으로 2018년 12월 4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으로부터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 받아 학계에 주목을 받은바 있다.

탁본작업 모습

교표 제보자인 김진목과 김기석

양양지방은 삼국시대 이후부터 변방 지역이었던 관계로 전쟁과 관련된 수난의 역사를 간직한 고장이다. 한자 자전(字典)에 교(校)의 뜻은 학교(學校)、장교(將校)、군대(部隊)、군영(軍營)、울타리、 바자울(대나무, 갈대, 수수깡, 싸리나무 등으로 만든 울타리) 등 이라 했다.

따라서 기존에 학술토론회에서 교계 각자(校界 刻字)가 군사훈련장으로써 민간의 접

근을 금지하는 금표(禁標)의 의미를 함축하였다면, 校標(교표)도 군사와 관련된 용어로써 과거 이곳에 군부대가 주둔하였던 위치를 알리는 표시가 아닌 가 추정해 보았으며, 앞으로 향토사연구소에서 심층적인 연구로 전국에서도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교표각자(校標刻字)에 대한 의미가 밝혀지기를 기대해본다.

제 2018 - 006호

상 장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 특별상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제33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4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허 권

교표 연구실적 특별상(2018년)

2월

구룡령과 갈천약수 마을

■ 구룡령 옛길 이야기

구룡령 옛길은 과거 영동과 영서를 잇는 물물(物物) 교역로로 이용되었고, 넓은 도로가 없던 시절 양양과 고성지방 사람들이 한양을 갈 때 주로 이 옛길을 이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이 과거를 치르러 한양을 갈 때 명칭에서 유래하듯 용의 영험함을 빗대어 과거급제를 기원하며 넘나들던 길이라 하였다.

구룡령 이라는 이름은 '아홉 마리 용이 고개를 넘다가 지쳐서 갈천리 마을 약수터에서 목을 축이고 아흔아홉 구비를 쉬엄쉬엄 넘어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하고 있으며, 또한 '아흔 아홉 구비 고개 길이 龍이 지나간 자리처럼 구불구불하다하여' 九龍嶺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구룡령 옛길 입구

구룡령 옛길

명종 9년(1554년)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이 구룡령의 자연을 읊은 시를 비롯하여 많은 관리와 문인들이 시부(詩賦)로 노래했다.

조선시대 양양군과 홍천군의 경계를 확정할 때 양양부사가 새벽 일찍 동헌을 출발하여 이 영(嶺)

구룡령 옛길 묘반쟁이

구룡령 옛길 금강송 군락

길을 넘어 창촌에서 홍천부사와 만나 경계를 짓고 경계표지석을 세웠다고 한다, 이때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넓히려고 이 영(嶺)을 빨리 넘으며 달리다 지쳐 숨진 양양의 애향 청년이 묻혔다는 묘가 있어 이 영(嶺)을 넘을 때 숙연함과 애향심을 북돋게 한다.

옛길의 중간에는 길의 위치를 표시하는 금강소나무, 묘반쟁이, 솔반쟁이, 횟돌반쟁이 등이 자리하여 있고,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옛길을 걷는 이들에게 한층 흥미를 더해주며 삼림욕의 극치를 느끼게 하고 있다.

2007년 12월 17일 문화재청에서 국가명승 제29호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하고 있다.

■ 갈천마을 유래와 갈천 약수

갈천리 마을 이름은 칡뿌리에서 나왔다. 화전민이 주로 자리 잡고 살았던 산골마을이라 논이 없다보니 주로 밭에 잡곡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춘궁기가 되면 칡뿌리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이 칡가루 일색이기 때문에 갈천 또는 치래(칡내)라고 불렀으며, 한동안 칡가루가 위장병에 약이 된다하여 칡가루를 이용한 칡 국수가 별미로 각광을 받기도 하였다.

갈천약수

마을에서 서쪽 골짜기를 20여분 걸어 올라가면 바위틈에서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약수가 솟아나는데, 이 약수는 농도가 강하여 위장병과 피부병에 좋다고 하여 비록 먼 곳에 소재하고 있어도 병을 치료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 구룡광산 이야기

마을 위쪽에는 철광석을 채광 하였던 옛 구룡광산의 폐석 더미가 남아있다. 철 함유량이 52%인 양질의 자철광으로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1940년대 초에 일제가 구룡령 입구에 대장간을 차려놓고 철을 캐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만들어 철을 채굴했고 당시 별칭으로 "인발구"라고 불리는 손수레를 소달구지처럼 만들어 인부들이 철을 싣고 썰매처럼 끌어 내린 후 산 중턱에 설치한 삭도[케이블카]를 이용해 산 아래 선광장으로 옮긴 후 목탄차를 이용해 1945년 해방 전까지 철을 캐냈다고 한다.

옛 구룡광산 삭도시설

옛 구룡광산 갱도

1963년 이후 양양광산 함태 광업소에서 철광석 채굴을 재개하면서 부터 착암기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지역 주민과 외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약 7~8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당시 월간 300톤 규모의 철광을 생산하여 속초항으로 운송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나, 생산 규모가 영세하고 열악한 도로 여건으로 운송이 어렵고 유류파동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1970년대 이후 생산이 중단되고 말았다.

현재 원형이 보존되어있는 갱도는 한곳이 있으며 갱도입구가 함몰된 곳이 두개가 더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 철광석을 운반하는데 사용하였던 케이블카 시설이 지금도 남아있다.

■ 갈천분교 이야기

갈천 마을에서 유일한 관공서였던 갈천분교는 1949년 4월 1일 2학급으로 편성하여 현서초등학교 갈천분교장으로 개교를 하였고, 이후 인구증가로 마을이 번성하게 되자 마을의 각종 큰 행사를 치르는 등 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한때 갈천에 광업소가 운영되면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였으나, 최근 점차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학생 수가 감소되었으며, 1996년 3월 1일 상평초등학교 갈천분교장으로 편입되었다가, 1999년 2월 28일 상평초등학교로 통합되면서 갈천분교는 문을 닫았으며, 현재 갈천분교는 마을에서 산촌 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갈천분교

참고로 갈천분교는 6 · 25 한국전쟁 후 나무판자로 지은 건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목조로 지은 건물로 영구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있다.

3월

죽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 있으며 양양에서 남방 20km의 인구 해변에 주위 1km, 높이 53m의 우뚝한 봉이다. 옛날에는 섬이었다고 전하나 지금은 육지와 연접되어 있으며 해변에서 바다 내음이 풍기고 기암괴석이 깎아서있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사시 울창하므로 죽도라 하였고, 이 섬의 장죽은 강인하여 화살용으로 적품(適品)이므로 조선시대 조정에 매년 장죽을 진상하였다 한다. 1927년 3월에 김덕삼이라는 여승이 창건한 암자인 죽도암(竹島庵)이 섬 북쪽에 있으며 또 방선암, 농구암, 연사대, 청허대 등이 있어 더욱 기묘하다.

특히 기괴한 것은 부애(浮崖)인데 죽도암 사이 깊숙한 곳에 깊이 3척, 직경3척 가량으로 원형이 되어 맑은 물이 사시 마르지 않고, 죽도봉 정상에는 어느 시대인지 미상이나 왕가의 태봉 유적이 있으니 해상 풍경을 조망하기 좋은 곳이다. 정상에 새소리 바람소리 쉬어가는 곳 죽도정이 있으니

죽도정

1965년 5월 13일 현남면내 유지들이 주축이 되고 행정의 지원을 얻어 준공하였다.

예전에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찾아 풍경을 노래했으며 양양팔경 6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에 죽도봉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편의를 더하니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다. 이 전망대는 높이 19.5m이며 철재 나선형으로 3층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전경은 남쪽으로 가깝게 인구항이 한눈에 보이고 인구해변과 멀리 휴휴암까지 바라볼 수 있다.

죽도 흔들바위

서쪽으로 백두대간이 멀리 병풍처럼 둘러싸이고, 북쪽으로는 죽도 해변과 동산 항을 비롯하여 멀리 하조대까지 보인다. 특히 이곳에서 바라본 죽도 해변의 서핑모습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이다.

죽도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핑모습

방문객 안전을 위하여 전망대 최대 출입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한다는 안내판이 보인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두 갈래인데 하나는 인구마을 성황당 입구에서 오르는 코스로 목조 데크로 총 280개 계단이며, 울창한 송림사이로 솔향기가 더 없이 좋다. 중간 중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오르는 중간 좌측에 바위가 있는데 규모는 작으나 밀어보면 흔들리고 수년의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는 자태를 유지하고 있는 바위로 주민들은 이 바위를 흔들바위라고 부른다.

또 다른 코스는 죽도 동쪽 바닷가에서 오르는 길이다. 목조 데크로 237계단이여, 오르는 중간 중간 보이는 바다 풍경은 장관 중의 장관이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물안개, 기암괴석, 철석 이는 파도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등등...

죽도는 바닷가 1km 전 구간에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꼭 가 봐야 할 명소로 1시간 정도면 죽도 전체를 천천히 둘러 볼 수 있다.

● **동산석구(洞山石臼)** : 죽도 동편 연사대 아래에 있다. 둥근형으로 스스로 움직여 서로 마찰됨에 따라 중심이 방아확처럼 파였다 하여 석구라고 하는데 방아확은 방아 공이로 찧을 수 있게 돌절구 모양으로 우묵하게 판 돌구멍으로 방아공이가 떨어지는 곳에 묻고 그 속에 곡식을 넣고 찧거나 빻는다.

● **주절암(駐節岩)** : 시인 선비와 관광객들이 구경할만한 곳이라 하여 즉 죽장을 멈춘다는 뜻에서 온 것이다.

● **방선암(訪仙岩)** : 옛날 봉래선인들이 놀던 곳이 있어 신선들이 상봉한다는 뜻으로 방선암이라 하고 각자(刻字)한 것이 입구에 있다.

● **청허대(淸虛臺)** : 죽도봉 북쪽에 이르면 심신이 상쾌하여 세상물정을 잊고 선경에 청허한 심정이 자연 솟아 난다하여 청허대라고 한다.

● **농구암(弄鷗岩)** : 선인들이 세상사를 멀리하고 백구를 벗 삼아 한가한 세월을 보내던 곳이라 하며, 전망이 매우 좋아 누구나 한번 가면 떠나기 싫을 정도로 주위에 괴암기석이 있고 절경을 이루고 있다.

● **학바위** : 죽도의 동쪽 해안에 있는 바위인데 파도에 침식되어 그 모양이 학이 앉은 것과 같다하여 학 바위라 한다.

● **연사대(鍊砂臺)** : 옛날 적송자(赤松子)가 주사(走射)를 연마하던 곳이라 하며 대 아래에는 신선이 바둑 놓던 흔적이 있다. 적송자(赤松子)는 중국 전설시대 선인의 이름으로 신농(神農)때의 우사(雨師)로서 후에 곤륜산에 들어가 선인이 되었다 한다.

● **학바위** : 죽도의 동쪽 해안에 있는 바위인데 파도에 침식되어 그 모양이 학이 앉은 것과 같다하여 학 바위라 한다.

〈죽도 관련 옛 시 소개〉

竹島仙臼(죽도선구) 죽도의 신설절구 李海朝(이해조)

深深蒼竹島(심심창죽도) : 푸르름이 깊고 깊은 죽도에서
英英玉杵臼(영영옥저구) : 옥절구 소리 맑아 듣기도 좋다.
磨轉何太速(마전하태속) : 얼마나 빨리 돌려서 갈았느냐
千劫彈指久(천겁탄지구) : 천겁의 기다림이 몹시 짧았네.
玄霜不再擣(현상불재도) : 평생 두 번 찧지 않으려
雲英能見否(운영능견부) : 운영은 나타나지 않았네.
我欲作窪樽(아욕작와준) : 내가 우묵한 술통을 만들어서

長盛葡萄酒(장성포도주) : 포도주나 오래도록 담아두련다.

※운영(雲英) : 옛날 명기(名妓)의 이름임.

(저자 소개)

이해조(李海朝 1660~1711)

본관은 연안, 자는 자동(子東), 호는 명암(鳴巖), 1681년(숙종7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1694년 빙고별검(氷庫別檢), 1709년
2월 양양부사, 동년 9월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한 후, 1710년 응교(應敎).
수원부사, 전라도 관찰사, 대제학을 지냈다.
어려서부터 학문이 뛰어났고 시문에 능하여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으로부터 천재라고
격찬을 받았다.

4월

조산리(造山里)와 대포영(大浦營)

■ 조산리의 유래

옛날 지금의 조산리 마을은 산맥이 바닷가까지 이어져 있지 않고 중간에 끊어져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고승이 "그 산맥이 끊어져 있어 훌륭한 인재가 나지 않는다."고 일러주고 갔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동리주위에 산을 만들어야 한다며 1657년 온 마을 사람들이 인력으로 흙을 운반하여 산[봉우리]을 만들었다 하여 마을이름을 조산(造山)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후부터 조산리에는 훌륭한 선비, 학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며, 선조 38년(1605년) 을사포락(乙巳浦落)으로 산이 붕괴되어 섬이 되었던 것이 1867년 주위의 호수가 대홍수로 매몰되어 현재는 전답(田畓)으로 변하여 과거의 섬을 추상(追想)하여 섬 뜰 즉 도평(島坪)이라 한다.

동해신묘

동명서원

또한 이 마을의 송림 속에는 고려시대부터 나라의 예법(禮法)에 따라 국태민안(國泰民安)과 풍농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왕이 친히 향축(香祝)을 내려 중사(中祀)로 제례를 올리는 신성한 동해신묘(東海神廟)와, 조선 인조(仁祖) 6년(1628년) 조위한(趙緯韓) 양양부사가 고려 말에 졸(卒)한 그의 선조(先祖)인 용원부원군(龍源府院君) 조인벽(趙仁壁) 선생의 위

폐를 모시고자 건립한 동명서원(東溟書院), 그리고 철종(哲宗) 10년(1859년) 3월 산불로 양양부(襄陽府)에 551여 호의 민가가 소실되고 이재민이 3,000여명에 달하자 정원기(鄭元基)가 성균관 진사였던 그의 아들과 함께 백미(白米) 천석과 현금 1,000량을 군내 이재민들에게 내주어 구휼(救恤)하여 철종 11년(1860년) 조정으로부터 가선대부중추부사오위장정원기불망비(嘉善大夫中樞府事兼五衛將鄭元基不忘碑)를 하사받은 비가 현 조산리 산봉우리아래 세워져있다.

■ 대포영(大浦營)과 성안말

성(城)안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성종(成宗) 21년(1490년)에 강릉 안인포의 수군만호영이 이곳 조산리로 옮겨왔다. 이 대포영은 만호(萬戶)의 지휘 하에 동해안을 방어하던 곳이었는데, 중종(中宗) 14년 경진(庚辰)에 그 주위에 1469척, 높이 12척의 성을 쌓아 동해안에 출몰하는 왜구들을 방비(防備)하는 등 137년간 동해를 지키는 수군영(水軍營)으로 존속하다가 조선 인조 4년(1626년) 방위지가 못된다하여 폐쇄(閉鎖)하였다.

대포만호영

조산리에서 청곡2리에 이르는 도평뜰(약 50만평)

이 대포영에는 양양출신 이봉[李芃/本貫:全州]이 중종(中宗) 정묘(丁卯)에 충무위, 병술(丙戌)에 내금위 등 내직을 지낸 다음 중종 23년인 무자(戊子) 6월에 양양부(襄陽府) 대포만호로 부임하여 재직한 후 명종(明宗) 7년(1552년) 임자(壬子)에 졸하여 대포영 인근인 기정리 진수동(眞水洞) 선산에 안장되었다고 한다.

지금 지명인 성안 말을 기준으로 뒤편 북문 뒤에, 그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우물터가 발견되었다. 당시에는 대포영까지는 함선이 드나들었는데 남대천이 양양읍내에서부터 포월리를 거쳐 조산까지 오는 동안 모래와 흙이 쌓여 호수가 생겨 포월(浦月)리를 곗달(溪月:호수의 달)이라고도 불렀고 대포성 앞에 연당(淵塘)이 남아 있었고 구안(溝岸:도랑가), 수답(水畓:물논), 남대단(南大端:남대끝), 계교목(溪橋沐:호수다리목), 계두답(溪頭畓:호수위의 논) 등 호수가 매몰되어 논으로 변한 이름이 남아 있다. 또한 남대천 상류에서 떠내려 온 모래, 자갈, 흙이 쌓여 논, 밭, 집터로 변하였고 70년대

정원기 불망비

조산송림

전까지 여러 곳에 호수로 남아있었다.

파도가 밀어올린 모래와 남대천 상류에서 떠내려 온 흙이 쌓이면서 바다의 수심이 얕아지면서 남대천 하구에 호수가 남아 있었는데, 당시 여름철에는 아이들 물놀이장과 낚시터로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매몰되어 호텔과 콘도, 오토캠핑장시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 등이 조성되어있다.

『다음은 조위한(趙緯韓) 양양부사(襄陽府使)가 1623년(癸亥) 10월부터 1628년(戊辰) 8월까지 양양부사를 재임하면서 당시 양양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던 향교(鄕校)를 크게 중창하고, 훼철(毁撤)될 위기에 처한 대포만호영 구관(舊館)에 "동명서원"이라는 편액을 세운 양양 동명서원기를 소개한다.』

【襄陽東溟書院記】

余以中丞。論事過當。斥補于玆土。下車之初。先以興學校育人才爲急務。重創聖廟而大之。改造齋舍而新之。又置學田以爲諸生朝夕之供。而第念校生多有免軍之徒。紛紜雜亂。其中雖有俊秀拔萃之才。

내가 중승(中丞)으로서, 일을 지나치게 논의하다가, 좌천되어 이 땅에 처음 왔다. 먼저 학교를 일으켜 인재육성을 급무로 하고, 향교를 크게 중창, 재사를 새롭게 개조하였으며, 또 제생의 아침저녁의 제공을 위하여 학전을 설치하여 다만 생각하건데 군역을 면제받은 무리가 많이 뒤섞여 어지럽고 그 중에는 비록 재주가 출중한 준수도 있었다.

不得精業於黌齋。以此列邑皆設書院于靜散地。爲多士修養之所。而顧此邑獨無焉。

학교에서 정통의 학업이 부득하니, 이로써 여러 고을에서 모두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서원을 설립하고 많은 선비를 수양하는바 보니 이 고을에만 유독 없다.

余慨然興喟。鳩材募工。欲效白鹿之舊制矣。

내가 개연히 탄식하고, 재목을 구하고 장인을 모아, 백록동서원의 구제도를 본받고자한다.

適値朝廷革去本府之大浦鎭。軍器軍糧。移于本府。而萬戶所居之館舍。嵬然獨存。勢將毁撤而補用於官家。

마침 조정에서 혁거한 본부의 대포진의 군기군량을 본부로 옮겼으니 만호가 살던 관사만 홀로 우뚝 솟아 있어, 장차 그 형세가 훼철될 것이므로 고쳐서 관가로 쓰고자 한다.

余翻然喜曰。此必天公感余愛士之誠。畀此一館。以爲諸生講學肄業之地。何必毁諸。乃因舊館而額之曰。東溟書院。蓋齋房講堂。儼然維新。一鄕之父老諸生。聚而謝焉。

내가 생각을 바꾸어 기뻐하면서, 이는 필시 하느님이 선비를 사랑하는 정성으로 이 관사를 준 것이라고 나는 느끼고서. 제생이 학문을 강론하고 학업을 익히는 곳으로 하고자 하니 어찌 헐겠는가. 이에 구관의 편액을 동명서원(東溟書院)이라하고 재실과 방 강당이 근엄하게 일신시켰다. 일향의 어른들과 제생이 모여 사례한다.

5월

양양읍성

양양읍성은 양양읍 군행리 현산공원 입구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산(峴山)의 맥(脈)을 따라 성황사(城隍祠)에서 현 양양읍성 터널을 가로질러 성내리 쪽의 경사면 구릉(丘陵)지대를 따라 완만하게 돌아 양양감리교회와 양양천주교회를 지나 양양초등학교 앞의 4거리에서 양양군청에 이르는 성을 말한다.

양양읍성 북문

현재 양양읍성은 고려시대부터 양주성으로 불리다가 양양읍성으로 칭하였는데 그 역사는 약 천 년이 넘은 시점으로 올라가는데 이는 우리나라 중동부 변방의 방어기지로 북호남왜(北胡南倭)의 숱한 외침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양양읍성 서벽 석축

1451년에 편찬한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제7대 목종 10년(1007년)에 양주성을 처음으로 축성하였으며, 우왕 11년(1385년) 허주(許周)가 지양주사(知襄州事:고려시대 지방관직)로 있으면서 읍성을 다시 축조하였다는 내용이 『세종실록』에서 전하고 있으며, 조선 제3대 태종 13년(1413년)에 도호부를 두면서 동헌(東軒)을 중심으로 동 · 서 · 남 · 북문을 설치하고 석성(石城)을 길이 403尺, 높이 5尺의 규모로 쌓고 토성(土城)의 길이 2825尺

우물지(성내리 종합복지회관 앞)

우물지(군행리 입구 마을회관 앞)

(약856m)을로 쌓았으며 성안에는 2개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문종실록』에 기록되어있다.

이후 양양읍성은 시대에 따라 석축성과 토축성을 보수하는 등 여러 차례의 보수와 증축이 있었음을 많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어 그 시기가 고려 초반으로 올라갈 정도로 역사적이고도 희귀성을 지닌 읍성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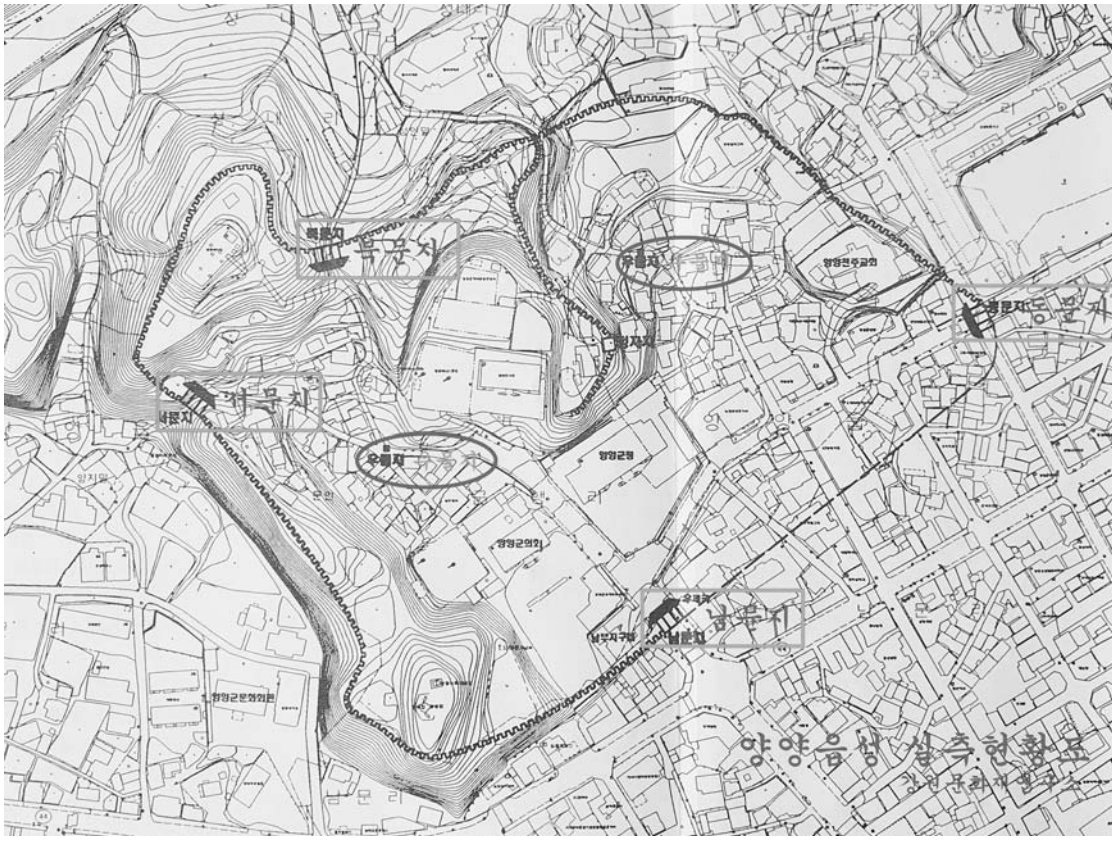
양양읍성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고려 제23대 고종 8년(1221년) 거란(契丹)의 침략을 잘 방어한 공으로 양주(襄州)로 승격되어 방어사(防禦使)가 임명되었다가 고종 40년(1253년) 몽고의 침략으로 양주성이 함락된 후 고종 44년(1257년) 몽고군에게 항복하여 덕령감무(德寧監務)로 강등되었다가 제24대 원종 원년(1260년)에 다시 양주로 회복되었다라고 『고려사』에서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는 태조 6년(1397년) 부(府)로 승격되었으며 제3대 태종 13년(1413년)에 도호부(都護府)가 되었고 태종 16년(1416년)에 비로소 양양(襄陽)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양양지역은 예로부터 지리적으로 보아 영동과 영서의 길목에서 위치하여 많은 변화와 전란을 겪게 되자 읍성의 중요성에 비추어 양주성을 구축하고 매년 성황제(城隍祭)를 올려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였던 것이다.

성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나무나 돌 또는 흙으로 높이 쌓은 큰 담을 의미하며, 외성(外城)과 내성(內城)을 모두 일컬어 성곽(城郭)이라 칭한다. 영동지역의 성곽은 산성과 평산성이 주류를 이루는데 양양군내에 산재된 성곽이 여기에 속한다.

현재 양양읍성과 관련된 성벽, 건물지, 우물 등은 거의 폐허가 된 상태이고, 현산공원 진입로에서부터 이어지는 양양읍성 남벽과 현산공원의 서벽 쪽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석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북벽과 동벽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도로와 주택 등이 들어서 성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데, 당시 성안의 백성들과 관원들이 사용하였던 군행리와 성내리의 매몰된 우물지는 지금이라도 표지석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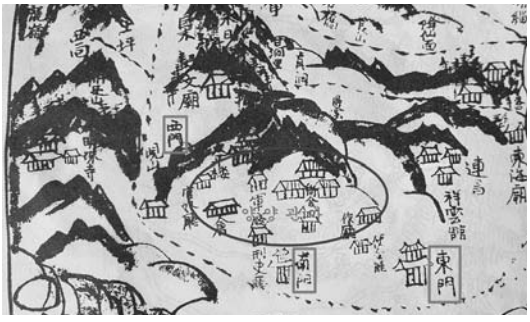
『여지도서(輿地圖書)』, 『관동지(關東誌)』, 『관동읍지(關東邑誌)』에 의하면 양양읍성 내에는 객사(客舍) 35간, 아사(衙舍) 108간, 향청(鄕廳) 10간, 훈련청(訓鍊廳) 14간, 군기청(軍器廳) 10간 등의



양양읍성 실측현황도(강원문화재 연구소)

관아(官衙)건물이 상세히 기록표기되어있으며, 관동읍지 양양읍지도(襄陽邑地圖)에도 아사(衙舍), 작청(作廳), 사령청(使令廳), 군청(軍廳), 형리청(刑吏廳), 창(創), 관노청(官奴廳), 태평루(太平樓), 동문, 남문이 그려져 있으며 서문의 기록이 확인된다.

양양읍성 성곽이 그려져 있는 해동지도(1750년대 초)



양양읍성 관아 건물명이 표기되어있는
관동읍지, 양양읍지도(1868~1871)

따라서 양양읍성은 지양주사 허주에 의하여 축성되었다가 몽고군이 침입한 1253년에는 읍성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문종실록』에 의하면 1451년 읍성이 보수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1530년에 반정도가 퇴락하였다고 한 『신증동국여지승람』 내용으로 비추어보아 양양읍성은 이 시기에 폐성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동읍지』 양양읍지도(1868~1871)에 동문[한수루:현 양양초등학교 앞 교차로]과 남문[현산정:현 양양지구대 앞 도로], 그리고 서문의 문루(門樓)가 표기되어 있음을 미루어볼 때 양양읍성은 폐성이 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퇴락이 있었을 뿐 읍성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 동문(한수루:漢水樓)과 남문(현산정:峴山亭)은 숙종 26년(1700년) 양양부사 남치훈(南致薰)이 창건하였고, 남문인 현산정은 영조24년(1748년) 양양부사 박필정(朴弼正)이 다시 창건 하였다. 『峴山誌』

6월

양양군의 고택(古宅)

우리군의 고가(古家)는 총 4곳으로 현남면에 3곳 서면에 1곳이며 강원도 문화재자료가 2곳, 강원도 유형문화재가 2곳이다. 4곳의 공통적인사항은 외양간을 주거공간의 한 부분으로 배치하여 농가의 중요한 자산이었던 소를 보호하고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꾀했던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건물 구조의 평면을 살펴보면 부엌을 서쪽으로 사랑채는 동쪽으로 배치했다는 점이 특이하고 고가마다 다양하게 주거공간을 배치한 부분이 매우 흥미롭다. 옛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 김성래 가옥(金成來 家屋) : 현남면 북문안길 106-9.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9호

김성래 가옥은 구릉지에 형성된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고 대지의 규모에 비해 여러 채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증축과 보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기단에서 지붕까지 다양한 형식

김성래 가옥

을 갖춘 전통가옥이다. 시대의 다양성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9호로 지정되었다.

경사지에 건립된 이 가옥은 대문간채와 사랑채가 전문에 배치되고 전형적인 ㄱ형 겹집인 안채가 문간채와 연결되며 사랑채 뒤에 헛간채가 독립된 ㅁ자형 배치형식을 보이는 가옥이다. 경사지의 특성상 문간채와 붙은 사랑채 쪽으로 높아지는 자연석 석축을 쌓았고 사랑채는 팔작지붕으로 독립된 구조로 솟을대문 형식의 맞배지붕으로 구성된 문간채와 직접 연결된 형식이다. 사랑채는 2칸의 방 전면과 측면에 우물마루로 짠 반 퇴의 규모지만 비교적 넓은 툇마루를 붙여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누마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뒤편에 있는 죽림과 작은 산이 배경이 되어 집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감탄할 수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김해 김씨 가옥으로 김성래씨의 14대조께서 건립하였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다. 수차례 증축과 보수를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약 60년 전 초가였던 것을 와가(瓦家)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 가옥은 시대를 달리하는 다양한 목재치목기법을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

【주】 솟을대문 : 행랑채의 지붕보다 기둥을 높게 세운 대문

■ 조규승 가옥(曺圭承 家屋) : 현남면 개매길 215-5.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80호

전통가옥으로 집 뒤의 얕은 야산에는 백로와 왜가리가 서식하고 있어 매호를 중심으로 이 일대가 천연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된 상태다.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8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 소유주인 정상철씨의 10대조가 건립한 것으로 초계정씨 향동파(香洞派)종택이다. 풍수적으로

조규승 가옥

볼 때 이 가옥은 백두대간으로부터 동해안으로 흘러 내려온 맥이 맺힌 대표적인 명당으로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의 형국이다. 대지는 노송과 왕대나무 숲이 감싸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특히 대지 입구 동서에 큰 바위가 있어 좌청룡 우백호의 집터다. 또한 옛날부터 사용하였다는 마당 아래 바위틈에서는 나오는 샘물이 특이하다. 가옥 구조는 전면의 기단에서부터 지붕 끝까지 다양한 입면 구조를 하고 있는데 누마루형식의 사랑채와 어우러진 구성이 특징적이다. 가옥의 배치는 가장먼저 건립하였다는 사랑채와 안채 곳간채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ㅁ자형을 이루고 있으나 원래는 안채 뒤에 사당이 있었고 사랑채 누마루와 외양간이 전면으로 돌출해 있어 병(兵)자형 배치였다고 한다. 사랑채 옆면 서까래 밑 도리 부분에는 화재의 흔적이 있어 오랜 세월 많은 변고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조규승 가옥 샘물

【주】 매화낙지형 : 풍수지리설에서 명당터를 이르는 말

■ 김택준 가옥(金澤俊 家屋) : 현남면 인구중앙길 89-87.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0호

김택준 가옥은 숲을 배경으로 구릉지에 자리하고 있지만 바닷가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형성된

김택준 가옥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진입로가 좁아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좌우측으로 산이 감싸고 있어 명당으로 여긴다.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는데 약 200년 전에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를 평행으로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H자형 평면을 구성하고 있다.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되었다. 기단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채의 정면 부분이 가장 높고 사랑채가 한단 낮게 구성되었으며 외양간이 가장 낮다. 사랑채와 안채는 독립된 지붕이며 홑처마에 팔작지붕 형식이다. 안채보다 후대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랑채는 서까래 등 재목이 안채에 미치지 못한다.

■ 이두형 가옥(李斗衡 家屋) : 서면 들돌길 284-1.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1호

이두형 가옥은 조선후기에 건립되었으며 약 200년 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이씨 종택으로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ㄱ자형 북방형 겹집이다.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되었다. 사랑방은 마당으로부터 출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고가와는 달리 많은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뒤뜰은 부엌에서의 출입만 가능토록 하고 부엌이외의 출입은 담장으로 구획하여 차단하고 있다. 전체적인 입면 구성은 홑처마 집으로 팔작지붕을 기본으로 외양간을 맛배지붕 형식이고 부속사는 우진각지붕 형식이다.

【주】 팔작지붕 : 한국 목조 건물 지붕의 한 형식으로 가장 완비된 기와지붕 구성이다.
맛배지붕 : 건물의 측면에서도 지붕면이 용마루까지 올라가게 되어 측면에 삼각형이 생기는 지붕.
우진각지붕 : 지붕면이 사방으로 경사를 짓고 있는 지붕으로 정면에서 보면 사다리꼴 모양이며 측면에서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이두형 가옥

7월

둔전골과 진전사

■ 둔건골

둔전골은 산자수명한 천혜의 자연 속에 자리하고 있다. 백두대간과 태백산맥의 허리, 양양의 진산 설악산에서 크고 작은 구릉이 동으로 뻗어 내려 마치 병풍을 펼쳐 놓은 듯 아늑하고 포근한 골짜기이다. 멀리 앞쪽으로는 맑고 푸른 동해가 있고 설악산 계곡에서 발원하는 계곡수는 그 끝자락에 모여서 하천을 이루고 물치천이 되어 동해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설악저수지

설악산 계곡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곳에 고려시대부터 나라에서 둔전을 경영하던 곳 이라 이름 붙여진 둔전리 마을이 있으며 마을 위쪽에 높이가 41.1m 에 길이가 172m 이고 총저수량이 144만 톤에 달하는 설악 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관리하는 1980년도에 준공된 이 저수지는 강현면의 광활한 진미뜰과 회룡지역의 논농사에 꼭 필요한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관산 중턱에 있는 진전사에서 저수지를 내려다보면 앞뜰의 연못처럼 보인다.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은 둔전골을 감싸고 북으로 화채봉과 송암산을 거쳐 진전사가 있는 관산으로 내려오고 남쪽으로는 관모산을 거쳐 성치능선으로 연결된다.

또한 이 마을에는 통일신라시대 이래로 명산대천에 국가에서 소사의 예를 올리던 설악산 재단인 명월단이 있었다고 전해진다(삼국사기 제32권 잡지 제1)

그 뿐 아니라 신라 신문왕 11년(691년) 창건된 청련암과 조선시대 창건된 학소암 등의 암자가 있었으며 향산비폭, 여귀소, 고메기폭포 등의 명소가 있다.

명산 설악으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다. 둔전리 마을에서 관모산을 끼고 오르는 호랑콧등 길과 아홉 개의 계곡을 건너야하는 아홉물나드리(아홉싸리 라고도 한다)로 대청봉 아래 까지 간 후, 오른쪽의 완만한 화채봉길을 이용해서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가파른 산길을 이용해서 곧바로 가는 길이다. 곧바로 오르면 중간쯤에 높이 20여m로 100여명이 쉴 수 있는 바위굴인 대궐모듬암이 나오며 이곳에서 30여분을 올라가면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번지 1,708m의 대청봉에 이르게 된다.

■ 진전사(陳田寺)

진전사 금당(적광보전)

진전사는 통일신라시대 8세기말에는 창건되어 있어서 도의선사(道義禪師)가 당으로부터 귀국한 헌덕왕 13년(821년)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찰이었으며 사찰 중에서도 근본 대도장이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선종(禪宗)을 크게 일으키려던 도의선사가 주석(駐錫)한 곳이 여기요 또 일연선사가 체도(剃度)한 선문이 이곳이다. 그러므로 진전사는 8세기부터 14~15세기까지 장구하게 선종의 사찰로 법통을 전등(傳燈)하였다.

도의에 의하여 개산(開山)된 가지산문(迦智山門)은 일연선사가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고려 고종 6년(1219년) 당시까지도 진전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존속했으나 어느 시기엔가 폐사된 채로 둔전사라 불리어져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까지도 인식되고 있었다.

이렇게 둔전사로 알려져 왔던 사지(寺址)는 1965년 조사 시 신영훈이 「陳田」이라 새겨진 기와장을

진전사 삼층석탑

도의선사 부도

수습하고, 1975년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30여개의 「陳田」·「陳陳田田」이라 새겨진 기와장을 수습하면서 진전사의 위치가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사지는 도의선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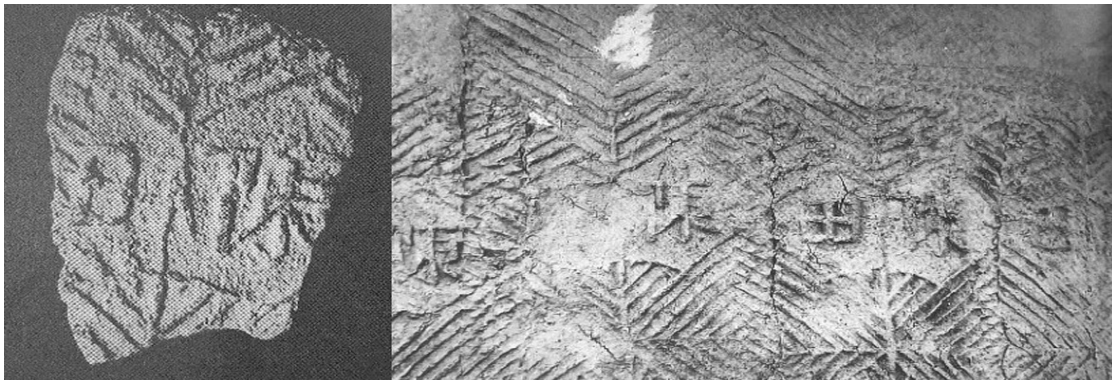
이로 말미암아 남종선(南宗禪)을 신라에 최초로 전래한 역사성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조(宗祖)인 도의선사와 연계한 사상성이 부각되는 사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진전사는 통일신라 말에 창건되어 고려 예종8년(1113) 및 충렬왕3년(1299)에 2차례, 조선 세조13년(1467년)의 중수 등 모두 3차례에 걸친 중수사실이 확인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진전사의 중창복원 계획이 구체화되어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현지의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건물 배치와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작성되고,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부터 금당(金堂)의 건립이 진행되어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의 골기와집이 완성되었고 서쪽 편으로 길게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의 요사체 건물이 배치되었다.

진전사지는 3층 석탑이 있는 지역과 도의선사의 부도(浮屠)가 있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둔전리 마을의 서북쪽에 솟은 관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진전사지에 있는 3층 석탑은 국보 122호



1965, 1975년 진전명 출토기와

로, 도의선사 부도는 보물 439호로, 진전사지는 강원도 기념물 52호로 지정보호 관리되고 있다.

두 지역은 동、서로 약 600m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부도지역은 산 중턱에 있다.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석탑으로 2층 기단을 갖추고 있으며 상륜부는 노반(露盤)만이 남아있고, 삼층 옥개석 윗면에 직경 10cm, 깊이 10cm의 찰주공(擦住孔)이 남아있다. 이 석탑의 정확한 건립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략 8세기말~9세기 초로 생각되며, 조각기법이 매우 섬세하고 우수하여 신라하대의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삼층석탑은 1968년 완전히 해체하여 정 위치에 복원되었다.

석조부도는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탑신부가 팔각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기단부는 석탑에서와 같이 사각형 2중 기단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도 역시 흩어진 석재들을 모아 복원함으로서 명실 공히 지정문화재 면모를 갖추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8월

자심탑 효행 이야기

부모에 대한 효행이 극진하여 어머니 돌아가신 후 돌을 쌓아서 탑을 세웠는데, 매일같이 그 아래에서 극락세계로 가시라고 기도를 드렸으므로 자심탑이라 한다는 이야기를 영혈사 노승 여잠이 1680년경 전하여 왔다.

옛날 양양 안심암(安心庵)에는 새벽과 저녁에 법당을 돌면서 종을 치고 목탁을 두드리며 도량을 정화하는 승려(僧侶) 자심(慈心)이 있었다.

속세에는 불교를 믿지 아니하는 부모가 살고 있었다.

■ 보살행 권유

그러던 중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홀로 남게 되었다.

"어머니 부처님을 믿으시지요?" 간청하였으나 도무지 듣지 않았다.

효성스러운 자심은 어머니를 절로 모시진 못해도, 매일 한 번씩 틈 있는 대로 어머니께 문안하고 위로하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절에서 기도하는 한편 탁발도 하여 봉양도 하였다.

비록 출가한 중이라고는 하나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 생전에는 불편 없이 지내도록 효성을 다하였다. 그러나 신심이 없던 어머니가 극락에는 가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어머니 죽은 후의 고초가 걱정되었다.

■ 어머니 몫의 탑

자심은 어머니의 사후를 위해 어머니 몫의 탑을 세우기로 하였다. 그는 탑에 쓸 돌을 여러 곳에서 찾아 그 한 덩어리를 정성을 다하여 망치와 정으로 돌을 다듬어 어머니의 극락행을 소망하였다.

동료 승려가 그의 성실한 노력에 감동되어 협력하겠다고 자청하였으나 그는 모두 사절하고 홀로 자기 힘으로만 이 탑을 쌓아갔다. 그러다 보니 자심의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걸렸다.

■ 어머니의 사십구재와 도반(道伴)의 합력

그러던 중 아직 탑이 완성되기 전에 어머니가 병상에 눕더니 얼마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났다.

장례와 사십구재를 마치고 절에 돌아와 보니 자심이 완성하지 못했던 탑 윗부분이 깨끗이 완성되어 있었다. 자심이 이상히 여겨 동료들에게 물었더니 "자네 어머니가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받기 전에 탑이 다 완성되어야 그 탑의 공력으로 극락에 가겠기에 남은 부분을 우리가 합력하여 다 마치었네."라고 했다.

도반의 합력으로 5층 옥개석(지붕돌)과 보주를 다듬어 완성한 오층석탑은 훌륭하였다. 한편 고맙기도 하려니와 한편으로는 남의 힘으로 마치게 되어 개운치 아니한 데가 있었지만 이미 다된 것이니 그대로 두고 날을 받아 탑제를 지내기로 했다.

■ 자심의 꿈

그런데 탑제 바로 전날 밤 자심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자심아! 나는 저승에 갔더니 염라대왕이 '너는 부처를 믿지 않아 지옥으로 보낼 것이나, 네 아들 자심이 불공드려 석탑을 다 쌓을 때까지는 미룬다.' 하더라."

자심은 어젯밤 꿈 이야기를 동료 스님에게 말 하고 양해를 구하여 겨우 그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였다.

그날부터 자심은 전과 같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혼자 힘으로 염불을 하며 탑을 열심히 완성하였다.

아미타불의 은덕의 결정이었다. 자심은 탑을 안고 부처님에 무한 감사로 탑제를 올렸다.

탑제 날 밤 꿈에 또 나타나신 어머니는 비단옷을 입고 연꽃 속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연꽃을 타고 자심에게 오더니

"나는 그동안 극락도 지옥도 아닌 곳에서 고생하고 있었다. 이제 염라대왕이 불러 대왕 앞에 갔더니 대왕이 인과업보(因果業報)란 본인에 의한 것인데 그대는 생전 그대의 업보로는 당연히 지옥으로 갈 것이나 아들의 효성과 신심이 하늘에 사무쳐 오늘 아들 덕에 극락으로 가게 되었다."

■ 자심의 효행 기도

그 후에도 한결같이 부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극락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중생을 고해에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원하였다.

그 뒤부터 이 탑을 자심탑이라 부르게 되었고, 죽은 부모가 극락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꼭 이 탑에 와서 기도를 드렸다고 하였다.

■ 자심탑의 수난

자심탑은 일제 강점기부터 옮겨 다니는 수난을 당하였다.

일제 강점기는 안심암에서 해체되어 화일리 마을로 옮기어 져 있다가 1957년에 춘천경찰서로 5개 옥개석만을 가지고 가서 새로 탑신석을 만들어 정원에 안치하여 2000년경까지 존치되었었다.

2000년경 영혈사로 4개의 옥개석만을 영혈사 경내로 옮겨 안치하였다. 1층 옥개석은 분실되었다.

2005년 천년고찰 영혈사 경내에 불사(佛事)하여 자심탑을 5층 석탑으로 복원하여 지금은 불제자와 방문객이 부모님 천도를 위해 이 탑에 와서 기원하고 있다.

다음은 고려시대 나옹선사(惠勤:혜근1320년~1376년)의 안심암에 대한 시문을 소개한다.

懶翁禪師詩(나옹선사시)

忽到安心三兩日(홀도안심삼량일) / 홀연히 안심(安心)에 와서 이 삼일 머물고
心身歇了向襄州(심신헐료향양주) / 몸과 마음을 쉬고 나서 襄州로 향하였다.
道人蹤跡誰能挽(도인종적수능만) / 도인의 종적을 누가 능히 되살리려나
東海岩邊任自遊(동해암변임자유) / 동해안 바위 가에서 자유롭게 노닐련다.

춘천경찰서(1999년대)

영혈사(2001년경)

영혈사(2005년 이후)

영혈사 전경

9월

동해북부선의 종착지 양양역

1. 양양역 개통

동해북부선은 지금으로부터 83년 전인 일제강점기에 강원도 안변에서 양양을 잇던 철도 노선으로, 1937년 12월 1일 안변에서 양양까지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으나 완공하지 못하고 8 · 15해방을 맞이하였다.

당시 양양군 내의 역은 공현진역, 문암역, 천진역, 속초역, 대포역, 낙산사역을 지나 양양역이 종착역이었다.

※ 당시 낙산사역은 강현면 정암리 현 코레일연수원 자리 인접 북쪽에 있었다.

〈동해북부선 철로개설 현황〉

개설구간	개설연월일	개설거리	소요시간
안변 ~ 흡곡	1929. 09. 11	31.4km	0시간 58분
흡곡 ~ 통천	1931. 07. 21	29.6km	0시간 32분
통천 ~ 두백	1932. 05. 21	14.7km	1시간 13분
두백 ~ 장전	1932. 08. 01	17.5km	0시간 35분
장전 ~ 외금강	1932. 09. 16	7.8km	0시간 19분
외금강 ~ 고성	1932. 11. 01	10.4km	0시간 33분
고성 ~ 간성	1935. 11. 01	39.3km	1시간 10분
간성 ~ 양양	1937. 12. 01	41.9km	1시간 25분

※ 이 자료는 1944.10.1. 개정된 양양(오전 04시 25분 출발)에서 안변간 상행선을 운행한 제774호 열차의 소요시간이다.

2. 양양역은 동해북부선 최남단 종착역이었다.

양양역이 개통되자 동해안 지역의 강릉, 삼척, 울진 등 양양 이남 사람들이 경성(서울)을 가려고 모여들었고, 금강산을 구경하러 가려는 사람들,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유학생 등으로 붐볐으며, 역사(驛舍:대합실) 주변에는 여관과 식당이 즐비했고 역 광장과 주변에는 항상 활기가 넘치는 장소가 되었다.

역 광장 앞의 현 7번국도(동해대로) 건너편에 위치하였던 당시 경찰주재소 옆에는 여러 동의 여관이 있었지만, 타지방에서 온 여행객들은 역 주변의 숙박시설이 모자라 양양읍내 여관에서 묵었다고 한다.

열차 운행은 오전 5시 양양역을 출발하는 첫 차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오후 4시, 오후 6시 등 하루 4차례 운행했었다.

당시 양양에서 생산된 목재도 양양역에서 반출되었으며, 양양광업소에서 채굴한 철광석은 기차에 실려 함경북도 청진제철소로 운송되었다 한다.

8 · 15 해방 후에도 철도는 북한 체제하에서도 계속 운행되었으며 6 · 25 한국전쟁으로 운행이 중단된 1950년까지 14년간 운행되어 오다가 양양역 역사(驛舍)를 비롯한 모든 철도 시설이 한국전쟁 당시 완전히 파괴되었다.

〈구간 운행요금〉

운행구간	운행거리	구 간 정차역	소요시간	운행요금	
				2등석	3등석
양양 ~ 원산	238.8 km	30역	7시간 35분	14원 50전	6원 50전
양양 ~ 안변	192.6 km	26역	6시간 35분	13원	6원
양양 ~ 간성	41.9 km	6역	1시간 25분	3원 30전	1원 50전

3. 양양역의 규모와 남아있는 자취들

1937년 12월 1일 개통된 동해북부선의 양양역은 현재 역사(驛舍:대합실), 플랫폼, 관리사무소, 철광석 집하장인 조구통, 어름창고 등은 아직도 기초 시멘트 구조물 등의 흔적이 남아있다.

양양역에 인접한 산(뱀째산)위에는 기차 운행당시에 사용하려던 약 140여 톤의 물을 저장 할 수 있는 물탱크시설은 아직도 원형 그대로 남아있고, 양양광산에서 철광석을 실어 나르던 삭도(속칭:솔개미차)시설 탑이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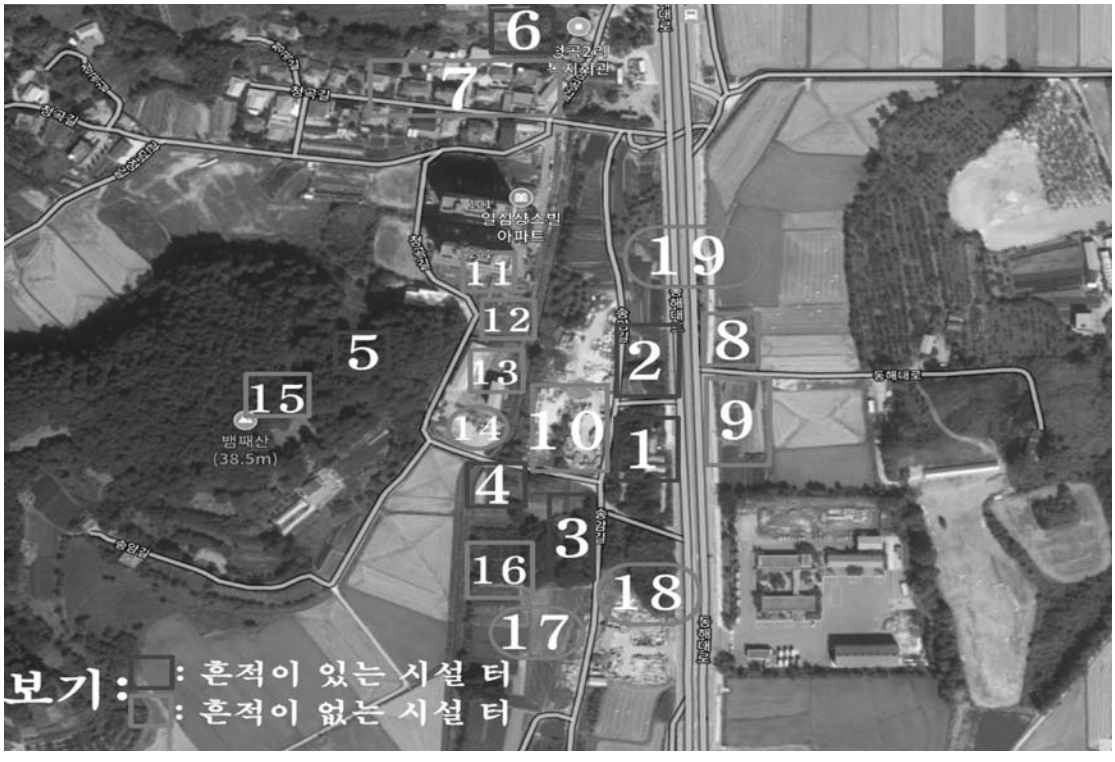
그 산 아래에는 삭도시설 사무소와 그리고 기차에서 온수를 사용하려고 물을 데우던 가마시설과 물을 용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탑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옆에는 우물이 있었다.

증기기관차에서 사용하는 석탄 야적장과 석탄재 하치장이 있었으며, 우차(牛車)로 운반되어 온 목재 야적장이 있었는데, 이때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솔 딱지(소나무 껍질)를 벗기려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으니 당시 서민 가정의 어려웠던 연료 사정을 짐작케 한다.

역내에 주요시설인 기관차를 수리 점검하는 기관고(機關庫)가 있었으며, 양양역이 종착역이므로 기관차의 앞뒤 방향을 돌리는 회전대가 있었다.

단층 건물로 지어져 있던 양양역에는 역장을 비롯하여 선로반, 기관부 직원 등 100여 명의 인원이 근무했고, 청곡2리에는 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택도 10여 동이 있었으며, 역 주변에는 여러 동의 창고가 있었다.

〈양양역 배치도〉



(1) 역사(驛舍:대합실) (2) 관리사무소 (3) 플랫폼 (4) 철광석조구통 (5) 물탱크
(6) 변전소 및 어름창고 (7) 사택 10동 (8) 경찰주재소 (9) 여관 3동 (10) 창고 여러동
(11) 삭도사무실 (12) 온수시설 (13) 급수탑 (14) 우물 (15) 삭도시설
(16) 기관고 (17) 기관차 돌리는 곳 (18) 석탄과 석탄재 야적장 (19) 목재야적장

〈양양역 시설물 흔적〉

플랫폼 흔적 (1)

플랫폼 흔적 (2)

물탱크 시설

물탱크 입구 계단

10월

양양의 사림사지(沙林寺址)에 얽힌 미천골(米川谷) 설화

양양군 서면 황이리 미천골에는 아주 넓은 사림사의 옛 절터가 있는데, 그 사림사의 창건, 규모, 폐사의 원인, 시기 등의 기록은 없으나 여지도서(輿地圖書)를 비롯한 여러 지리지와 고문헌에는 '사림사는 양양부 서쪽 30~70리에 있으며 사림사 내에 선림원이 있었으며, 그곳에 홍각선사비(弘覺禪師碑)가 있고 지금은 폐사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폐사된 유허지에는 삼층석탑(보물444호), 석등(보물445호), 홍각선사탑비(보물446호), 부도(보물447호)만 남아있으며 더 귀중한 자료는 1948년에 이 절터에서 출토된 사림사범종의 내부 기문이다.

〈사림사 범종의 내부 기문〉

『貞元廿年甲申 三月 廿三日 當寺鍾成內之古尸山郡仁近大乃末紫草里 施賜乎 古鍾金 二百八十廷 當寺古鍾金 二百廿廷, 此以本爲內 · · · · ·』

『정원이십년갑신 삼월 이십삼일 당사종성내지고시산군인근대내말자초리 시사호 고종금 이백팔십정 당사고종금 이백이십정, 차이본위내 · · · · ·』

〈사림사 범종 명문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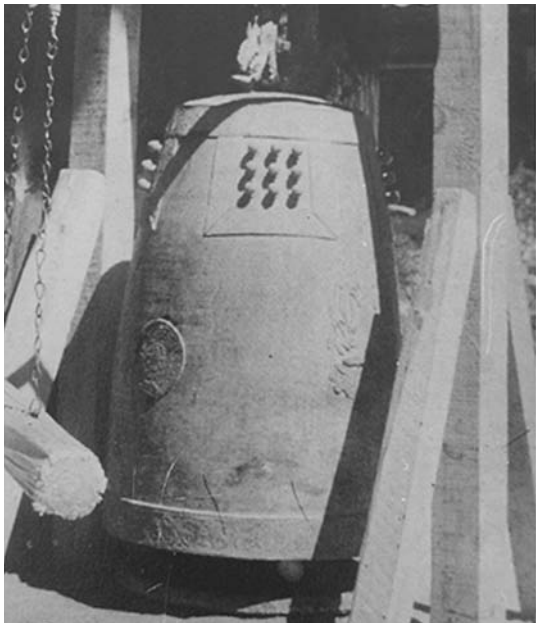
【번역】

『정원 20년 갑신(804) 3월 23일에 당사의 종이 이루어지다. 고시산군의 인근 대내말과 자초리가 시납하신 옛 종의 쇠 280정과 이 절의 옛 종의 쇠 220정, 이것으로 밑천을 삼고 · · · · ·』

미천골(米川谷) 사림사지(沙林寺址)

【부연/敷衍】

신라 애장왕 5년인 804년에 옛 종 쇠 280정과 당사의 옛 종 쇠 220정을 밑천으로 삼았다 하였으니 804년 이전 퍽 오래전에 사림사는 창건되었다라고 추정된다. 이 범종도 월정사에 옮겨졌다가 6 · 25한국전쟁으로 소실되어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사진으로밖에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 잔해는 현재 국립춘천박물관 한 곳에 전시되어 있다.



물탱크 시설정원이십년명 신라범종
(貞元廿年名 新羅梵鍾)

6 · 25전쟁으로 소실된 범종

파손된 문화재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으나 이 절에 얽힌 두 가지의 설화만은 영원히 구전으로 이어져오는데 우선 첫 번째 설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사림사가 있던 골을 미천골이라고 일컫는 설화

범종(梵鍾) 내부의 기문(記文)

사림사에서는 날마다 범종소리와 이천여 명 스님들의 독경소리가 미천골에서 일어나 설악산 남쪽 기슭에 메아리치는 불교의 성지였다. 당시 나라에서는 어찌나 스님들이 그렇게 많았으며 어떻게 이곳으로 향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모여졌는지 놀랐다. 이곳 산골 사람들은 스님들로부터 불교에 귀의하는 보람을 느끼는 반면 시달림도 산같이 높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 중 수원이 100 리나 되는 가장 긴 양양 남대천의 지류는 셋으로, 하나는 오대산에서 발원하는 본류와 다음 하나는 후천으로 구룡령에서 발원하는 서림천과 또 하나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발원하는 오색천으로 이 셋이 합류하여 큰 하천을 이루어 동해로 유입하는데 남대천의 하구를 항개목이라 부른다.

그런데 사림사에서 아침저녁에 스님들의 공양을 위하여 씻은 쌀뜨물이 사림사 절 계곡의 미천골에서 시작하여 서림천과 합류하여 70리 물길 따라 흘러 항개목 까지 부옇게 하루 두 번씩 물 들였다 한다.

몇 섬의 쌀을 씻었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의심스럽기는 하나 이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미천골 이라는 지명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것에 연유하여 사람들은 사림사가 있던 계곡을 이천여 명 스님의 공양미를 씻은 시내라는 뜻으로 미천골[米川谷]이라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이야기가 재미있게 전해진다.

이는 사림사의 옛 절의 규모도 헤아릴 수 있는 역사와 지리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설화이다.

11월

양양의 사림사지(沙林寺址)에 얽힌 두 번째 설화 (을사포락/乙巳浦落)

■ 沙林寺의 廢寺를 記錄으로 본 推定

① 동국대학교 문명대교수가 단장이 되어 1985년~1986년 2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사림사(선림원)의 금당(金堂)과 조사당(祖師堂)이 함께 매몰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禪林院本尊佛像問題와 石毘盧遮那佛像의 硏究 25쪽]한 바 있으나,

② 이에 대해 고려사를 중심으로 사찰의 창폐증축(創廢增築) 등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았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전거를 발견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정영호 전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장은 양양군지(702쪽) 불교 편 「선림원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 대조를 이룬다.

… "고려일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폐사된 후 다시 중창불사가 크게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다만 옛 석탑이 서 있고 석등, 석조부도, 석비 등 옛 사찰의 유적유물이 있으므로 승려들이 개인적인 수행도량을 짓고 등촉을 밝혔을 것이 아닌가 한다. 현지에서 수습되는 조선시대의 기와, 자기, 토기 등 여러 파편들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④ 1491년부터 매월당 김시습이 출가하여 양양에 다년간 기거하면서 사림사를 방문하여 사림사 비문을 확인하고 왕우군(왕희지)의 글자를 모아 쓴 것이라 하였으니 그 당시는 폐사되기 전이라 보아지며,

⑤ 양주읍지(襄州邑誌, 1823년)와 양양 현산지(襄陽 峴山誌, 1911년) 사찰 편에 사림사는 부 서쪽 40리 서림의 남쪽에 있는데 지금은 폐하여졌다.

기묘년(1819년/1759년) 6월에 서림 사람이 바위 낭떠러지에서 쇠 사발과 대나무 하나를 얻었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고 했다.

⑥ 1747년 양양부사 안경운(安慶運)이 홍각선사비의 잔편을 수습하여 부의 창고에 간직하였다는 기사[襄州邑誌 · 峴山誌의 古蹟조, 江原道誌의 碑版조]로 보아 1747년 이전에 당사가 폐사된 것이라 보아진다.

⑦ 1747년 이전 양양지방의 천재지변을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을 근간으로 검색한바 1605년(을사) 포락이 너무 혹심한 재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양양지방에 을사포락과 같이 지형을 바꾼 포락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므로 이때 산사태로 폐사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 沙林寺의 廢寺 설화

옛날 어느 해 여름날 천지를 분간할 수 없이 쏟아지는 폭우와 폭풍 속 어느 날 밤에 수많은 승려가 걱정스레 요사채에서 합장 불공을 드리고 있었는데, 경내 뜰에 대호(大虎) 한 마리가 나타나 들뛰면서 들볶으므로, 수장 스님께서 염불을 멈추게 하고서는 "대호가 저렇게 날뛰니 무슨 변고일까? 이는 예사가 아니요, 누구를 데려가려고 저러는 것이 분명하니 어찌하면 좋겠소?" 중의를 모으니 스님들 모두가 입을 맞춘 듯 "수장 스님부터 차례로 한 분씩 밖으로 나가 봅시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두려움을 무릅쓰고 스님들은 수장 스님부터 차례로 모두 나갔으나 대호는 여전히 들뛰며 볶아댄다.

이상히 여겨 인원을 점검하니 한 분의 스님이 보이지 않아 찾아본즉 요사채 주방에서 저녁을 마친 설거지를 하는 스님이 있어 나오라 하였다.

주방 담당 스님은 손도 닦지 않은 채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마당으로 나오니 대호는 순간 그 스님을 덥석 물고 휙 장대 같이 퍼붓는 빗줄기 속을 날아가듯 어둠 속을 가르는데, 지진인가 벼락인가 '쾅 우르르 광 쾅' 어두운 밤 산을 쪼개듯 부수듯 뒤흔들 드니 높은 뒷산이 절개되어 삽시간에 절간을 덮쳐버렸다고 한다.

【영혈사 주지 홍선 제공】

이렇게 하여 사림사는 사라졌는데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너무나 참혹하다.

「양양(襄陽)은 부내(府內)의 백여 호의 대 소 인가가 재산과 가축이 일시에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 형제 온 가족이 물에 빠지거나 산사태에 압사하여 여염거리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해변에는 시체가 즐비하게 쌓였다.」

「襄陽則府內百餘戶大小人家財畜, 一時漂沒, 溳死人物, 或父母子女, 或夫妻兄弟, 有全家淪溺者, 有沙汰　壓死者, 閭閻街路, 哭聲徹天, 濱海之間, 積斃相枕。」

【조선왕조실록 선조 38년 을사(1605) 7월 23일(을미) 기사】

이 설화에서 의문이 한 가지 생기는바 대호는 산이 무너지려는 천기(天機)를 알고 물고 간 스님을 살리려 한 것인가? 먹이로 한 것인가? 대호인가? 산신령인가? 신비스럽기만 설화가 전해진다.

사림사지(선림원지) 발굴현장 모습

2015.7.27일~2016.11.20일 까지 (재)한빛문화재연구소의 정밀발굴조사 모습.

승탑 옥개석 발굴

한빛문화재단 정밀발굴조사팀이 발굴한 옥개석 사진 뒤에 보이는 보물 제447호인 승탑(부도)은 당초에는 현 위치에서 뒤편으로 약 50여m의 산 중턱에 도괴된 채 산재한 부재들을 수습하여 1965년 기단부만 복원해 놓았었다.

따라서 이 승탑의 상층부를 덮고 있었던 옥개석은 사림사의 폐사동기가 된 산 사태당시 당초 승탑이 있었던 원 위치에서 약 80여m까지 떠밀려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38년 을사(1605) 7월 23일(을미) 기사

襄陽則府內百餘戶大小人家財畜, 一時漂沒,淹死人物, 或父母子女, 或夫妻兄弟, 有全家淪溺者, 有沙汰壓死者, 閭閻街路, 哭聲徹天, 濱海之間, 積斃相枕。

12월

양양 서면 수리에 도적사(道寂寺)가 있었다.

1. 도적사지(道寂寺址)의 현황

도적사는 양양군 서면 수리 절 골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寺址의 일대가 경작지와 묘지로 조성되어있다. 사지는 좌우에 능선이 둘러싸고 있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수로가 조성되어 있어 지형적으로 아늑한 자리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지의 남쪽 지역은 단을 이루고 있으며 조성된 경작지가 논으로 활용되고 있고, 북쪽 지역은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아 잡목들이 자리하고 있고 사지의 북쪽 능선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2개의 묘지가 좌우로 조성되어있다.

주민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봉분이 있는 자리에 원래에는 작은 규모의 법당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데 주변에는 많은 량의 기와편이 산재되어 있다.

〈도적사지 위치도〉

도적사지(道寂寺址)와 수리 마을 표기 위성지도

사지는 어느 시기에 경작지로 조성되면서 원래의 모습이 많이 변형된 상태이고, 사지의 지표상에는 건축부재로 활용된 석재와 기와 편과 자기편들이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어 비교적 큰 규모의 사찰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사지의 좌우 능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많은 량의 기와 편과 자기편이 확인되고 있어 경작지를 조성하면서 출토된 유물들이 다량 폐기 또는 유실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도적사의 역사

현재 양양의 도적사에 대한 연혁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해주는 기록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 도적사의 위치와 폐사 여부를 알려주는 기록이 전하는데, 조선 전기의 대표적 지리지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도적사는 정족산(鼎足山) 자락에 있으며, 정족산은 양양도호부에서 서남쪽으로 40리에 떨어진 지점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杞園集』 "기원선생연보"에 의하면 어유봉(魚有鳳:1672~1744)이 1692년 가을 처남이었던 홍유인(洪有人:1667~1694)과 함께 도적사에서 글을 읽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17세기 중후반경까지 도적사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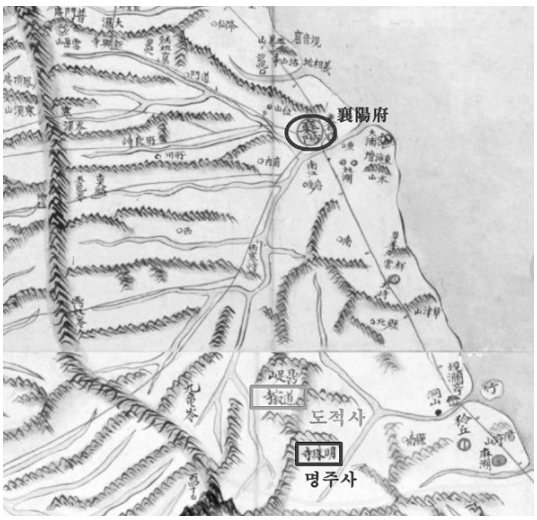
그런데 『輿地圖書』에는 도적사가 정족산 자락에 있었는데 폐사되었다고 기록되어있고, 『峴山誌』에도 부 남쪽 15리 수동(水洞)의 북쪽에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기록하면서, 숙종 16년(1690년) 경신에 화적(火賊)에 의해 겁탈 당한 바가 있어 중들이 모두 슬퍼하여 흩어졌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조선 영조(재위 1724~1776)때의 유학자인 신경준(申景濬: 1712~1781) 이 찬술한 『伽藍考』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1799년에 편찬된 『梵宇攷』에는 도적사가 정족산에 있다고만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정족산 자락에 있었던 도적사는 창건이후 사찰로써의 기능을 유지되다가 조선 후기인 17세기 말이나 18세기에 들어와 폐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적사와 명주사 표기 고지도〉

도적사가 표기되어있는 대동여지도



도적사가 표기되어있는 동여도

위와 같이 조선시대의 중요 지리지에 도적사가 전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양지역에서 중요한 사찰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3. 도적사지 출토 유물

도적사의 연혁을 알려주는 다수의 유물들이 수습되었는데, 고려시대에 건립된 청석탑재(靑石塔材)를 비롯하여 건물에 활용되었던 석재, 기와편,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고,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 편, 조선 후기의 기와편과 백자편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부도(浮屠) 부재로 보이는 6각형 대석과 옥개석, 확석 등이 수습되었는데, 이 석조 유물들은 청석탑 상층부와 함께 현재 양양문화원에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도적사와 관련된 기록과 사지에 유존(有存)되고 있는 유적 유물로 보아 도적사는 불교가 크게 성행했던 고려시대에 창건되어 꾸준하게 법등이 밝혀지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의 기조로 불교계가 크게 위축되었지만 도적사는 폐사되지 않고 법등을 이어갔다.

그러나 도적사는 오래가지 못하고 17세기 말이나 18세기 대에 들어와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적사지 출토 유물〉

범어(梵語:고대인도 표준문장어)가 새겨져있는 고려시대 청석탑 상층부분

부도(浮屠) 부재(浮材)로 추정되는 육각형 대석(중간석)과 옥개석. 그리고 확석 2개

제5회 전국한시백일장
(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제4회 전국한시백일장(三一運動一百周年有感) 입선시

入選詩

壯元

青江 尹 元 燮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4길 3, 301호

願東海神廟聖域化

懇願神祠聖域辰　동해신사 성역화 필때를 간절히 원하나니
回看往事感懷新　지난일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구나

復元史跡歡千户　사적을 복원시킴은 천호에서 환영하고
登錄文財讚四隣　문화재로 등록시킴은 사린이 찬성한다오

齋室廢墟蓬艾茂　재실 폐허에는 쑥만 무성하고
典廳殘礎蘚苔均　전사청 남은 주춧돌엔 이끼만 고르게 있구나

兩分碣石悲哀恨　비석을 둘로 짜른 슬픈 한을
早速施工正氣伸　조속히 시공하여 정기를 펴세

次上

夷山 李 鏞 玉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23길 36의 1

願東海神廟聖域化

海神廟設昔何辰　동해신묘 세운지 옛날 어느때인가
史蹟當然復舊新　사적으로 당연히 새롭게 복구하라

弘報傳單全市道　전단지로 모든 시도에 홍보하고
周知趣旨各鄉隣　취지를 각 고을에 두루 알리라

祭儀保護關心篤　제의보호에 관심을 독실히 하고
文化宣揚認識均　문화를 선양함에 인식을 고르게 하라

聖域造成祈願裡　성역조성을 기원하는 가운데
國家行事必須伸　국가 행사로 반드시 펼쳐라

次上

願東海神廟聖域化

白齋 李 淙 榮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00,
코오롱하늘채 202동 905호

東海神祠詳考辰　동해산사를 상고 해보는때
春秋致祭蹟猶新　춘추로 치제하여 자취가 오히려 새롭네

分明往事惟傳史　분명한 지난일은 오직 역사에 전하고
不泯遺風可化隣　꺼지지 않은 유풍은 가히 이웃을 선화하리

弘報靈區多日盡　영구를 홍보함에 많은 날들 지났으니
共稱聖域四民均　함께성역으로 칭함이 온국민 고루하네

必然所願能成後　반듯이 소원이 성취한 뒤에
市勢繁昌大有伸　시제는 번창하여 크게 펼수 있으리라

次下

願東海神廟聖域化

荷園 姜 鉉 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2번길 54,
푸른마을 삼성A 104동 606호

東海神祠迂幾辰　동해신묘가 몇날을 맞이했던가?
襄陽主管感尤新　양양군이 주로 관리하니 느낌이 더욱 새롭구나.

復元此日歡千户　복원한 지금은 천호가 기뻐하고
毁撤當時痛四隣　훼철한 당시에는 사방이 슬퍼했도다.

典禮莊嚴傳世赫　전례는 장엄하여 세상에 전하니 빛나고
祭儀端雅化民均　제의는 단아하여 고르게 백성을 교화하구나.

地成聖域人皆望　옛터 성역화를 만인 모두 원하고
政府傾心宿願伸　정부가 마음을 기울이니 숙원을 펴게되리라

次下

梧田 金 榮 弼
경상북도 영주시 지천로 46 휴천현대A 107-602

願東海神廟聖域化

東海神祠聖域辰　동해 신사를 성역화할때에
儒林慶祝感懷新　유림 경축하며 감회가 새롭네

鄕民盡力謀鴻業　향민들은 진력하여 홍업을 꾀했고
政府傾心結好隣　정심한 정부는 좋은 이웃을 맺었네

祭址維持傳播遠　제사터를 유지하여 전파를 멀리하였고
記碑保守熟知均　기념비를 보수하여 고루 숙지하네

各層各界尤支援　각층각**계에** 더욱 지원하고
賴此文財指定伸　이에 힘입어 문화재로 지정을 펼치리라

次下

玄庵 金 振 泰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3가길 14

願東海神廟聖域化

東海神祠聖域辰　동해 신사**를** 성역화 할 때에
宣揚史跡感懷新　사적 선양에 감회가 새롭네

重修境內呈靈氣　경내을 중수하여 영기를 드리우고
整備周邊接善隣　주**변**도 정비하니 선린을 접하도다

老少同參傾力篤　노소가 동참에 경력이 돈독하고
官民共助盡誠均　관민이 공조로 진성이 고루했네

文財指定登名願　문재지정을 등명 간원하니
賴此襄陽旺運伸　이에 힘입어 양양에 왕운이 끝없이 펼치리라

參榜

願東海神廟聖域化

錦坡 高 柄 德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76다길 4-10

東海神祠再建辰 동해의 신사 재건을 할 때
象徵文化復元新 상징의 문화 복원으로 새로워 질것이네

史明考證須千載 사명으로 모름직이 천년을 고증했고
記錄周知已四隣 기록으로 이미 사린이 주지 했네

善俗相和安世亘 상화의 선속으로서 안세가 뻗을 것이고
遺風自助佑天均 자조의 유풍으로서 우천이 고를 것이네

異稱國際瀛名亂 이칭의 국제적으로 명명이 난립한 현실에
願一靈區兆朕伸 원일의 영구로서 조심이 영원이 누릴 것이네

參榜

願東海神廟聖域化

黑巖 權 燦 喜
대구시 달서구 와룡로2길 46-3

襄陽神廟復元辰 양양 땅에 신묘를 복원한때에
毁撤茂申冤痛新 무신년 훼철당시 원통함이 새롭게 떠오르네

當局傾心謀策在 당국은 마음을 다해 좋은 모책이 있어야하고
鄕民盡力計圖隣 향민은 이웃과 힘을 합쳐 새로운 계책이 있어야 하네

山崩海渴長餘蹟 산이 무너지고 해갈이다 되어도 아름다운 자취는 길이 남아있고
歲久人亡永有均 세월이 오래되어 사람이다 망해도 옳은 것은 영원하다네

聖域周邊天惠地 성역터 주변에는 천혜의 땅이니
春秋祭享四方伸 봄, 가을로 제향을 올리시니 그향기 사방으로 펼쳐진다네

參榜

又泉 金 炅 旭
광주광역시 동구 중흥로 213번길 16-8

願東海神廟聖域化

造成東廟問何辰　동해 라는 이 신묘가 어느때에 새겼든고
回顧當時感慨新　그 당시를 회고하며 새론 감상 느꼈도다

施設彬彬依海岸　아름다운 그의 시설 해안 가를 장식하고
規模鬱鬱振鄉隣　그지없는 그의 규모 한 고을을 빛 냈도다

官民共助關心厚　관과 민이 공조하여 많은 관심 가지었고
老少同參協力均　여러 노소 동참하여 고른 협력 하였도다

如許名區誰不仰　이와 같은 좋은 곳을 어느 누가 싫어 할고
惟希復舊永年伸　옛날 원형 복원하여 그지없이 발전하길

參榜

桂堂 金 慶 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길 12

願東海神廟聖域化

襄陽文化燦然辰　양양문화가 찬연하는 날
東海神堂瑞色新　동해신묘의 서색이 새롭구나

境界修粧明里巷　경계를 수장하니 이항이 밝아지고
周邊整備耀鄉隣　주변을 정비하니 향린이 빛나리

典儀再起三綱赫　전의를 재기하면 삼강이 빛나고
祭禮傳承五敎均　제례를 전승하면 오교가 고르리

史蹟千年望聖域　천년 사적의 성역화를 바라면서
安康歲月願長伸　안강 세월이 오래 펴기를 원하네

參榜

峴泉 金 悳 柱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15

願東海神廟聖域化

東海神堂聖域辰　동해신사당을 성역화할 때에
宣揚史蹟感懷新　사적을 선양하니 감회가 새롭네

修粧境內祥三界　경내를 단장하니 삼계가 상서롭고
整備周邊慶四隣　주변을 정비하니 사린의 경사로다.

祭禮傳承天祿厚　제례를 전승하니 천록이 후하고
典儀再起地恩均　전의가 재기되니 지은도 고르리

風調雨順漁農活　비바람이 순조로워 어업 · 농업 살아나고
佳氣氤氳滿遍伸　천지의 곱고 맑은 기가 두루미쳐 퍼지리

參榜

小岩 朴 在 奎
강원도 삼척시 월계길 33-17

願東海神廟聖域化

襄陽神廟復元辰　양양 신묘가 복원되는 때에는
東海名稱莫論新　동해에 명칭을 새로 말하지 마시라

察使焚香河伯位　강원도 관찰사는 물신위 앞에서 분향하고
國家享祀洛山隣　국가에서는 낙산사 이웃에서 제사 올립니다.

同參八縣良風振　여덟고을 동참하여 양풍을 떨치셨고
共助千年美俗均　천년을 공조하면서 미속이 유지했도다

聖域化成誰不願　성역화 이루기를 어느 누가 원하지 않으리요
燦然史蹟闡明伸　찬란한 문화사적을 천명해서 펼칩시다.

參榜

孟泉 昇 萬 石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4길 26, 덕천상가A 103호 진우인쇄사

願東海神廟聖域化

千年神廟復元辰 천년 동해신묘를 복원할때에
推進文財感益新 국가문화재로 추진하니 감회가 더욱 새롭구나

齋殿重修誇里巷 재전을 중수하니 이항의 자랑이요
遺墟淨化慶鄕隣 유허를 정화하니 향린의 경사로다

祭儀再現天心得 제의를 재현함으로 천심을 얻을 것이요
典禮遵行地氣均 전례를 준행함으로 지기가 고르리다

聖域造成遄實踐 성역조성을 하루 빨리 실천하여
襄陽昌盛萬邦伸 창성하는 양양을 만방으로 펼쳐보세

參榜

靑巖 李 東 仁
경북 포항시 북구 학전로 35, 청운우방 101동 1801호

願東海神廟聖域化

襄陽神廟論難辰 양양의 신묘를 논의할 때
聖域浮揚意義新 성역으로 부양함에 그뜻이 새롭도다

必有周邊承善俗 반드시 주변에는 선속이 이어질 것이고
應看境內接芳隣 틀림없이 경내에서는 방린을 접하리라

官民共助傾誠務 관민이 공조하여 경성에 힘쓰고
老少同參盡力均 노소가 동참하여 진력에 고루하네

登載文財成事際 문화재 등재가 이루어질 때
名稱東海萬邦伸 동해의 명칭은 만방에 펼쳐지리

參榜

松巖 李 仁 胎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22

願東海神廟聖域化

望儒祭址復元辰 유림이 바라는 제지를 복원하려 할 때
倭敵野蠻浮刻新 왜적의 야만이 새롭게 부각되도다

東海神祠傷碣伴 동해신묘는 수리한 비석과 짝하고
襄陽史蹟茂松隣 양양의 사적지는 무성한 송림을 이웃하네

萬民幸福霑恩篤 만민이 행복하게 은택 입음이 도탑고
百姓平安被德均 백성이 평안하게 덕을 입음이 고르다

國定文財登錄願 나라가 지정하는 문화재로 등록을 원하며
前途聖域自矜伸 전 도 성역화에 스스로 긍지를 펴도다

參榜

錦絅 李 昌 京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 19번길 14-35 영남맨션 102호

願東海神廟聖域化

東海神祠復舊辰 동해의 신사(신묘)를 복구 할때에
願爲聖域造成新 성역으로 조성하여 새롭게 하기를 원하도다

雪山崔嵬遐圍帳 설악산은 우뚝히 높아서 저멀리 장막을 둘렀고
洛寺幽閑近接隣 낙사사는 그윽하고 조용하여 가까이 이웃을 접하였네

從古諸人崇拜篤 예로쫓아 모든 사람들이 높이어 공경함이 돈독하였고
至今多士信憑均 지금에도 많은 선비들이 믿고 의지함이 고르네.

官民協力終工役 관청과 백성이 힘을 합하여 공사를 마친다면
賴此襄陽活氣伸 이에 힘입어서 양양이 활발한 기운이 펴지리라

佳作

願東海神廟聖域化

石潭 金 吉 壽

강원도 동해시 대학로 31, 5동 201호

神廟襄陽聖域辰　동해신묘를 양양에서 성역화하는때
吾邦大本復興新　우리나라 큰 근본이 부흥함이 새롭네

官民協力揚千里　관민의 협력은 천리에 선양되고
老少同參振萬隣　노소 동참은 만린이 떨치네

天下長傳祥氣滿　천하장전하니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고
世間不絶瑞光均　세간불절하니 서광이 고르도다

文財管理傾誠裏　문화재관리에 정성을 기우리는 속에
永願前程旺運伸　앞날에 왕성한 운이 펼치기를 원하네

佳作

願東海神廟聖域化

泰山 金 相 泰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496-7, 3층

襄陽神廟照明辰　양양신묘가 조명을 받고 있는때에
東海名稱八域新　동해의 명칭이 팔역에 새로우리

史蹟復元祈樂世　사적의 복원으로 낙세를 기원하고
遺墟再健願芳隣　유허의 재건으로 방린을 원하도다

風調雨順千家洽　우순풍로 하여 천가가 흡족하고
國泰民安萬户均　국태가 민안하니 만호가 고르리라

聖域化望期必達　성역화의 희망을 반드시 이루어서
文財登載自矜伸　문화재 등재로 우리의 자랑을 펼치리

佳作

洛山 金 秀 東
상주시 신봉 학마루1길 29-12, 세영A 101동 704호

願東海神廟聖域化

千年神廟復元辰 천년의 신묘를 복원할 때에
舊址生光瑞日新 구지에 생광하여 서일이 새롭도다

境內治粧歡四界 경내를 치장하니 사계가 기뻐하고
周邊整備樂三隣 주변을 정비하니 삼린이 즐거워하네

官民共助傾誠務 관민이 공조하여 성의를 기울이고
老少同參竭力均 노소가 동참하여 힘을 다 하도다

擧族專心推進願 온겨레 전심하여 추진을 원하니
襄陽文化懇望伸 양양의 문화 펴기를 간망하도다

佳作

韶山 金 樹 晩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81-9

願東海神廟聖域化

聖域神堂推進辰 신당의 성역화를 추진할 때
襄陽文化復興新 양양의 문화가 새롭게 부흥하리

保存史蹟揚千載 사적 보존은 천재를 들래고
守護遺墟振四隣 유허수호는 사린에 떨치네

奉祭傳來蒙惠澤 봉제 전래에 혜택을 입었고
藉田踏襲被恩均 답습한 적전에 은혜를 고루 입었네

焚香峻命誠心盡 왕명으로 분양을 성심을 다하고
國泰民安懇願伸 국태민안을 간절히 원하네

佳作

石山 金 時 元
강원도 강릉시 중기1길 13, 석산빌딩 2층

願東海神廟聖域化

東海神壇聖域辰　동해 신묘도 변화할 때인데
竭誠實踐願登新　성의를 다하여 성역화되어 새로워지길 원하네

鄕民盡力圖謀席　향민들은 진력하여 도모하는 자리요
官府傾心計劃隣　관원과 시부에서는 마음을 기울여 계획 짜는 곳일세

施物優良弘報續　시설물 우량하고 홍보를 잘하여야 하고
住車完備啓蒙均　주차장도 완비되었다고 계몽을 잘해야되네

從斯必是成功後　이로써 반드시 성공된 뒤에
地位高揚大意伸　이 고장 지위가 고양되어 큰 뜻을 이루리라

佳作

德山 金 玉 衡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종지목길7, 힐탑A 109호

願東海神廟聖域化

廟陞聖域總望辰　묘가 성역에 오르길 모도 바랄적에
文化襄陽日益新　양양이 날로 더욱 새롭더라

天下靈區開正殿　천하영구에 정전을 열었고
海邊秘景定賢隣　해변비경에 현인을 정했더라

四方共助堯時赫　사방이 함께 도우니 요임금시절 처럼 빛나고
各處同參舜世均　각처가 함께 참석하니 순임금 세월 처럼 고루하였네

設置神壇誠致祭　신단을 설치하여 정성으로 치제하다
民安國泰永承伸　민안국태를 기리 이어 펴리라.

佳作

農軒 金 元 植
강원도 강릉시 난곡행정길 23

願東海神廟聖域化

東海神祠聖域辰　동해신사를 성역하는 때
周邊景槪慶祥新　주변 경개가 경사 스로운 징조 새로와지네

朓看萬里滄瀛接　멀리보는 만리에 동해바다를접했고
繼受千年洛寺隣　이어받은 천년에 낙산사를 이웃했네

昭察乾坤流疫防　소찰건곤에 전념병을 막고
靈通日月作風均　영통일월에 풍년이 고르네

願祈國泰民安事　원하건대 국태민안의 일을 버는데
文化昇華世世伸　문화로 승화하여 세세에 펴네

佳作

三浦 金 恩 斗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98, 101동 202호

願東海神廟聖域化

襄陽宿願懇望辰　양양의 숙원을 간절히 바라니
神廟周邊瑞色新　신묘 주변에 서색이 새롭네

東海祠堂全國本　동해 사당은 전국의 표본이요
靑峰峻嶺碧空隣　대청봉 준령은 벽공의 이웃이라

設壇致祭三韓盛　설단 치제하니 삼한이 융성하고
立石焚香萬福均　입석 분향하니 만복이 균일하네

協力官民團結裡　협력하는 관민의 단결속에
完成聖域太平伸　성역화 완성되면 태평성대 펼쳐지리

佳作

願東海神廟聖域化

三汀 柳 明 善
전남 고흥군 고흥읍 터미널길 10,
법무사 류명선 사무소

懇望神廟復元辰　神廟를 復元함을 간절히 바라노니
致祭斯鄕感慨新　致祭斯鄕에 感慨가 새롭다

王政順調能靖國　王政은 순조로와 능히 나라를 다스리고
人心淳厚亦和隣　人心은 淳厚하여 또한 이웃을 화하다

江山必是風雲合　江山에는 반드시 風雲이 합해지고
郊野無非雨露均　들에는 雨露의 均함이 있다.

從此襄陽成聖域　이로부터 양양에 聖域을 이루면
韓邦東海萬方伸　한방동해가 만방에 펼쳐질 것이다.

佳作

願東海神廟聖域化

閑雲 朴 英 姬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123, 주공A
101동 103호

神廟復元推進辰　동해신묘 복원을 추진하며
繼承傳統照明新　전통계승을 새롭게 비춰보네

獻香蔭德施千里　한양에서 천리길을 헌향관리 내려오고
致祭精誠與四隣　치제드리는 정성은 동해안 군현 모두했네

佳景襄陽天下絶　양양의 멋진 경치는 천하에 빼어나고
高名東海世中均　고명한 동해명칭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네

民安國泰冀望處　국태민안 소원비는 곳인데
聖域化謀全力伸　성역화 계획을 이루기를 전력을 펴자

佳作

文齋 朴 和 植
경북 청도군 이서면 행정명곡길 9-4

願東海神廟聖域化

東海神祠聖化辰 동해신사를 성화할 때
祭儀傳統繼承新 제의 전통을 계승함이 새롭구나

輝煌史蹟宣揚地 휘황한 사적을 선양하는 곳이요
燦爛遺墟振作隣 찬란한 유허를 진작하는 이웃이라

國泰民安祥運旺 국태민안의 상운이 왕성하고
風調雨順瑞光均 풍조우순의 서광이 고르네

完全復舊希求裏 완전한 복구를 희구하며
發展襄陽萬世伸 양양 발전이 만세토록 이어지네

佳作

華谷 徐 東 雲
울산시 남구 거마로 98번길 20-20, 아름A 307호

願東海神廟聖域化

襄陽神廟復元辰 양양신묘를 복원하여(하면)
祭禮昇華發展新 제례를 승화시켜 새롭게 발전시키면

國泰民安祈願處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곳이요
風調雨順所望隣 풍조우순(태평성대)를 이웃과 소망할 것이다.

綱常自是終成美 강상은 이로부터 마침내 이루어 아름답고
道學從今漸化均 도학은 지금부터 점점 교화되어 고르게 될 것이다.

世界萬邦東海認 세계만방에 동해를 알게 할 것이고
千年聖域不窮伸 천년 성역은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佳作

願東海神廟聖域化

青岡 安 永 仁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로 53

神祠聖域企圖辰　신묘의 성역화를 기도할 때에
盡力官民感慨新　진력 관민은 감개가 새롭네

事業施行孜擧郡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군적으로 힘쓰고
工程進陟協諸隣　공정을 진척하는데 모든 이웃이 협력하세

豊漁處處蒙恩洽　풍어의 곳곳마다 은혜를 입어 흡족했고
熟歲家家被德均　풍년의 집집마다 덕을 입음이 골랐네

指定文財登錄裡　문화재로 지정하여 등록하는 가운데
傳來祭典願長伸　전래하는 제사의식을 길이 펴길 원하내

佳作

願東海神廟聖域化

巨松 李 潤 善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8, 현대A 102동 305호

東海神祠復舊辰　동해 신사당을 복원할때에
將成聖域感懷新　장차 성역을 이루리니 감회가 새로워라

從茲境內鍾靈氣　이에 따라서 경내는 영기로 모일 것이요
由此周邊接善隣　이로 말미암아 주변이 선린으로 접하겠네

老少同參傾力篤　노소가 동참하여 돈독한 힘을 기우리고
官民共助盡誠均　관민이 공조하여 고루 정성을 다하네

保存史蹟流芳事　사적을 보존함은 아름다운 일이니
大業完時旺運伸　큰 사업 완수할 때에 왕성한 운수 펼치리라.

佳作

錦靖堂 李 壬 出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51길 7

願東海神廟聖域化

神祠聖域復元辰　신사를 복원하여 성역화 한다면
傳統保存良俗新　전통을 보존하니 양속이 새롭도다.

致祭盡誠安國土　정성 다한 치제는 국토가 평안하고
焚香具禮共鄕隣　예를 갖춰 분향하니 이웃사람 함께하네.

田中擊壤千年續　밭에는 격양소리 천년을 이어가고
水上豊漁萬里均　물우에는 풍어가 만리에 고루구나.

東海名稱明世界　동해의 명칭을 세계에 밝히고
襄陽民願太平伸　양양백성 모두 다 태평하길 바라노라.

佳作

榮山 李 在 敎
부산시 금정구 학산로 21번길 15, 송림 1002호

願東海神廟聖域化

東海神祠聖化辰　동해신묘를 성역화 할 때
文財指定感懷新　문화재를 지정하니 감회가 새롭네

歡聲遠播連千里　환성은 원파하여 천리에 연했고
賀語長傳振四隣　하어가 장전하여 사린에 울리네

正殿規模優雅秀　정전규모는 우아하게 빼어나고
紀碑面貌莊嚴均　증수기사비는 면묘가 장엄하게 고로했네

保存管理傾誠裡　보존관리를 경성한 속에
國泰民安願永伸　국태민안 하기를 영원히 오래하기를 원하네

佳作

李 台 斗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605, 보성타운 106동 902호

願東海神廟聖域化

神祠聖域願希辰　신묘의 성역화를 바라고 원할 때
考證完全築造新　고증하여 완전하게 새롭게 축조한다.

史蹟復元矜市郡　사적지를 복원하면 시군의 자랑이고
祭壇整備慶鄕隣　제단을 정비하면 향린의 경사가 될 것이다

同參老少傾誠務　노소가 동참하여 정성기울려 힘쓰고
共助官民竭力均　관민이 공조하여 고루 힘을 다한다

登錄文財承美俗　문화재로 등록하고 미풍양속을 이어가면
古來東海萬邦伸　자고이래 동해를 만방에 펼 것이다

佳作

樂堂 張 大 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13번길 9, 대명3차 가동 107호

願東海神廟聖域化

東海神祠聖域辰　동해 신사 성역시에
邦家守護日尤新　방가 수호가 날로 더욱 새롭더라

三韓共樂尋良策　삼한이 함께 즐길 양책을 찾고
八道相通結好隣　팔도가 새로 통한 좋은 이웃 맺네

國泰民安施德普　국태민안의 덕을 넓게 베풀고
風調雨順布恩均　우순 풍조의 은혜를 고루 펴리라

復元事業完成後　복원 사업 완성 후에
名譽襄陽萬世伸　양양의 명예를 만세로 펴리

佳作

白松 張 文 植
경북 상주시 중앙로 178-14, 그린맨션 A동 501호

願東海神廟聖域化

神廟擴張推進辰 신묘의 확장을 추진하는 때
將成聖域感尤新 장차성역을 이루려니 감회가 더욱 새롭다.

從茲境內開仁里 이를 쫓아 경내에 착하마을 열리고,
由此周邊接善隣 이로인하여 주변에 좋은 이웃 연접하네

祭禮傳承傾力篤 제단을 전승함에 힘을 기울이고,
文風振作盡誠均 문풍을 진작함에 정성을 고루했네.

官民協助竣工後 관민이 협조하여 준공한 후에
賴及斯鄕所願伸 이고을 힘입어 소원을 펴리라.

佳作

晴江 張 炳 國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산정길 17

願東海神廟聖域化

復元神廟願祈辰 신묘를 복원하기를 모두가 기원하는때
聖域化成尤日新 성역화를 이루면 날로 더욱 새로워 지리라

致祭民安能舜世 민안토록 치제하면 순세를 능히 따를 것이라
焚香國泰就堯隣 국태토록 분향제 올리면 요와 이웃하여 나아가리라

鄕人盡力圖謀遂 향인들이 진력하여 도모함을 이루고
當局傾誠計劃均 당국이 경성하여 계획을 균형을 가추세

東海名稱銘腦裡 동해라는 명칭을 뇌리에 새기게하여
列强傳播認知伸 세계만방에 전하는데 인지를 널리펴세

佳作

水亭 張 宰 榮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69길 15 서한A 101동 1301호

願東海神廟聖域化

神廟復元推進辰　신묘복원을 추진하는 때에
追思事記感懷新　사기를 돌이켜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네

所望國泰謀仁世　국태를 소망하여 어진 세상을 꾀하고
祈願民安勸善隣　민안을 기원하며 선린을 권하네

史蹟保存弘報廣　사적 보존에 홍보를 널리하고
文財指定啓蒙均　문화재에 지정토록 계몽을 골고루 하세

遺墟聖域當然造　유허가 성역화 되도록 당연히 조성하여
東海名稱萬歲伸　동해 명칭이 만세에 펼치세

佳作

素蓮 鄭 娟 均
서울 송파구 양산로 8길 9(거여동)

願東海神廟聖域化

復元神廟進行辰　동해신묘 복원사업을 추진할 때
祝願騷人感慨新　축원하는 소인 감개가 새로우리!

必有儒林謀聖域　반드시 유림은 성역화를 도모해야 하고
應知政府作芳隣　응당 정부는 알아서 방린을 조성하니

光陰不變風雲會　광음은 변함없이 상서의 풍운을 모으고
天地無私雨露均　천지는 사심없이 은택의 우로를 고르게 펴네!

代役成功同樂裏　성역화 큰일 성공함께 즐기는 속에
千年東海自矜伸　천년동해의 자긍심을 펴리라!

佳作

願東海神廟聖域化

牛耕 鄭 鉉 培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110 우성A 101-801호

襄陽神廟復元辰 양양신묘복원 할때에는
聖域圖謀感興新 성역도모하니 흥취가 새롭다

推進原形垂範處 추진하는 원형수범 처에
完全建築協心隣 완전 건축 협심하는 이웃이로다

傳承祭禮傾誠務 제례 전승에 경성으로 힘쓰고
再現仁風竭力均 인풍재현에 갈력이 고르다

擧國詞林咸祝願 온나라 사람들이 함께 축원하며
文明社會所望伸 문명사회를 소망을 펴보리라

佳作

願東海神廟聖域化

虛中 曺 圭 島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2길 60호

神祠聖域願成辰 신사가 성역화 이루워지기 바라는 때에
千歲傳承價值新 천년전승이라 가치가 새롭다

郡守先鋒同擧族 군수가 선봉이되니 거족이 같이하고
選良後援共全隣 의회(군의회)가 후원하니 전린이 함께 할 것이다.

風調雨順三韓續 우순풍조가 삼한에 이어질 것이요
國泰民安八道均 국태민안은 팔도에 고를 것이다.

朝野協心傾總力 관리와 민간이 협심하여 총력을 기울이면
文財登錄所望伸 문화재로 등록이 되고 소망을 펼치게 되리라

佳作

素南 趙 能 來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67길 8-1

願東海神廟聖域化

東海神祠聖域辰 동해 신사당이 성역화 이루어질 때에는
願成復舊貌形新 복구가 소원성취되면 모형은 새로워지라

春秋致祭謨平國 나라가 태평성대 이루어지기를 춘추로 치제하고
今古傳儀導善隣 좋은 이웃을 선도하기 위하여 예나 지금이나
전통예의 행하다

雨濕斷碑彰史蹟 비에 젖은 잘라진 비석에는 옛 자취가 드러나고
烟埋荒址接靈均 안개묻힌 옛터에는 신령스러움 고르게 접했네

官民盡力皆祈福 관민이 힘을 다하고 모두 복을 빌면은
期必農漁旺運伸 기필코 농업 어업은 왕성한 운을 펼치리라.

佳作

瑞岩 趙 義 鎬
서울 강북구 월계로 13길 18

願東海神廟聖域化

東海神祠聖域辰 동해 신사 성역화 할때
千年文化復元新 천년문화 복원이 새로워지길

金剛脊柱松林境 금강의 척주로 송림의 경계이고
半島心腸雪嶽隣 반도의 심장으로 설악을 이웃했네

禮俗從今情誼篤 례의 풍속 지금을 따라 정의 도타웁고
儒豊自是德威均 선비의 풍류 이로부터 더위가 고루웠네

完工史蹟惟祈願 사적완공하길 오직 기원 하노니
傳統昇華永世伸 전통을 승화시켜 영세이 펴시길

佳作

願東海神廟聖域化

東溪 崔 炯 澈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 노곡1길 99

東海神祠聖域辰　동해 신사당이 성역화될때에
襄陽祭享日尤新　양양에 제사 행사는 날로 더욱 새로워지네

官民共助千年史　관민은 천년 역사에 공조하셨고
老少同參八縣隣　노소는 팔현을 이웃해서 동참했도다

每願風調家富裕　매액풍조해서 집이 부유하길 소원했고
恒望雨順穀豊均　항상 우순해서 곡식이 고루 풍년 되길 바라네

文財指定昇華事　문화재로 지정해서 승화시킬 일이므로
必是無窮發展伸　반드시 무궁한 발전을 펼칠 것입니다.

佳作

願東海神廟聖域化

許 銀 鳳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407번길 8-2

東海神祠問幾辰　동해신묘는 물노니 몇 때인가
千年舊蹟復元新　천년의 옛자취 복원하여 새롭게하세

蒼溟廣濶開靈境　푸른 바다 광활하니 령경을 열었고
翠岳崢嶸作好隣　푸른 설악 높고 높으니 좋은 이웃지었도다

家國郊天時運篤　가국을 하늘에 제사하니 시운이 돈독하고
漁農禮廟歲豊均　어농을 예묘하니 해마다 풍년 고루하네

自然信仰誠深處　자연의 신앙 정성이 깊인 곳에
聖域雄基大業伸　성역의 큰터에 대립을 펼치도다

佳作

鶴皐 黃 龍 坤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학3길 4

願東海神廟聖域化

襄陽神廟漸虧辰　양양신묘점점 이지르 지는때
考證原形面貌新　원형을 고정하여 면모를 새롭게 함이라

盡力復元同槿域　복원에 온 나라가 같이 진력하고
傾心整備共鄕隣　정비에 향린이 함께 경심해야하네

風調雨順千秋續　풍조우순이 천추를 이었고
國泰民安萬世均　국태민안이 만세에 균형했네

指定文財完保護　문화재로 지정하여 완전하게 보호하고
海洋祭禮摠誠伸　해양 제례 모두가 정성을 펴야하네

佳作

石井 黃 在 權
강원도 속초시 장안로 1길 18호

願東海神廟聖域化

東海神祠復舊辰　동해신묘 성역으로 복구함에 즈음하여
諸儒慶祝感懷新　모든 유림 경축하니 감회함이 새롭구려

民官共助連仁里　관과민이 공조하여 어진마을 연이였고
老少同參接善隣　노와소가 동참하니 사이좋게 접했구려

王祖創開天德被　왕건대왕 창업으로 하느님덕 업었섰고
李祖承繼地恩均　이씨 조선 이어받아 땅의 은혜 고루 했네

願希大役完成後　원하노라 대역사가 완성이 된 이후에는
賴此斯鄕旺運伸　힘입어서 이고장이 왕성한 운 길이 펴리

도자기체험 소감문

3학년 소감문 (11월26일~27일)

■ 흙으로 도자기 만들기

내가 나의 상상력을 더하여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 좋았고 매년 이런 활동들을 해서 재밌고 새로운 체험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흙을 만지는 느낌이 좋아서 더욱더 흥미있고 힐링되는 느낌이다. 재밌었던 것 같다.

■ 화분만들기

남들과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따라 하거나 그냥 바로 생각드는 것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듯하다. 우선 만들어보아야 어떻게 고칠지도 생각나는 것 같다. 처음에 만졌을 때 상상은 많이 하였으나 내능력은 그 상상을 실현시키지 못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래서 옛날에 만든 작품을 따라하여 오리 모양을 만들었다. 그래도 예전보다 오리를 만드는 것이 더 나아진 듯하여 나름대로의 발전을 한 것 같아 그걸로 자기 위로를 할 수 있었다. 상상을 구현해 내는 사람들이 부럽고 신기하다.

■ **도자기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하기 싫었는데 하다보니 재미있었고, 만드는 것도 많이 어려웠는데 같이 오신 도자기 만드는 선생님이 어려운 부분을 잘 알려주셔서 쉽고 빠르게 끝난 것 같다. 만들기 전엔 만들어봤자 뭐하나 생각했지만 점점 흥미도 생기고, 만들면 추억이고, 화분 같은 걸 키우는 거라 엄마가 좋아할까 봐 더 열심히 만든 것 같다.

■ **도자기 만들기**

도자기 만드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역시 난 도자기 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도 다 만들고 나니 보람을 느꼈다. 솔직히 하기 싫었는데 선생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하다가 어렵거나 막힐 때 마다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었다. 흙도 많이 주셔서 흙을 다 써서 못만들 걱정을 안해도 된다.

중3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이런 종류의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막 행복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런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 **도자기 만들기**

처음에 도자기를 만든다 했을 때 솔직히 싫었다. 귀찮고 손에 묻기 싫어서 싫었다.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애들이랑 떠들면서 수업받으니까 기분도 좋고 선생님도 친절히 가르쳐주셔서 하기 좋았다. 중간 중간 선생님이 칭찬까지 해주니까 기분이 더 업되었다. 만들기는 망쳤지만 기분은 좋았던 수업인거 같다. 이 수업을 후배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후배도 나와 같은 반응일테지만 그래도 해보라고 재밌다고 추천해주고 싶다. 정말 재밌고 알찬 수업이었던 것 같다.

■ **도자기 체험**

이오난사를 넣을 화분을 만들고 이것은 다르게 세우는게 아니고, 달아 놓는 것이기 때문에 더 흥미가 갔다.

원래 손으로 만들고 만지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집중이 더 잘된거 같다. 중간에 무너지면서 멘탈도 같이 무너졌지만 마지막 결과물을 보면 기분이 좋고 내가 이렇게 만든게 스스로가 대견하다 다음에 이런 체험이 또 있다면 해봐도 좋고 다른 사람들 남녀노소가 체험해봤으면 한다.

■ **도자기 체험**

도자기 체험을 했는데 정말 재밌고 촉감이 너무 좋다.

내가 만들고 싶은 화분 모양으로 만드는데 정말 재밌고 귀여운 식물까지 봤다.

남은 찰흙으로 만들고 싶은걸 만들고 뿌시고 정

말 재밌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다. 그릇도 만들어 보도 싶고 창의력을 키우기 좋은 것 같다. 정말 즐겁고 재밌었다.

■ 도자기 만들기

처음에는 손에 흙을 묻히기 싫어 도자기 만들기 싫었는데 하다보니 손에 묻고 손톱에 조금 끼긴 했지만 화분도 만들고 이오난사라는 식물도 나중에 주신다고 해서 나중에 화분하고 식물받으면 집에다가 두어야겠다.

예나가 정말 못해서 내가 흙도 빌려주고 많이 도와주었더니 예나 화분이 정말 이뻐져서 뿌듯했다.

■ 도자기 만들기

처음엔 찰흙을 손에 묻히기 싫어서 잘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좀 망하고, 두 번째 것을 또 만들었다. 두 번째거는 꽃모양 화분을 만들었는데 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은채가 정말 못해서 내가 도와줬다. 내가 도와주니깐 완전 이뻐졌다. 뿌듯했다.

처음에는 잘 못만들어서 너무 화가 날뻔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완성했다. 다음에 또하고 싶다. 재미있었다.

■ 찰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활동

이 활동으로 창의력이 늘어난 느낌이 들고 도자기를 만드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 열심히 집중할 수 있었고, 이오난사라는 식물에 대해 알게 되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 도자기 만들기

오랜만에 흙을 만져서 기분이 새로웠다. 이오난사 키울 화분(?)을 만들었을 때, 조금 어려웠는데 선생님께서 친절히 도와주셔서 예쁘게 잘 만든 것 같다. 만든건 오늘인데 벌써 굽고나온 모습이 기대된다. 일주일 어떻게 기다리지... 이오난사를 품은 화분을 받으면 집에서 진짜 열심히 키울거다!!

다음에 또 만들어보고 싶구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 도자기 만들기 이오난사 집을 직접 도자기로 지어보는 활동을 하였다.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내가 잘 만들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모양 잡기가 어려웠다.

풍선을 이용하여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흙으로 두드리니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어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그냥 다 애매해서 그냥 풍선으로 했던 것 같다. 물을 사용해 고정시키는 방법도 사용했는데 미끌미끌해져서 붙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잘 붙어서 놀랐다.

잘 만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워낙 바쁘셔서 물어보진 못했다. 생각보다 너무 못만들고 처음에 만들고 싶은 모양을 벗어나서 조금 아쉽지만 초등학교 졸업 이후 오랜만에 흙을 만져서 무엇을 만

드는 경험을 해서 조금 재밌었다.

■ 찰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었다.

어떤 모양으로 해야할 지 구상하기가 제일 힘들었다.

교실 히터 때문에 건조해서 갈라지기 매우 쉬워서 만들기가 더 어려워졌지만 다 만들고 나니 뿌듯했었다. 선생님께서도 만드는 걸 많이 도와주셔서 만들기 편하고 좋았었다. 초등학생때 많이 만들어봤는데 중학교 들어온 이후로 안 만들어봐서 그런지 기분이 좋았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 이오난사 집을 찰흙으로 만들었다.

이오난사라는 식물을 몰랐기도 했고 흙, 도자기 같은것에 원래 관심이 아예 1도 없었는데 오늘 직접 체험해보니 관심이 가게 되었다. 그냥 설명만 들었다면 재미없고 지루하기만 할 것 같은데 직접 손으로 만지며 만들어 체험하니 효과가 배로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공중에서 사는 식물이 있다는 거에 되게 놀랐다. 이런 재미와 지식을 나눠주는 체험학습은 앞으로도 학교에 많이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 도자기 체험

이오 난사라는 식물의 화분을 만들어 보았다.

이오난사라는 식물을 처음들어 생소하고 신기하였다.

도자기를 굽는데 200℃가 넘는 가마에서 굽기 때문에 꼼꼼하게 흙들을 이어주어야 한다고해서 더 공을 들이고 손을 더 많이 쓴 것 같다. 내가 만든 이 화분이 잘 구워져 나왔으며 좋겠다.

■ 이오난사 도자기 만들기

처음에는 흙이 너무 차갑고 손에 흙이 달라붙을 것 같아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다보니 흙의 느낌도 좋았고 내가 직접 만지고 문양을 새겨서 하니 재미있고 또 만들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떠니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들었다.

선생님께서도 친절하셔서 좋았다.

■ 도자기 체험

촉감을 통해 도자기를 만들어 평소 기르기 힘들던 감감과 예술을 뽐낼 기회를 가져서 매우 좋았다. 또한 이 활동이 내 삶속에 하나의 식물을 기르게 하는 경험이 된 것이므로 조금 천천히 흘러가는 삶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다.

■ 이오난사 집 만들어주기

처음에 선생님이 하신 걸 보면 엄청 쉬워 보였다. 그래서 엄청 재밌을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직접해보니 매우 어려웠다.

진흙? 이 계속 갈라지고 제대로 말리지도 않아서 많이 어렵고 재미없었다. 그래도 다 만들고 보니 내가 스스로 만들어 뿌듯한 것 같다.

■ 도자기 화분 만들기

만들면서 촉감놀이를 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활동 많이하면 좋겠다. 많은 것을 느끼며 많은 추억을 만들어준다. 처음에 만들 때는 좀 힘들었지만 선생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잘 만들었다. 오랜만에 많이 웃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 도자기 만들기

재밌었다. 나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셨다. 난생 처음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신기하였고, 코로나여서 심심하였는데 도자기 만들기를 통해 재미도 얻었다.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졌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를 못하겠다. 이 추억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 이오난사 식물 화분 만들기

오랜만에 찰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초등학생때 찰흙으로 만들기 했던 생각이 났다.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하니까 재미있고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 이오난사의 화분을 만들었다.

이오난사라는 좋은 식물에게 화분을 만드는 활동이었는데 도자기흙을 만지며 원하는 모양으로 화분들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다. 특히 흙을 만질 때 느낌이 새로웠고 내가 원하는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내 도자기의 완성작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 도자기 화분 만들기

코로나에서 마스크를 쓰고 해서 답답한 점이 있었지만 도자기 화분 만드는 것이 재미있어서 마스크가 불편한지도 모르고 2교시가 지나가 버린 것 같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도자기를 만들러 가고 싶다

■ 이오난사가 들어갈 도자기르 만들었다.

초등학생때 도자기를 처음 만들어 봤었는데 그때와는 느낌이 다른것 같다. 오늘 만든 도자기가 더 어려웠던것 같다. 처음부터 만들어서 그랬던것 같다. 하지만 더욱 재미있었던것 같다. 빨리 내가 만든 도자기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오난사가 들어간 도자기 모습을 보고싶다.

■ 이오난사가 화분 만들기

이오난사라는 식물도 알게 되었고 화분의 형태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활동으로 식물 생명의 중요성과 친구들과 같이 화분을 만들면서 우정을 키워나갔다. 나는 학교에서 이러한 체험활동을 더 많이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활동은 처음 해봐서 재미있었고 보람찬 활동이었다. 나중에 한 번 더 하러 가고 싶다.

■ 도자기 만들기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이 만든 도자기를 구우면 흙으로 만들었는데 많이 단단해지는 것이 신기하다 이 활동을 통하여 흙으로 여러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고 이 활동을 통해 나중에 흙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 체형을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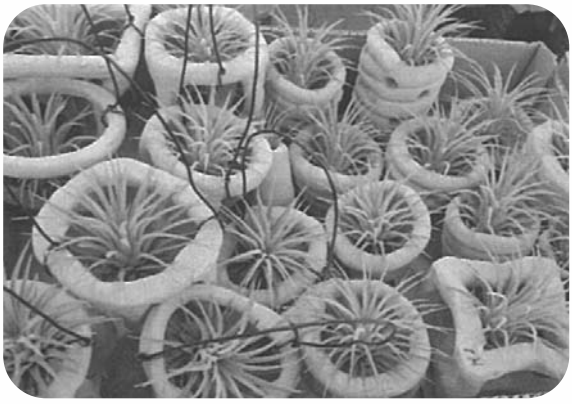
■ 이오난사화분만들기

흙을 가지고 내손으로 이리저리 주무르며 화분을 만드는 활동은 내가 직접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평소할수 없던 일을 해 볼수 있던 것이 있어서 즐거웠다. 또한 화분을 더욱 예쁘게 만들기 위해 직접 다듬는 과정에선 더욱 집중할수 있어 더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

■ 도자기 만들기 체험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마치 나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고 도자기를 다음는 것은 마치 내 정신과 마음을 갖고 닦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과 내 도자기가 구워져 다시 만날 날이 기대된다.

2학년 소감문 (12월17일~18일)



■ 도자기 화분을 만들어 보았다.

TV에서 보던 도자기를 직접 해보니 새롭고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 해도 모양이 흐트러지고 하였지만 막상 만들고 나니 엄청난 성취감이 들었다. 도자기를 차분히 만드니 나도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손의 미세한 움직임으로도 도자기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 신기했다. 나는 빗살무늬에 감명을 받아서 빗살무늬를 새긴 컵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구워서 온 나의 컵이 기대가 된다.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 도자기 체험

이오난사 식물 화분을 만들 때 처음에는 무엇을 만들지 고민했었다. 그런데 직접 흙을 만지고 내가 어떤 캐릭터를 만들것인가 생각해서 예쁜 사람 캐릭터 화분을 만들 수 있었고,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지니 내가 만든 작품에 뿌듯함을 느꼈다.

■ 이오난사의 집(화분)을 만들었다.

나는 거북이 모양을 만들어 등껍질에 구멍을 뚫어서 이오난사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었다. 사실 TV에서 보던 어려운 것을 상상했는데 내가 직접 모양을 만드는 것이여서 안심이 됐고 재미있었다. 또 다만들고나니 너무 뿌듯했고 나중에 보내주실 때 이오난사도 같이 넣어서 보내준다고 해서 너무 좋았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 식물 이오난사를 위한 공중화분 제작

이오난사라는 공중식물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도자기를 직접 빚는 것으로 상상력에 자극이 된 것 같다.

이번 도자기 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지식과 손재주를 키우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 이오난사를 위한 화분을 만들었다.

찰흙을 가지고 작품(화분)을 만드는 경우는 어렸을 때를 제외하곤 거의 하지 않아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물과 나무 막대기만을 이용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다. 비록,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들지는 못하였지만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고, 만드는 과정을 알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 도자기 만들기, 식물의 집 만들기

시간은 촉박했지만 매우 재미있었다.

다음에 하게 된다면 또 하고 싶다. 그리고 만드는 게 좀 어려웠지만 결론적으로 재미있었으니 만족한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감사했다.

■ 자신이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도자기를 만들었다

친구들과 찰흙으로 다양한 모양의 도자기를 만들었다. 여러명이 만들어서 더욱더 재밌었다. 다

음에 또 만들어보고 싶다. 재설이가 잘 만들었다.

■ 찰흙을 이용해서 판위에 식물을 넣을 그릇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찰흙을 만지는 느낌이 이상했는데 계속 만지다보니 적응이 되었다. 만드는데 어려움을 격자 담당교사께서 잘 지도해주셨고 자신의 창의력을 이용해서 무언가 만든다는게 굉장히 좋은 수업이라 느꼈다.

■ 도자기를 만들었다.

스스로 모양을 잡고 직접 구상해서 한땀한땀 만드니 완성했을 때 2배로 기쁘고 2배로 뿌듯했다. 손재주가 별로 없어 중간중간 뭉개지고 망가져 속상할 때도 있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다시 해보니 모양이 잡혔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친절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도움덕분에 일찍 끝낼 수 있었다. 도자기를 만들어 보니 정말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 어렸을 때 내가 찰흙을 갖고 놀던 것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다. 나중에도 이런 활동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 찰흙으로 식물 키울 화분을 만들었다.

찰흙으로 식물을 키울 화분 만들기를 했는데 화분 모양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친구들마다 화분모양이 다르게 나와서 더 재미있었다.

화분을 찰흙으로 직접 만든 적은 없는데 처음 경험해봐서 신기하고 더 집중해서 활동한 것 같아서 좋았다.

■ 도자기 만드는 것

도자기를 오늘 만들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도자기 만드는 게 재밌고 좋아졌다.

처음에는 쉬울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어려웠다. 선생님들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많이 힘드실 것 같다. 열심히 해서 완성작을 빨리 보고 싶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 도자기 만들기

나는 도자기 만들기에 재능이 없다. 그렇지만 재미는 느꼈다. 재능은 없지만 이런 것 만드는 것에는 재미를 느낀다는 것도 느꼈다. 계속 만들어보면 실력도 늘고 재미도 느낄 것 같아서 나중에 계속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

■ 다육이과 식물을 키우기 위한 화분을 도자기로 만드는 체험을 하였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힘든 직업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도자기를 만드는 작업이 고되고 힘들다는 걸 알게되는 시간이었고, 내가 만든 도자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도자기 장인들은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같다. 나도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 도자기 만들기

사실 도자기는 예전부터 많이 만들어봤어서 또 만든다고 해서 지겹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다시 만들어보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느까 더 재미있었고 지겹다는 생각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만들 때 마다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예시를 따라 만드는데 지쳤었는데 이번 선생님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도 된다고 해서 생각하던걸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 난 악어 모양으로 만들었다.... 선생님들이 창의적이라고 칭찬해 주셔서 머쓱하면서도 부끄러웠다. 얼른 제대로 된 모양이 잡힌 악어 도자기를 받고 싶다.

■ 다육이 화분을 도자기로 만들었다.

만들기를 잘하지 못하는데 선생님분들이 잘 알려 주셔서 쉽게 만들 수 있었다. 또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오래 걸리지 않았다. 빨대로 구멍을 뚫었는데 은근히 힘 조절이 필요했다. 아직 굳어있지 않아서 흐물흐물 거려서 뚫고 있는데 망가지려했기도 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었던 것 같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하고 싶은 체험이다.

■ 점토로 이오난사의 집 만들어 주기

무언가를 조립하고 만드는걸 좋아해서 수업을 정말 재밌게 해다. 어릴 때 점토로 뱀을 만들다가 부셔져서 한동안 점토 만들기를 싫어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해보니 의외로 시간 가는줄 모르고 했다. 학교에서 이런 시간을 더 만들어 주면 좋겠다.

■ '이오난사' 라는 식물을 기를 수 있는 도자기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쉬울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 꼼꼼함과 창의력 등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우리가 사용해는 도자기는 상당한 기술력으로 만들어 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도자기 기술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졌다.

■ 자기만에 개성으로 찰흙으로 이오난사라는 화분을 만듦

오래만에 찰흙으로 만들어 재밌었고 엄청 오랜만에 만든거라 옛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다. 선생님도 친절하셔서 잘 된거 같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열중한 것 같았다. 다음에도 이런 체험을 하면 좋겠고 학교에서 하는 것도 또 다른 느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화분을 엄청 잘 만든 건 아니지만 내 손으로 만든 것이 뿌듯했다.

■ 도자기 만들기

오늘 도자기를 만들면서 손에 많이 묻고, 옷에 흙이 흐르고 그랬지만 도자기를 노력해서 다 만들고나니 보람차고 좋았다. 비록 잘 만들지는 못했

지만 노력해서 만들었으나 그걸로 된거라 생각했다. 다음에 만들 기회가 생긴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이오난사 화분 만들기

이오난사 화분을 만들면서 느낀점은 일단 이오난사라는 식물이 신기하였다. 왜냐하면 뿌리없는 식물은 처음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잡아주고 한다니 너무 실용적일것 같아 재밌고 기쁘게 만들게 되었던거 같다. 이오난사를 앞으로 잘 책임져서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 이오난사 화분 만들기

이오난사라는 식물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오난사의 특징과 주의할 점으 배웠다. 찰흙으로 이오난사가 들어갈 화분을 만들었는데 어떤걸 만들지 계속 고민하다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화분을 참고해서 만들었다. 손재주가 좋지 않아서 예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해 애정이 가는 화분이다.

■ 도자기 화분 만들기

어렸을때에도 도자기로 무언가 만드는 활동은 많이 해봤지만, 대부분 연필꽂이를 만드는 활동이였는데, 화분을 만드려니까 뭔가 두근거렸다. 여전히 만들기 귀찮아서 열과 성을 다하여 만들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한 만들기 활동이라 어렸을적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느낌이였다. 만들기 활동을 하니까 반이 굉장히 시끌 시끌 해지긴 했는데 딱히 내 쪽엔 피해가 오가나 하진 않아서 편하게 만들었다. 도자기가 다 만들어지려면 오래 걸려서 바로 받지 못한다는게 슬프긴 했지만 잊어갈 때 쯤에 오는 완성품을 보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다.

■ 도자기로 화분 만들기

도자기로 나만의 화분을 만들었다. 도자기안에 이오난사를 넣는 것이었다. 이오난사는 먼지를 흡수해준다. 이오난사 관리법은 1주일~2주일에 한번 1시간을 물에 담구고 다시 말리고 계속 쓰는 것이라 좋았다.

도자기를 만들 때 너무 재미있어서 좋았다. 다음에 또 다시 이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도자기 방과 후를 해서 이번 활동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 도자기 만들기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다. 정말 예쁜 도자기는 누가 만든건지 궁금하다. 근데 나는 되게 못만들었다. 친구들은 잘 만들었다. 그리고 도자기를 만드는데 도자기 찰흙이 굳어 가루가 되어 책상하고 옷에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내가 직접 만들 모양을 정하고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옛날엔 별로 재밌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해보니 정말 재밌었다. 다음에도 학교

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수업을 또 했으면 좋겠다.

■ 식물을 넣을 화분 만들기

다육이 식물을 키울 때 넣는 화분을 만들었다. 도자기를 만드는 흙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보았다. 선생님들이 알려준 모양과는 다르게 친구들과도 다르게 나는 신발모양으로 만들었고,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렸다. 우리가 쓰는 일반 접시, 컵들이 이런식으로 만들어진다는게 다시 생각해보니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든 작품을 보고 뿌듯하기도 했는데, 다른 접시, 컵 등을 만들었던 사람도 이런 기분이었겠지?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해보고 싶다.

■ 도자기 만들기 식물의 화분 만들기, 공중식물의 화분

만들기 전에 엄청 쉬울줄 알았는데 붙이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나는 연필꽂이를 만들었다. 원으로 만들어서 연필꽂이 바닥을 만들었다. 물을 묻히고 문지르면 매끈해진다. 높이 쌓는게 많이 힘들었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들어봐서 재미있었고 결과가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 도자기 만들기

도자기로 공중식물 이오난사 화분 만들기를 하였는데 이오난사라는 식물을 처음봐서 신기했고 도자기 체험을 하는게 재미었다. 선생님께서 만들기를 도와주셔서 더욱 쉽게 할 수 있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

■ 공중식물인 이오난사의 화분을 지점토로 만들었다.

공중식물이란 식물을 처음 알게 되었다. 화분을 만드는 과정이 손에도 계속 묻고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잘 안나와서 힘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무 체험도 못하다가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고 흥미로웠다. 다음에도 이런 체험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 찰흙 만지기

이런 것을 하면서 도자기 장인들이 힘들다는 점을 알았다. 찰흙으로 창의성이 돋보여서 아주좋았던 활동이었다. 그런 의미로 화분을 만들면 성취감과 창의력을 높여주는 활동이여서 아주 않았다.

■ 공중식물 이오난사 화분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어떠한 것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선생님께서 주제를 주셔서 그것에 맞는 주제로 도자기를 만들었다.

초6때 만들고 그 이후로 한번도 만든적이 없는데 이 체험을 통해서 흥미을 느꼈다. 창의력과 재미도 더해주어서 더 좋았다. 다음에 또한다면 더욱 더 좋은 작품을 만들 것이다.

양양군 걷는 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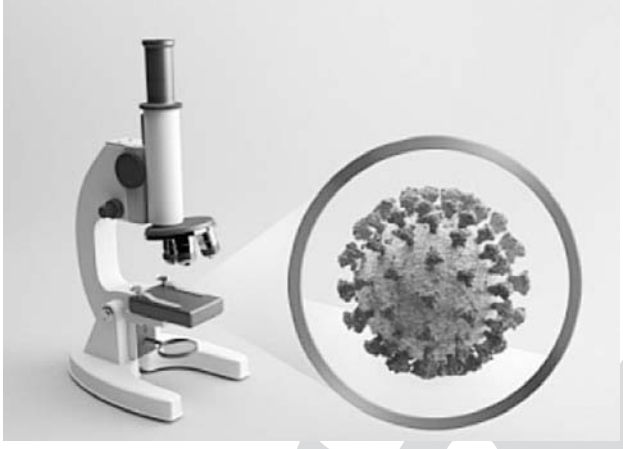
길 명칭	길이(km)	소요시간 (편도)	구 간
20개 코스	213.33		
해파랑길 41코스	12.2	3.0	지경해수욕장-남애1리해수욕장-휴휴암-죽도정
해파랑길 42코스	9.9	3.5	죽도정-동산항-38선휴게소-하조대해수욕장
해파랑길 43코스	9.5	3.0	하조대해수욕장-여운포교-동호해수욕장-수산항
해파랑길 44코스	12.3	4.5	수산항-낙산해수욕장-설악해수욕장-속초 해맞이공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2.4	1.0	물치해수욕장-설악해수욕장-낙산사
해오름길	17.4	6.0	낙산사-낙산대교-오산해수욕장-여운포교-하조대
몽돌소리길	1.2	0.3	정암해변-용호리전망대-설악해변
38선 숨길 디모테오길	18.0	6.0	양양성당-송이밸리자연휴양림-부소치리-명지리
38선 숨길 1코스	18.6	9.5	38선휴게소-현북면 잔교리-대치리-명지리-서면 내현리
38선 숨길 2코스 정족산	10.0	7.0	서면 내현리-정족산-서면 서림리
불바라기약수길	5.8	2.0	미천골자연휴양림-미천골정-멍에정-불바라기약수
양양 진전사지 탐방로	0.6	0.5	진전사지 삼층석탑-진전사-진전사지 도의선사탑
구룡령 옛길	2.8	3.5	갈천리 구룡령 옛길 입구-구룡령 옛길 정상
모노골 산림욕장	3.72	2.2	양양향교-모노골약수터-내곡리길
송이밸리 숲길	6.0	3.5	송이밸리 짚라인 승차장-구탄봉전망대-송이밸리 입구
죽도 숲길	0.19	0.1	현남면사무소 일원(인구리 11-4, 11-7)
인구리 숲길	0.38	0.2	죽도정 일원(인구리 1-1)
만세길	0.34	0.2	강원외국어교육원 일원
솔바람산책길	2.0	0.5	송전해수욕장-강원외국어교육원
달래길	80.0	11개코스상이	현남면 하월천리 달래촌 11개 트레킹 코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 코 ·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 빈도도 높게 나오고 있다.

외국어 표기	corona virus disease 19, COVID-19(영어)
최초 발생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질병 분류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영병증후군 · 질 병 코 드 : U07.1
병원체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경로	현재까지는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1~14일(평균 4~7일)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그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치료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음. 따라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대중치료(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진행
치명률	·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 5 기준) 단, 국가별 · 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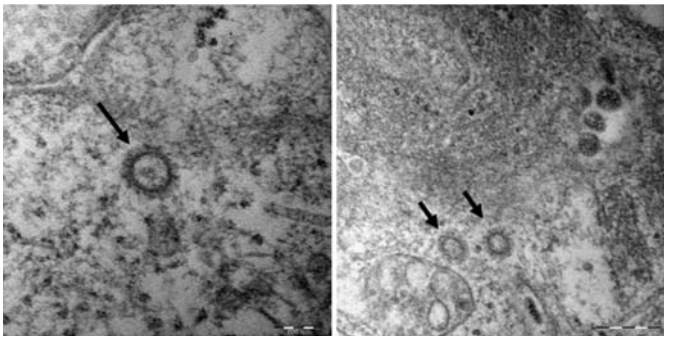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 2월 11일 명명)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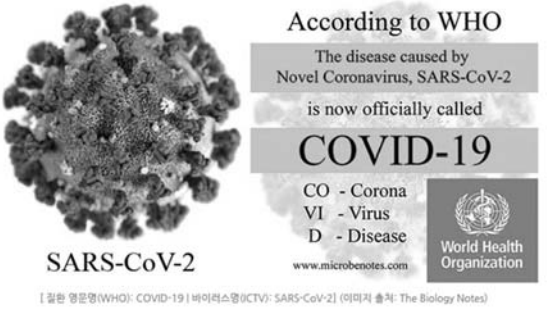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1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코로나19의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는데, 이 의료진 감염 여부는 사람 사이의 전염을 판별하는 핵심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WHO는 3월 11일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이 질환은 초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가 2015년 내놓은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불렸다. 그러다 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내 6명의 코로나19 환자로 부터 얻은 바이러스 고해상 전자현미경 사진(2020.2.27). 코로나바이러스 입자 크기: 80-100nm



[질환 영문명(WHO): COVID-19| 바이러스명(ICTV): SARS-CoV-2]
(이미지 출처: The Biology Notes)

병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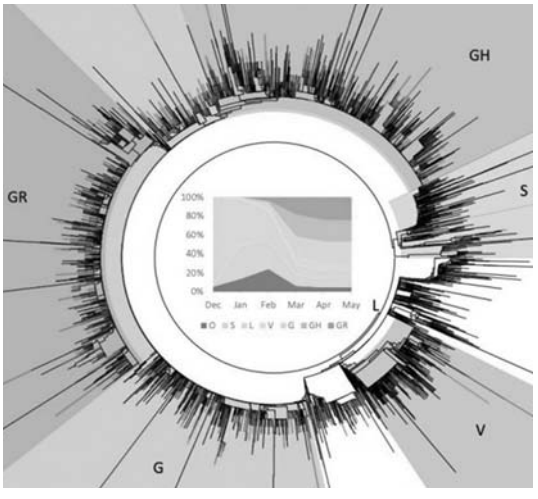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병원체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이다.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ICTV)는 2020년 2월 11일 코로나19의 병원체에 SARS-CoV-2라는 이름을 제안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위원회는 이 바이러스가 2003년 유행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전자와 해당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에서의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 기존 S, V, G 등 3개 그룹(clade)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WHO가 운영하는 유전자 정보사이트(GISAID)는 약 3만 개에 이르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게놈 염기서열 중 9개를 '마커(표지)'로 삼고, 이 염기서열의 종류 조합을 기반으로 하여 S, V, L, G, GH, GR, 기타 등 7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류하고 있다. GISAID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SARS-CoV-2 중 하나를 'L'로 분류하고 참고 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염기서열의 변화에 따라 S와 V가 등장했으며, 2020년 2월에는 G그룹이 등장했다. 그런데 이후 G그룹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GH와 GR로 세분화됐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S, V 그룹이 확인됐는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우한 교민 등으로부터 유입된 바이러스는 S그룹,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으로 확산되던 것은 V그룹이었다. 이후 유럽, 북미, 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부터는 G, GR, GH 그룹이 주로 유행하고 있다. G유형은 614번째 아미노산이 아스파트산(D)에서 글리신(G)으로 바뀌는 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국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2020년 5월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GH 유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WHO GISAID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류 체계

연번	분류 체계		분류 대상 유전자	분류 대상 아미노산
1	S 그룹		ORF8	L84S
2	V 그룹		NS3	G251V
3	G 그룹	G 그룹	S	D614G
4		GH 그룹	S	D614G
			N	G204R
5		GR 그룹	S	D614G
			NS3	Q57H
6	L 그룹		WIV04 분리주(우한 분리주)와 유전적 근연성	
7	기타 그룹		6개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바이러스	

● GISAID에서 분류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계통 분류



GISAID에서 분류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계통 분류로, G 유형의 급격한 증가로 GR, GH 등으로 세분화됐다. (출처: GISAID 홈페이지)

전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 코 ·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여기서 비말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 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비말)에 바이러스 · 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통상 이동거리는 2m로 알려져 있다. 눈의 경우 환자의 침 등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2월 19일 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 즉 에어로졸에 의한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처음 인정한 바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현황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전염 확산 일러스트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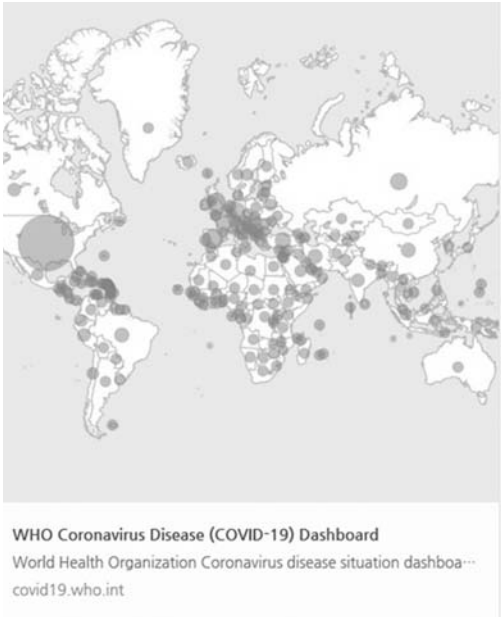
○ 최초 감염과 중국 내에서의 확산

-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

○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2020. 1. 30)
○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 급증(2020. 3 ~)
○ WHO, 코로나19에 팬데믹 선언(2020. 3. 11)

전세계 코로나19 발생 상황

■ 국외 발생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국내외 코로나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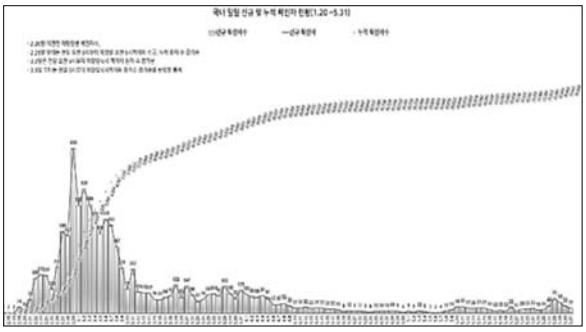
(※) WHO : 전세계 코로나19 상황판 [COVID-19 Situation dashboard]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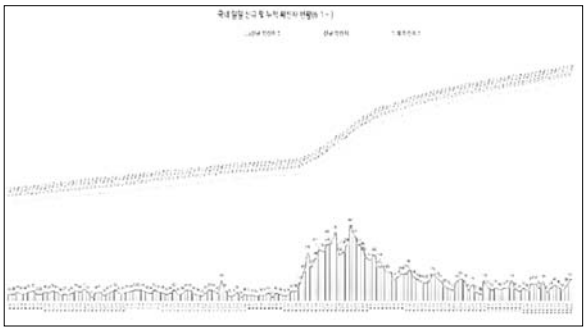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체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별 코로나19 관련 정보
· 국내 발생 현황 :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 확진환자 이동경로
· 보도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국내 코로나19 발생 진행 현황

- 2020년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
- 1월 27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국내유입)'에서 '경계(국내 제한적 전파)' 수준으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 우한 교민 이송 위한 전세기 투입(3차례:1.30, 1.31, 2.11)
- 2월 8일 코로나19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
- 2월 18일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 감염과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
- 2월 21일 대구 · 경북 청도 경북 경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관심(해외 유행) → 주의(국내 유입) → 경계(국내 제한적 전파) → 심각(전국 확산)]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 2월 26일 국회, 코로나3법 통과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공적 마스크 제도, 3.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
- 3월 15일 대구 · 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4월 13일부터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
- 2020년 4월 9일 고3 · 중3 수험생 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
- 4월 27일 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안심밴드 착용 시행
-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5.4~8.18) 지급
- 5.6일 부터 정부는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양상과 대응상황을 토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 로 전환
- 등교개학,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시행
- 5월 26일 부터 버스 · 택시 · 철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5부제 폐지(6.1) 후 1인당 구매한도 10개로 확대(6.18)
- 6월 10일 부터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 6.28일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구분해 시행('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 7월 12일 공적 마스크 구입제도 폐지



국내 일일 신규 및 누적확진자 현황(1월 20일~5월 31일)



국내 일일 신규 및 누적확진자 현황(6월 1일~10월 22일)

- 8월 중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서울 · 경기지역(8.16 ~ 8.30), 부산시(8.17 ~ 8.31)
- 8월 18일, 인천지역도 포함하여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시행(8월 19일 ~)
- 8월 21일 0시 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 전면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
- 8월 23일 0시 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 시행
- 수도권 유 · 초 · 중 · 고 8.26일 부터 9.11일까지 3주간 원격수업 전면 전환, 고3 제외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5단계로 강화해 1주간 더 연장(~ 9.6) :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 연장(~9.13)하고,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연장(~9.20) 실시(9월 4일 발표)
- 9월 13일, 2주간(9월 14~2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 → 2단계로 하향 조정.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
- 서울시 9.28(월) ~ 10.11(일) 오전 12시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 적용
- 전국 2단계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10.12 ~) : (참고: 보도자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서 검출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526건의 유전자 염기서열 추가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발생 초기에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S와 V 그룹이 유행하였으며, 대륙별로 대부분의 바이러스 그룹이 발견되고 있다.

• 최근에는 유럽, 북미,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G, GR, GH 그룹이 주로 유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지난 4월초 이전에는 S, V 그룹이 확인되었으나, 4월초 경북 예천과 5월초 이태원 클럽 발생 사례부터, 대전 방문판매업체, 광주 광륵사 관련 사례를 포함한 최근 발생사례에서는 GH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분류체계	분석건수	역학정보
S그룹	33	초기 해외유입 사례, 우한 교민, 구로콜센터, 해외입국자 등
V그룹	127	◇ 수도권 – 분당재생병원, 성남 은혜의강교회, 의정부 성모병원, 구로 만민중앙교회 ◇ 영남권 – 신천지 대구교회, 청도 대남병원, 경북 성지순례단, 부산 온천교회, 봉화 푸른요양원 ◇ 중부권 – 천안 줌바댄스, 정부세종청사(해양수산부) ◇ 기타 – 해외입국자
G그룹	10	해외입국자
GH그룹	333	◇ 수도권 – 이태원 클럽, 쿠팡물류센터, 수도권 개척교회, 리치웨이, 군포/안양 목회자모임, 삼성서울병원, 원어성경연구회, 행복한 요양원, KB콜센터,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양천구 운동시설, 성심데이케어, 부천 구성심리상담소, 서울시청역 안전요원, 마포구급대원 ◇ 영남권 – 경북 예천, 대구 달서구 일가족 ◇ 중부권 – 대전 꿈구는 교회, 대전 방문판매업체 ◇ 호남권 – 광주 광륵사 관련(금양빌딩, 제주여행) ◇ 기타 – 해외입국자(미국, 유럽 등)
GR그룹	19	부산 감천항 입항 러시아 선박 선원, 해외입국자
기타그룹	4	일본현지 확진자 접촉자, 싱가포르 출장 관련등
계	526	

증상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난다. 또 근육통과 피로감,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지 않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월 1일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을 재차 밝혔으며, 다만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는 드물 수 있으며 주요 전염 경로가 아닐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우리 보건복지부도 2월 2일 코로나19는 무증상 · 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증상들은 차도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일부에서 중증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감기 vs 독감 vs 코로나19

구분	단순 감기	독감	코로나 19
증상 발생 위치	주로 상부 호흡기관(상기도)	주로 상하부 호흡기관	주로 하부 호흡기관(하기도)
주요 증상	콧물, 인후염, 열과 두통으로 인한 무기력증	두통, 근육통, 기침, 한기를 동반한 고열	발열, 마른기침, 근육통, 피로
잠복기	잠복기 없음		잠복기 평균 7~14일 추정
회복 소요 기간	일주일에 안에 회복	일주일~몇 주 동안 길게 지속	약 13~18일(국내 기준)
감염 판단 방법	별도 검사 없음	독감 바이러스 검사	코로나 유전자 유무 검사

진단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Conventional PCR)과 염기서열분석 일치 여부를 통한 확진 검사를 진행했다. 이는 의심환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인지 여부(판코로나 검사법)를 확인한 뒤 양성반응이 나오면 환자 검체에서 나온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약 1~2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1월 31일부터는 코로나19만을 타깃으로 하는 새 검사법, 이른바 'RT-PCR'이 개발되면서 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포함)와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부터 적용됐다. 이 검사법은 판 코로나 검사처럼 코로나바이러스 전체 계열이 아닌 코로나19를 특정해 진단할 수 있는 '시약 키트'가 핵심으로, 검사 6시간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키트는 2월 7일부터 민간병원에도 보급되면서,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일 긴급 사용을 승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키트.
(사진 2020.2.6 , 출처: 연합뉴스)

치료

현재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되면 기침 · 인후통 · 폐렴 등 주요 증상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나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대증치료(대증요법)가 이뤄진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담당 의료진들은 일부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자가면역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된 뒤에도 무증상으로 바이러스가 3~4주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종료됐다고 해도 최소 2주가량 자가 격리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줄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중증 이상 코로나 확진자에게 투약 후 치료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3일 코로나19 치료제로 해외에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를 특례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질병관리본부(질본)는 렘데시비르를 7월 1일부터 국내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질본은 7월까지는 무상공급받은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공급하고, 8월부터는 길리어드사이언스와의 가격협상을 통해 렘데시비르를 구매할 계획이다. 7월 확보된 렘데시비르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우선 투약된다. 구체적으로 투약을 받으려면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진 상태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약 대상으로 판단된 환자는 5일동안 6병을 투약받고, 필요하면 한 차례에 한해 5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7월 24일 베클

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를 품목허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내 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시판 후에도 국제 임상시험 최종 결과, 일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자료,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가 2020년 8월 11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공식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예방제가 나온 것인지의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백신 이름은 옛 소련 시절 세계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의 이름을 따 '스푸트니크V'로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상 진행하는 3차례의 임상시험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백신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 보통 백신은 수천~수만 명을 대상으로 1~3차 임상을 거친 뒤에야 백신의 공식 등록과 양산 등을 시작하는데, 이 과정은 빠르면 수개월에서 늦게는 수년까지 소요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1차 임상 한달여 만에 최종 승인을 하는 등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된다.

예방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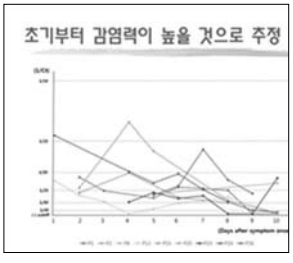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꼼꼼히 하고,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에 들를 때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마스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면 되는데, 식약처는 KF80(황사용)·KF94·KF99(이상 방역용) 등급으로 나눠 보건용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다만 숫자가 높으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산소투과율이 낮아 숨쉬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손씻기의 경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세면대가 없는 곳에서 활동할 때는 알코올 손 세정제로 수시로 씻는 것이 좋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의 종합판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형태로 3시간 이상, 구리 표면에서 4시간, 마분지에서 24시간,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표면에서 2, 3일간 전염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하며, 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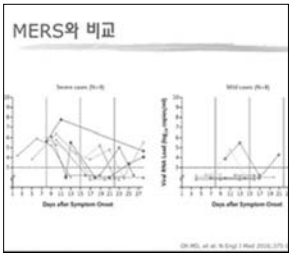
비비거나 코를 만지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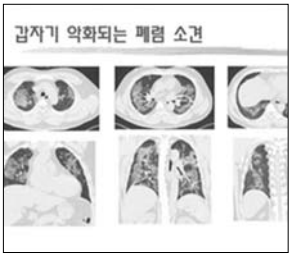
국내 임상경험으로 확인되는 코로나19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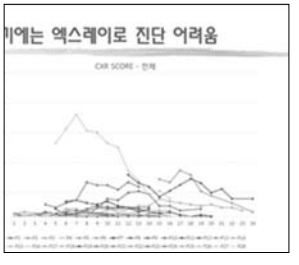
– 출처: 질병관리본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

코로나19는 타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병에 비해 질병 초기 단계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질병이 발현하는 임상 증상과 영상의학적 진행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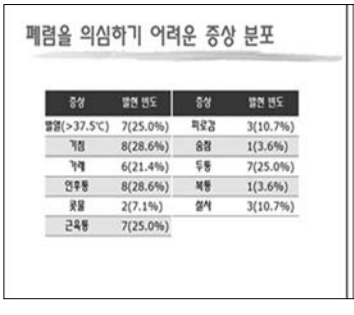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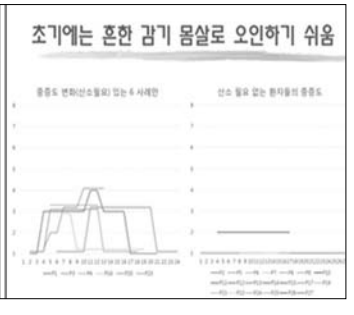






따라서 무증상이거나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여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전에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이 가능할 수 있고, 증상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임상적 경계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생활 속 거리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2019~2020)
- 공적 마스크 구입제도
- 사회적 거리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FAQ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안심병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체채취 가능 진료소
- 코로나19 승차검진 선별진료소
- 코로나 바이러스
- 바이러스 변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용어
-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
- 코로나19 관련 신조어들

제공처 정보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COVID-19)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코로나-19 행동수칙 및 방역수칙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 외출 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
2. 불필요한 가족 · 지인 모임 삼가기(모임인원 · 시간 최소화)
3. 주기적인 환기 · 소독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 소독하기
4.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5. 밀집 · 밀접 · 밀폐된 장소 피하기
6. 의심 증상 발현 시, 가까운 선별진료소 연락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방역수칙 정리표]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1단계</th><th>1.5단계</th><th>2단계</th><th>2.5단계</th><th>3단계</th></tr>
<tr><th>생활방역</th><th colspan="2">지역유행단계</th><th colspan="2">전국유행단계</th></tr>
<tr><td rowspan="2">중점</td><td>유흥
시설</td><td>4㎡당
1명으로 인원제한</td><td>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추가</td><td colspan="3">집합금지</td></tr>
<tr><td>식당</td><td>-대상 : 150㎡이상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3가지 중 1가지
선택</td><td>-대상 : 50㎡이상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3가지 중 1가지
선택</td><td colspan="2">21시 이후 포장 · 배달만 허용 추가</td><td>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td></tr>
<tr><td>일반</td><td>영화관</td><td>마스크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td><td>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td><td>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td><td>21시 이후
운영중단 추가</td><td>집합금지</td></tr>
<tr><td colspan="2">모임 · 행사</td><td>500명 이상
지자체 협의필요,
방역수칙 의무화</td><td>축제 등 일부행사
100인 이상 금지</td><td>100인 이상 금지</td><td>50인 이상 금지</td><td>10인 이상 금지</td></tr>
<tr><td colspan="2">직장 근무</td><td colspan="3">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td><td>1/3이상
재택근무 권고</td><td>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의무화</td></tr>
<tr><td colspan="2">등교</td><td>밀집도 2/3 원칙
(조정가능)</td><td>밀집도 2/3 준수</td><td>밀집도 1/3 원칙
(조정가능)</td><td>밀집도 1/3 준수</td><td>전면 원격수업</td></tr>
<tr><td colspan="2">마스크착용
의무화</td><td>중점 · 일반 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간 · 약국,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 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 ·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 행사</td><td>1단계에서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td><td>실내전체
+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td><td colspan="2">실내전체,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td></tr>
</table>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 카페
- 일반관리시설(11종) : PC방, 결혼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 워터파크, 오락실 · 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양양문화원 임직원

양양문화원 임원

- ❖ 원장 : 윤여준
- ❖ 부원장 : 이건필, 최종한, 양순자
- ❖ 당연직이사 : 이미애(문화체육과장)
- ❖ 이사 : 김남규, 김남극, 김정승, 김종환, 김현수, 손영애, 손인환, 안병대, 오철환, 윤정희, 이강열, 이근천, 장형열, 최낙민, 홍순봉
- ❖ 감사 : 문명완, 윤복녀

양양문화원 직원

❖ 원　　장 : 윤여준
❖ 사무국장 : 김진하
❖ 사무과장 : 최선미
❖ 주　　임 : 강차현, 김지연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 고 문 : 이종우
❖ 소 장 : 이철수
❖ 연구원 : 김재환, 김준호, 박상형, 김기송

2020년도 활동사항

향토문화연구(동해북부선종착지양양역 조사 및 책자발간)
고서,서고정리 및 목록화작업

양양문화원 수상내역

2020 대한민국 문화원상 수상(제13회)
(우수프로그램분야 축제 및 문화행사부문)

〈상패사진〉

〈시상식 : 2020년 10월 23일 11시, 세종문화회관세종홀〉

제1회 양양관광전국사진공모전 심사현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양지부에서 (2020년 2월 27일부터 홍보)

접수기간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 달간 제1회 양양관광전국사진공모전 응모작품이 총 713점이 접수되었다.

12월 4일 양양군실내체육관에서 모두 펼쳐놓고 공개심사를 하였으며 금상 1점과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50점 모두 61점이 선정되었다.(심사 사진참조)

금상에 상금 300만원과 은상 각100만원, 동상 각 50만원, 가작 30만원, 입선 1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접수 작품이 저조하리라 믿었으나 의외로 많은 작품이 접수되어 다양한 사진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양양은 산과 바다 그리고 남대천 100리길 산천풍광을 이루고 있으므로 농어민의 풍족한 생활상모습들이 카메라만 들이대면 모두가 작품으로 만들어질 드넓은 고장이 양양이다.

전체출품작품속에 남설악 오색주전골과 오색령이 45% 사찰문화 25% 어촌문화 15% 사이클과 서핑 5% 기타 10%로 분류할 수 있으며, 2020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취소되어 축제문화사진이 많이 부족하였다.

특히 양양의 대표적인 임산물 송이버섯이 주제가 되어 출품된 사진이 한 점도 없었으며 금상을 수상한 작가도 이 지역민이 아닌 경기도에 거주하는 작가가 영예의 금상을 수상하

게 되었다는 점이 이번 공모전의 화제 거리가 되었다.(사진참조)

허윤구작가. 양양군사진공모전 금상수상자 김양욱

첫 회에 만족할 수 없었으나 공모전 횟수를 지속해 나간다면 더욱더 많은 작품수와 양양군에서 홍보용 우수한 자료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양하게 수집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양양지역 아마추어작가들의 사진작가입회에 필요로 한 점수들을 획득할 수 있는 사진문화무대로 자리매김하였으면 하는 바가 크다.

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양지부장, 문화원 이사 최낙민

2020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편집실〉

2020년 문화예술단체장 신년사

설악신문 2020.
윤여준 양양문화원장
"문화융성 100년 설계하는 첫 걸음"

경자년 새해는 우리군민들이 문화예향의 고장답게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문화함양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군과 군민들의 드높은 자주독립열망을 대내외에 널리 알린 기백을 살려 올해는 향토문화의 선구자적 목표를 갖고 군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학교 운영을 비롯해 문화가족 유적지 순례 등 생활문화 함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향토애를 고취하기 위한 〈현산문화〉 발간사업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특히, 세조실록 기록을 토대로 한 전국 동구리전통민요 경창대회를 통해 전통문화 전승사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하고 문화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최선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양양문화제를 이와 연계한 품격 높은 향토문화제로 승화시켜 군민들의 자긍심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경로효친을 받들어 문예작품 공모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부지런함과 근면성실함으로 대표되는 쥐의 해이기에 우리 양양의 숭고한 향토문화 역사와 전통을 아끼고 보전하며 새로운 역사의 발자취를 열심히 찾아 문화융성 100년을 설계하는 양양문화원으로 더욱 도약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정]강릉 양양 2020년 1월 30일

강원일보 2020-1-30 (목) 12면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30일 오전11시 일출웨딩홀에서 양양문화원 정기총회를 주관.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강원도민일보 2020.02.10. 18면 – 최훈 기자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이 오는 28일까지 2020년도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강좌는 한시,한글서예,한문서예,논어,사물놀이 등 15개가 있으며 모집정원은 375명이다.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수강신청은 문화원에 방문접수하거나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문화원 향토문화학교에 참여하세요"
속초 25일 · 고성 26일 · 양양 28일까지 수강생 모집 / 천문학 · 태평소 · 논어 등 신설…3월부터 강의

[양양]문화학교 수강생 28일까지 모집

강원일보 2020.2.10. 12면 / 박영창 기자

【양양】양양문화원이 오는 28일까지 2020년도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시, 한글서예, 한문서예, 논어, 사물놀이, 난타, 태평소, 전통무용(부채춤), 민요, 한국화, 민화, 수채화, 통기타, 색소폰, 600합창단 등 15개 강좌가 개설되고 모집 정원은 375명이다. 또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5개 과목도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식은 올 3월2일 오전 11시 일출웨딩홀에서 열리며 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문화원 향토문화학교에 참여하세요

설악신문 2020.02.17. 장재환,김주현,이광호 기자

속초 · 고성 · 양양문화원이 향토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2020년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속초문화원(원장 김계남)은 오는 25일까지 2020년 향토문화학교와 문화시민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설 강좌는 사물, 무용, 노래, 서예, 전통매듭과 보자기, 스케치로 만나는 속초, 고고장구&퓨전난타, 자연치유 원예교실, 라인댄스, 한지공예, 드로잉, 돈돌라리 등 총 18개이다. 특히, 올해는 별자리와 일식 · 월식, 천체망원경 조작법, 천체사진 촬영법 등에 대해 배우는 천문학 강좌(강사 최원복)가 신설됐다.
신청은 직접 방문 및 전화로 접수받으며,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70%에 미달하는 과목은 자동 폐강된다. 교육기간은 3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7월 27일~8월 31일 한 달 여간은 하계방학으로 휴강한다. 속초문화원은 11월에 문학학교 수료식 및 전시 · 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고성문화원(원장 주기창)이 문화학교 제2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설 강좌는 민요, 서예, 민화, 서양화, 한국화, 요가, 사물놀이, 문학창작, 바이올린, 기타, 클라리넷, 플롯 등이며 교육 장소는 간성읍 고성문화의 집이다.
교육비는 5만원(재료비 · 교재비 별도)이고 모집기간은 17일부터 26일까지로 선착순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교육기간은 3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여름방학이다.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오는 28일까지 2020년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설 강좌는 한시, 한글서예, 한문서예, 논어, 사물놀이, 난타, 태평소, 전통무용(부채춤), 민요, 한국화, 민화, 수채화, 통기타, 색소폰, 600합창단) 등 15개 강좌로 총 37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전통무용(부채춤), 민화, 태평소, 논어 강좌가 새로 개설됐다.
개강식은 3월 2일 오전 11시 일출웨딩홀에서 열리며 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양양의 역사 속 인물인 허억봉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금교실은 3월부터 접수를 받아 4월에 강의를 시작한다.
수강 희망자는 문화원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양양향교 유림, 논어(論語) 열공(熱工) 중

유교신문 2020-06-02 - 전남표 기자

최영택 강사가 논어 학이편을 강의하고 있다.

양양향교 양동창 전교와 유림들이 수강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양향교(전교 양동창)는 지난 6월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양양향교 유림 10여 명이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논어(論語)반에서 논어를 열공(熱工)했다.
논어반에는 양동창 전교, 성균관유도회 양양군지부 최종학 회장, 양양향교 최돈균 총무장의(강원도향교재단 이사), 최영택 교화장의(논어 강사), 원로 유림, 장의 등이 참석했다.
이날 4회차 강좌(34강좌)에서는 최영택 강사(양양향교 교화 장의)가 '논어의 학이(學而) · 위정(爲政)편'을 주제로 삶의 지혜에 대해 강의했다.
문화학교 논어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강의하며 총 34강좌를 실시한다.

양양군, 코로나19 전파 차단 위해 양양문화제 개최 취소

뉴시스 2020-06-18 - 장경일 기자

강원 양양군이 고치물제, 양양성황제를 제외한 제42회 양양문화제 개최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양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6일 양양문화제위원회 총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전파를 차단하고자 민속시연 및 6개 읍·면 민속경기, 군민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단, 개회식에 앞서 진행하는 제례행사인 고치물제, 양양성황제는 7월3일 오후 4시 고치물샘터와 성황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취소 결정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집단 발생함에 따라 외지인 유입에 따른 집단감염 노출 등의 우려가 크고 인근 군부대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에 내려졌다.

행사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문화제 특성상 민속행사와 군민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행사인 고치물제와 양양성황제 제례봉행만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양]제42회 양양문화제 개최 전면 취소

2020-6-19 (금) 12면 - 김천열 기자

[양양]양양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제42회 양양문화제 개최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제례행사인 고치물제와 양양성황제는 다음 달 3일 오후 4시 고치물샘터와 성황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16일 양양문화제위원회 총회를 열고 인근 군부대 전파 우려와 관내 초·중·고교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로 학생들의 문화제 참여 불가 등을 고려, 민속시연 및 6개 읍·면 민속경기, 군민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행사인 고치물제와 양양성황제 제례봉행만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NH농협양양군지부 · 한전양양지사 양양문화원 재능기부

강원도민일보 2020.7.30. 최훈 기자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강원일보 2020.7.31

NH농협 양양군지부와 하조대농협, 한국전력공사 양양지사, 양양문화원은 30일 현북면 말곡리 농가 2곳에서 취약농가 주거환경 개선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본선 도내 2개팀 출전

강원도민일보 2020.09.08. 김진형 기자

춘천·횡성문화원 소속 각 1팀

▲ 도문화원연합회는 7일 춘천문화원에서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강원지역 오디션 시상식을 열었다.
국내 유일의 전국 규모 어르신 축제인 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에 춘천문화원의 라온두드림과 횡성문화원의 실버에어로빅 팀이 도 대표로 출전한다. 강원도문화원연합회(회장 류종수)는 7일 춘천문화원에서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온라인 강원지역 오디션' 결과를 발표,2개 팀을 우수팀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이들을 포함해 △휘나리 무용단(인제문화원) △한가람 풍물단(원주문화원) △치악하모(〃) △동강실버합창단(영월노인복지관) △양양색소폰동호회(양양문화원) △춘천실버오케스트라(춘천동부노

인복지관) △홍천 춤추단,단(홍천문화원) △양양 여울소리민요단(양양문화원) 등 10개 팀에는 '라이징 스타상'도 수여됐다.우수팀은 내달 16일 열리는 중앙대회 무대에 오른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의 강원지역 오디션에는 도내 28개 어르신 문화동아리가 참여했다.당초 지난 7월 횡성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온라인 행사로 치러졌다. 김진형

양양 · 영월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강원일보 2020-9-22 (화) 21면 – 김수빈 기자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양양문화원(원장:윤여준)과 영월문화원(원장:엄흥용)이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양양문화원은 우수프로그램분야 내 축제 및 문화행사 부문, 영월문화원은 지역문화 창달 분야 중 지역문화 및 향토사활용 부문에서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

강원도민일보 2020-12-01(화) – 최훈 기자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1일 문화원에서 2020학년도 문화학교 수료식 겸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가졌다.서예 · 수채화 · 민화 등 작품전은 4일까지 열린다.

양양문화원 2020년 문화학교 수료 한문 · 한시 등 15개 강좌 마쳐…작품전 열려

설악신문 2020년 12월 07일 김주현 기자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문화원과 일출예식장에서 2020년 문화학교 수료식을 겸한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지난 1일 오전 10시에 열린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 개회식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윤여준 문화원장과 회원, 수강생 등만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 등을 진행했다.

양양문화원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한글 · 한문서예, 한시, 사물놀이(초 · 중급), 통기타(초 · 중급), 한국화, 민요, 난타, 색소폰, 수채화, 600합창단, 논어, 민화, 전통무용, 태평소 등 15개 강좌를 운영했으며, 이번 전시회에 7개 교실에서 100여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올해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4개 강좌가 늘어난 15개 강좌를 운영하고 문화학교 프로그램 저변확대에 심혈을 기울였다.

윤여준 문화원장은 수료식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수강생들의 문화 열정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더욱 내실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전시회에서 참석자들이 축하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편/집/후/기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생활이 피로한 일상이지만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하면서 우리 다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또한, 9월 3일 마이삭과 7일에 하이선의 연이은 태풍이 동해안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양양지역도 태풍으로 인해 농경지침수, 도로유실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들의 빠른 복구와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와 태풍피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큰 도움으로 1년 동안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 해를 맞아 새로운 시도와 도전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도 좋은 행사로 발 돋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와 태풍피해로 어렵고 힘든 해였지만 새해에는 문화가족 여러분들께서 소망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해가 되시기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김 진 하

양양문화 제32호

2020年 12月 28日 印刷
2020年 12月 29日 發行
발행인 : 윤 여 준
편집인 : 김 진 하
발행처 : 襄陽文化院
인쇄처 : 대양프리컴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 낙 산 사

낙산사 대중일동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낙산사 템플스테이 낙산사 불교대학
낙산사 불자마을(용호리, 낙산, 사천리, 손양면)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양양군노인복지관 의상도서관
무산지역아동센터 1318무산지역아동센터
양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